갈등해소를 위한 임파워먼트 교육
EMPOWERMENT EDUC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BY

SEUNG BUN HAN (NAM)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ergen County, Tenafly, USA

2018

ABSTRACT

EMPOWERMENT EDUC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By

SEUNG BUN HAN (NAM)

It is enough to say that human history is one of conflict; that this conflict has occurred and existed everywhere people lived, and it can be seen that the way people faced and overcame conflict became the history of this world.

This paper examines how these conflicts occurred in the Bible and why these conflicts occurred from a theological point of view. The cause that has the most influence in our society among the causes of conflict is studied by looking at the object-relations theory by psychologists, in order to resolve this cause of conflict. Keeping the causes of conflict in relationships suggested by the theory in mind, empowerment in Christian education is given as one of the solutions.

This project sets Sunday Schools as the place to approach the solution and need of empowerment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cile conflict in relationships that arises from wanting to move churches due to children's education through empowerment model in Sunday School service, parental education and teacher education, in order to increase love for God and others.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ntroduction)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그 날까지 '관계'를 맺고 살기에 그 상대자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 관계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기에, 이를 일컬어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1]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 교회 안에 있는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부모교육과 교사교육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의식 구조에 변화를 주게 될 임파워먼트 기독교 교육을 실행함에 있다.

1.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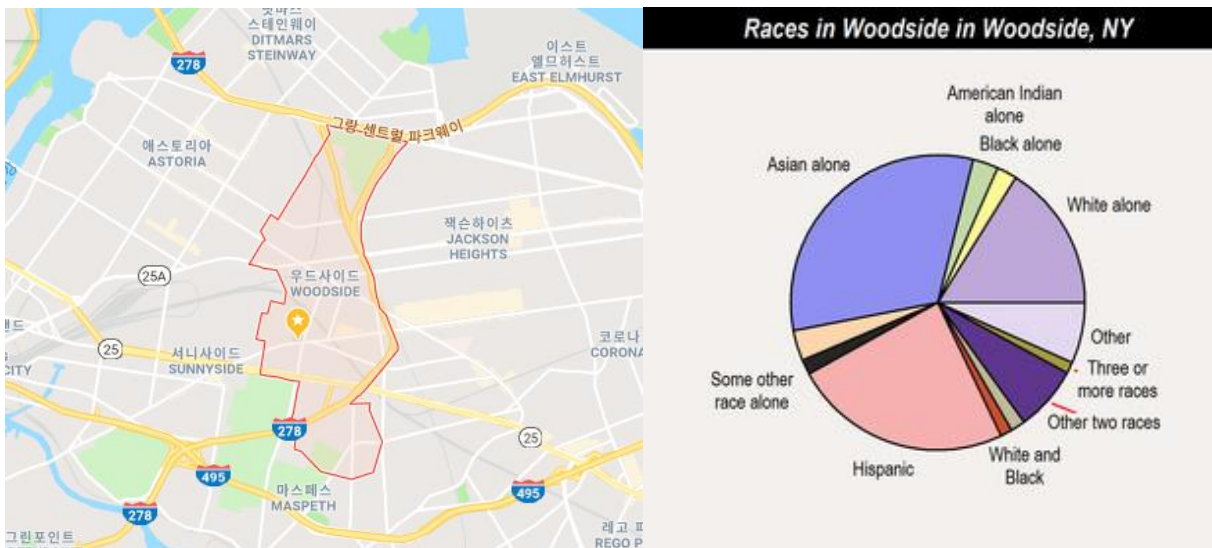
1) 목회의 지역적 배경

본 프로젝트를 실행한 교회는 Queens Woodside 에 위치 해 있으며 1860 년대에 대규모 주거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Woodside 는 1930 년대까지 아일랜드 인구의 80%가 이곳에서 아일랜드 문화를 유지하면서 퀸즈에서 가장 큰 아일랜드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되었다. 1990 년대 초반부터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인구의 30%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1]양창삼, *인간관계와 갈등관리* (서울: 경문사, 1997), 20.

구성되기 시작했다. 남 아시아인과 라틴계인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Woodside 로 이주하면서 이 Woodside 의 문화와 경제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지역은 뉴욕시의 퀸즈 (Queens) 자치구 서부 지역에서 중산층 주거 및 상업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지역은 남쪽에 Maspeth,북쪽엔 Astoria 가 있고 서쪽엔 Sunnyside 지역이 있으며 그리고 동쪽으로 Elmhurst 와 Jackson Heights 가 접경한다. 그래서인지 일부 지역은 여유롭고 넓고 매우 조용한 거주지지만 루즈벨트 쪽으론 상업 지역이기에 번화하고 복잡하다.

교회 위치와 Woodside 의 인종 분포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2) 목회 역사 배경

이 교회는 백창건 목사가 6 명을 데리고 Woodside 에서 새 문 교회란 이름으로 1979 년 2 월 4 일 개척 하였다. 백창건 목사는 교육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이 인식하였기에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목회를 함으로 Woodside

근방에 있는 Sunniside 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많이 등록하였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활발한 교회 학교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철이 가로지르며 자동차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지역이 됨으로 히스페닉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역상 더 개발될 수 없는 곳이 됨으로 안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외곽으로 이사를 하게 되므로 교회는 하향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 백창건 목사는 새 예루살렘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노기송 목사와 연합하여 새 문 교회와 새 예루살렘 교회는 새 시대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두 교회가 연합하는 과정에서 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기존 교회인 새 문 침례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집사로 있다가 소명 받은 목사가 되었기에 기존의 교인들은 아직도 이 새 담임 목사를 목사로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온 교인들은 몇 명의 청년들과 섬겨야 하는 노인들뿐 이어서 실제로 새 문 침례교회 교인들은 많이 지쳐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상 서민 중심으로 목회가 이루어지고 40~50 대 일할 수 있는 장년층보다는 노인층이 많아 목회의 방향은 노령화로 점차 바뀌게 되면서 교회학교 역시 쇠퇴의 경로로 들어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표면적으로 나타나 예배의 진지함, 봉사의 기쁨, 그리고 전도의 열정이 모두 식어가는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프로젝트는 교회가 연합하여 3 년 된 기간에 그곳에서 11 개월 동안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실행하였다. 아이들의 연령대는 4 살부터 13 살까지이었다.

2. 연구의 목적과 목표

1) 목적

많은 교회에서 교회학교의 예배가 베이비씨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고 있다. 그 이유는 훈련된 교사나 부모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교회리더들이 교회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베이비씨터 수준의 교회학교란 훈련되지 않은 교사들이 전통과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어른들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이들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영어만 잘 하면 그들의 목회적인 소양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아이들은 그들의 손에 맡겨진다. 아이들과 언어로 소통이 된다는 그 하나만으로 담임목사님은 안심하고 교회학교에 도통 신경을 쓰지 못한다. 예배의 의미도 교육 철학도 그리고 교육 목표도 없이 그 아이들은 매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곤 10 대가 되면 세상 문화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이 신학을 회피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부를 좇기 때문에 교회 적인 차원에서는 영혼 사랑하는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전수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예측된다. 교회 리더들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등한히 하여 사명감 없는 지도자에게 교회학교를 맡긴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에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교육자의 부재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교회학교의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이라 여겨 교회학교 교육에 교회 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 교회학교는 교회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관이 될 것이라 본다. 왜냐면 아동의 연령대는 마음 밭이 순수하고 순진하기에 이 마음 밭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준다면 이 아이들은 청소년기에서 겪는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잘 견디어 낼 것이다. 이때 도움을 줄 힘이 기독교 교육으로 훈련된 부모들과 교사들이다.

이에 임파워먼트 교육의 목적은 미발달 된 자아에 기독교 교육을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것에 있다(막 12:30, 31). 해리 먼로우(H. C. Munro) 는 '신교의 훈육' (Protestant Nurture) 에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밝히기를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에 접촉하여 그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위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생활로 변하게 하려 함이다"[2] 라고 하였다.

루이스 제이쉐릴(Lewis J Sherrill)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저서 '능력의 선물'에서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 말하기를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사업으로서 개인이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와 자연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수립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여하려는 사업이다"[3] 라고 하며 기독교 교육의 역동성을 말하였다. 또 그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자아를 이해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게 하려고

---

[2] Harry C. Munro, *Protestant Nurture* (New Jerse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56), 66-68.

[3] 김득용, *기독교 교육원론* (총신대학교 출판, 1996), 313.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4]고 하였다. 일반 교육의 목적은 인류의 역사가 바뀔 때 마다 변하여 갔지만 기독교 교육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기독교 교육 목적과 일반 교육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변하지 않으나 일반 교육 목적은 사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정해졌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0,31)의 기본 틀 안에서 정해졌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훈련하고 교사를 교육하고 부모를 교육하여 어린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기에 이 프로젝트는 임파워먼트 기독교 교육으로 쓰이게 되었다.

2) 목표

(1) 의식변화

A. 학생을 위한 의식변화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늘 자란다는 것이다. 영, 혼, 몸이 균형 있게 자라야 성숙한크리스쳔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숙한 인간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당시의 모습인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되돌아가

[4] Ibid., 314.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실현된다.[5] 그러므로 아이들이 건강한 크리스쳔이 되기 위한 의식 변화를 위해 먼저 영적인 부분을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어 막연히 알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해 주어야 자신감 있게 세상을 정복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인으로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회 주류가 될 수 없는 사회적인 높은 벽이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벽에 부딪힐 아이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고취해 주기 위해 한민족의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 한인으로서의 정체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줘야 한다고 본다.

B. 부모의 의식변화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모들에게 잠시 맡겨 주셨다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교육을 함으로 크리스쳔으로서의 부모 의식에 변화를 줄 것이다.

C. 교사의 의식 변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어린이들이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 인성과 심성과 영성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사들은 영혼에 대해 두렵고 떨림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

[5] 홍경자, *청소년의 인성교육* (서울: 학지사, 2004), 58.

소중하고 귀하며 교사로서의 직분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고 교사교육을 통해 준비하는 교사가 되게 한다.

(2) 의식 변화를 위한 시행전략

A. 학생

a. 아이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위해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이를 위한 시행으로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순서를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주보를 만들되 모든 예배 순서는 아이들에게 익숙하도록 영어로 하고 다음 주 예배순서 자를 만들어 예배를 준비하게 한다. 다른 면은 성경 암송 구절로 채워 암송의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성경 말씀이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한다. 광고면에 부모를 위한 코너로 그 주의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넣음으로 부모들이 그 주에 아이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알려 줌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한다.

b. 말씀은 주로 시청각 자료인 영상과 파워포인트로 전할 것이며, 특별 절기엔 교회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예수님의 고난이나 섬김을 몸소 체험할 기회들을 접하게 해 줄 것이다.

c. 모든 행사의 초점은 예배 회복과 암송구절과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성경 이야기 대회와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한다.

d. 한국인으로의 정체감을 위해 명절인 설날엔 모두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교회의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이에 답해 세뱃돈을 줌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의 문화를 체험하게 한다.

또한, 예배 후 한글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뿐 아니라 한국어로 하는 설교에 좀 더 친숙하게 한다.

B. 부모

부모의 의식변화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교육을 한다.

a. 부모의 의식 변화를 위한 부모 교육의 내용

i. 인간의 성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습득해야 할 학습으로 Ericson 의 심리 사회학적 발달 이론을 공부하며 이 공부를 통해 자신이 성장 과정에 어떤 부분이 성취되지 않았나를 보게 하여 그 문제를 서로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에 대한 부족함이 자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게 한다. 또한, John B Watson 의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 Baumrind 의 자녀교육 유형에 대해, Belsk 의 부모 인성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공부, 토론하며 자신들을 보게 한다.

ii. 묵상하는 법을 나눔으로 말씀을 스스로 먹는 훈련을 시켜 개인의 영성을 강화해준다.

b. 부모들의 행동 변화를 위한 실행

i. 아이들의 프로그램인 Follow Jesus 를 함께 참여하고 아이들을 위한 아침 준비와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을 끌어낸다.

ii. 부모들이 한국어의 교사를 하게 함으로 교육에 직접 참여시켜 부모와 아이들과의 교육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한다.

C. 교사

a. 교사의 의식변화를 위한 실행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교사들 간의 유대와 영적인 회복을 하게 한다.

b. 자신들이 맡은 아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아이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으로 지도하게 한다.

c. 예배 시작하기 30 분 전 교사 모임을 통해 자신이 가르쳐야 할 공과들을 나누며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을 배우게 한다. 예배 후 잠시 교사 모임을 통해 그날 예배와 분반에 대해 평가를 함으로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해 간다.

(3) 구조의 변화

이 프로젝트가 잘 실행되었을 때 교회의 구조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심어주기 위해 한민족의 문화를 접할 기회를 마련하여 예배 후 한글 공부를 위한 모임이 생기며 이 모임은 되도록 부모들이 봉사하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함께 함으로 교회학교가 베이비씨터의 장소가 아닌 교육의 장인 것을 알게 해 준다.

또한, 부모를 위한 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므로 부모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게 되며 교사들은 아이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리더로 준비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 예배 전, 후 교사들의 모임을 함으로 그 주에 가르치는 공과들을 서로 나누고 배우고 평가를 하며 각반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 연구 발표할 수 있게 된다.

II. 성서 안에서의 갈등

인간은 갈등의 역사라고 할 만큼 갈등의 연속이다.[6] 이 말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에 그 죄성이 삶 속에서 반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남홍은 '교회싸움'에서 갈등의 정의를[7] 이야기 했으며, 또 다른 갈등의 개념은, 갈등이란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간에 결정의 선택에 합일점에 이르지 못하고 곤란을 겪는 것으로 이는 심리적 대립감을 의미한다.[8]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제한 된 목표와 제한 된 환경 속에서는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갈등은 공개적으로 유형적인 성격을 띠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은폐된 성격을 띠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갈등엔 긍정적 기능이 있는데 갈등의 합리적 해결로 사회 발전과 재통합을 이룰 수 있다.[9] 현대는 조직의 창조성, 적응성, 융통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여서 갈등의 순기능적 역할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또는 개인의 도약을

---

[6] 김준수, "기독교인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성경과 신학* 29, (2001): 248.

[7] 조남홍, *교회싸움* (서울: 선교문화사, 1999), 38-39.

[8] John R, Minery, *Conflict Managmment in Urban Planning* (Vermont: Gower, 1985), 105.

[9] 유종해,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2001), 430.

위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10] 그러므로 인간 사회 속에서 갈등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속에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본다.

이러한 갈등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구약성서 속에서 나타난 갈등의 예들과 신약성서 속에서 나타난 갈등의 예들을 보기로 하겠다.

1. 구약에 나타난 갈등

1) 가인과 아벨

성서의 형제 이야기는 화해와 협력보다는 오히려 잔혹하고 참담하다.[11] 부모의 편애로 갈라진 에서와 야곱 이야기라든지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다윗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이야기들은 참혹한 형제 관계를 보여준다.

창세기 4 장에는 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형제의 갈등 또는 불화'의 이야기로 익숙하면서 피붙이 형제끼리의 갈등과 불화의 원형으로 자리 잡았다. 갈등의 결과로 살인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빚었음에도 성경은 갈등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지 않는다. 단지 외형적으로는 제물 관련 사건이 형제 갈등의 도화선일 뿐이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본문에는 명백히 언급되지 않는다. 창세기 4 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10] 권경주외 8 인, *현대행정의 이해* (서울: 대영, 2002), 194.

[11] 노숙현, "인간관계의 기초로서의 형제관계에 대한 성서적 이해," *금구논총* 5 (1997): 246.

이유나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한 이유가 논란의 대상이다.[12] 그만큼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선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가인 이야기를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이중대립 구조를 강화한다.[13] 가인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동생을 쳐 죽인 악의 상징이다. 더구나 악한 인간 가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불만과 분노로 서 있다.[14]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권고의 말씀으로 다가 가셨다.[15] 그러나 가인은 다스리지 못한 욕망과 감정에 휘둘려서 죄를 짓는다(창 4:8). 가인의 분노는 채워지지 못한 욕망 이며, 분노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다. 볼프는 가인 이야기를 '그들'과 '우리' 사이 의 만남의 구조로 본다. 이는 모든 인간이 보여주는 타자를 대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이야기이며, 가인 이야기만큼 배제의 구조와 역동, 힘을 잘 설명한 본문이 없다고 말한다.[16] 가인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살인을 저지르는 가인은 '그들' 인 동시에 '우리' 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12] 최창모, "가인과 아벨 이야기 (창세기 4 장)의 구조와 구조주의적 해석," *신학사상 95* (1996): 139. 장석정, "가인과 아벨 이야기 I (창 4:1-8)본문구성분석," *구약논단 5* (1998): 10.

[13] "Not as Cain, who was of that wicked one, and slew his brother. And wherefore slew he him? Because his own works were evil, and his brother's righteous." (IJohn3:12, KJV.)."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히 11:4, 개혁한글).

[14] 하경택, "가인과 아벨의 제사," Vol. 14 of *창 4:1-16 에 대한 주석적 연구* (서울: 장신대학교, 1998), 26.

[15] 김순식외, *창세기 헤세드 종합자료씨리지* (경기도: 임마누엘출판사, 1986), 125.

[16] MiroslavVolf, *배제와 포용,* 박세혁 역 (서울: IVP, 2012), 142-143.

가인 이야기 행간에는 가인과 아벨의 불균등한 관계가 전제된다. 형제라는 설정은 동등성에 기초한다. '동등성' 의 균형이 깨질 때 갈등이 발생하고 비극이 시작된다.[17] 가인과 아벨은 서열상 불평등하다. 유대 전통으로 보면 장자와 차남의 비중이 다르다. 더구나 장자 가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하와가 고백했다. 두 사람의 이름에서도 불평등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가인의 이름에는 어머니의 기쁨이 새겨지고, '생산하다' '낳다' 라는 의미가 담기고 아벨의 이름에는 '숨', '덧없음', '무가치함', '없음'과 같은 희미한 의미가 새겨진다.[18] 출생부터 가인이 아벨보다 우월하다. 그는 장남으로 아버지 아담의 기업을 이어 받았고 차남인 아벨은 양을 치는 유목민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두 집단의 불균등한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바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존중한 사건이다.

볼프는 가인의 눈에 보잘것없는 아벨이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순간, 중요한 존재였던 자신이 무시 당한 느낌이 들며 시기심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한다.[19] 감정은 개인들의 내적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 속에 그리고 개인과 사회적 상황 간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한다.[20] 여기에서 인간의 갈등은 발생하며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때 관계는 파괴되는 것이다. 이 두 형제간의 갈등의 요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

[17] 최창모, "가인과 아벨 이야기," 144.

[18] 하경택, "가인과 아벨의 제사," 18-19.

[19] MiroslavVolf, *배제와 포용*, 146.

[20] Jack Barbalet, *감정의 거시사회학*. 박형신, 정수남 역 (서울: 일신사, 2007), 121.

않으심으로, 아벨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장남인 가인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서 온 강한 시기심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야곱과 루우벤

베스터만은 야곱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와 비교되는 점을 두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다.[21]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약속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옮겨가는 수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기에 세대들 간의 관계와 상속자를 얻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자신의 세대안에서의 갈등을 이야기 한다.[22] 형 에서와의 갈등을 비롯해 삼촌 라반과의 갈등, 부인들 사이에서 오는 갈등 자식간의 갈등 등 야곱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창세기 29 장에 보면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게 된 경위가 나오는데,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 우물가에서 외삼촌의 작은딸 라헬을 보고 연모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첫사랑을 얻기 위해 외삼촌과 계약을 맺는데(창 29:18)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의 계약을 교활한 방법으로 파괴하면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야곱에게 먼저 주고 다시 7 년의 노동의 대가로 라헬을 주기로 했다(창 29:27). 이렇게 14 년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아내가 라헬이다.

[21] Claus Westermann, *The Promise to the Father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74-78.

[22] Walter Brueggemann, *창세기 현대성서주석,*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319.

그런데 레아는 자녀를 낳는데 야곱이 총애하는 라헬은 자녀가 없다. 그러자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빌하를 자신을 대신해 아이를 낳게 하려고 야곱에게 주자, 이를 본 레아 역시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함으로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얻어진 3 명의 아내와 자신이 총애하는 1 명의 아내를 갖게 된 것이다.[23]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 주시는데(창 29:31)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야곱의 집안에 첫아들이 태어났으며, 그 이름이 '르우벤' 이다. 이름의 뜻은 문자 그대로 하면 '보라 아들이다' (see a son) 뜻으로,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다' (saw)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24] 그러나 레아는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자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처지와 연결해 루우벤 이름의 뜻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다.[25] 이러한 가족사를 가진 루우벤의 어린 시절이 창세기 30 장에 나오는데, 그가 맥추 때에(대략 5 월) 들에 나가서 합환채[26]를

---

[23] 창세기 29, 30 장.

[24] Matthew Henny, *Genesis Vol. II*, 정혁조 역 (서울: 교문사, 1975), 187.

[25] Ibid., 188.

[26] 합환채 Mandrakes 이 식물은, 지중해 연안을 원산지로 한 다년생초본이다. 학명은 Mandragora autumnalis L 이라 한다. 히브리명은 dudaim, 그리스명은 Mandragora 라 하는데, 그 어원의 해설에 따르면 man(사람) + drake(용 : dragon)의 사투리라 한다. 뿌리가 인삼처럼 가닥져서 흡사 사람의 하반신을 연상시키므로 man(사람)이라 했고, 그 약효가 옛날부터 신비한 마술적인 위력이 있다고 믿어져서, drake 를 짝지어 붙였다 한다. 그런데 이 식물은 미약적(媚藥的), 즉 반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영어 성경에는 '사랑의 사과'(Love Apple)라 했다. 그리고 아랍인들은 정욕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믿어서 '악마의 사과'(Devil's Apple)라 했다. 이것은 이 식물에 얽힌 미신적인 설화가 그 원인으로서 모두가 연애와 연관된 이름이 주어져 있다. 일본어 성경에서도 연애가지라 했는데, 중국어 성경에는 '풍가(風茄)로 번역되어 있다. 가지과의 다년초. 영어명 만드레이크(mandrake)라고도 하며, devil's apple 이라는 호칭도 있는데 방추형으로, 갈라진 다육질의 뿌리를 가진다. 잎은 뿌리에서 나서 도란형. 높이 30cm 정도의 줄기가 나며, 통상 한 송이의 꽃을 가진다. 꽃은 종형, 황록색으로 화관길이는 약 3cm. 지중해 연안에 분포하며, 유독하지만 약용식물로서도 유명하다. 만드라고라는 페르시아 주변에서 일찍이 지중해 연안지방에 들어온 것 같다. 『구약성서』의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다고 쓰여 있다. 이는 루우벤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워 하는 애정의 표현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되찾게 해 주고 싶어 하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보이는 대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합환채는 성적 자극의 효과와 여성의 생산 능력을 높여 주는 식물로 알려졌다. 이 합환채로 인하여 레아와 남편을 독차지하던 라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라헬이 그 합환채를 얻는 대가로 아버지 야곱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대여해 주겠다는 것이다(창 30:16). 그는 장남으로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쓸쓸해 하는 감정들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들에 나갔을 때 합환채를 보자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를 생각하여 그 합환채를 드렸는데 그것마저 빼앗는 라헬을 보면서 라헬을 향한 적개심마저 가졌을 것이다. 이 적개심이란 원망, 화, 분노, 폭력, 잔인함이나 그와 유사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충동 같은 것을 포함한다.[27]

분노가 밖으로 나타나면 잔인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분노가 가슴에 잠복하면 우울증과 한으로 자리 잡는다. 가족의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정서적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가족 전체는 그 개인으로 하여금 불안, 침울, 죄의식 등의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한 감정이 건전하게 분출되지 못할 때는 가슴에 분노로 쌓일 수 있으며 그 분노는 언제가 폭발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창세기 30 장 및 아가 7 장에 <합환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듯이, 고대 묘약으로서 알려졌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29161&mobile&categoryId=104 (accessed July 20, 2017).

[27] Leon J. Saul, *아동기 감정양식과 성숙.* 천성문, 이명순, 박순득, 정봉희, 정문선, 김수령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179.

루우벤은 어머니를 위한 합환채가 하룻밤의 거래로 변하는 현실을 보면서 장자로서 어머니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처량하게 지내는 그 모습에 분노가 쌓여갔을 것이다. 그래서 라헬의 몸종이자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할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들의 관계로 인한 아버지의 이러한 편파적인 사랑이 역기능적인 한 가정으로 만들어 갔다.

이것을 뒷받침 한 사건 역시 창세기 37 장에서 39 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간 사건일 것이다. 야곱은 남아있는 아들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요셉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요셉과 함께하기 위하여 음부에 내려가겠다고 했다(창 37:35). 야곱은 마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울면서 다른 아들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평생 라헬만을 사랑함으로 다른 세 아내를 소외시킨 야곱이 라헬이 죽은 후에, 남은 세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로 사랑이 옮겨 간 것이다. 이제 요셉의 거짓 죽음조차도 아버지 사랑을 옮기지 못하고 다른 아들들은 요셉의 잃어버림을 통하여 야곱의 편애를 다시금 확인하여야 했다.

이로 인한 루우벤의 아버지에 대한 갈등은 창세기 35 장 19~22 절 후반에 분노의 표출로 나왔는데 야곱의 사랑을 받던 아내 라헬의 죽음(창 35:19), 뒤에 나오는 사건으로서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자 서모인 빌하와 간통 한 사건을 볼 수 있다. 르우벤의 행동 속에는 단순히 빌하와의 쾌락적인 측면보다는 야곱 집안에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 속에서 돌출된 행동으로 보인다. 자신의 어머니(레아)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에 대하여 반항심과 불만의 갈등이 이러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르우벤이라는 한 인간의 도덕관과 심각한 죄상을 드러낸 야곱 가정의 수치스러운 일이지만[28] 르우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스라엘(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고만 되어있지 그의 감정이나 반응에 대한 언급이 성서에는 일절 없지만(창 35:21-22) 그리스어「칠십인역은 이렇게 덧붙였다.[29] '그리고 그 일은 그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 야곱의 집안은 겉보기에 평화로운 가정으로 보였지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들 간의 갈등으로 내면적으로는 어그러진 역기능의 가정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사건을 두 가지 찾았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의 흉년으로 야곱은 베냐민만 남겨두고 10 자식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게 하려고 보냈다(창 42:2). 그때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어 술수를 쓰는데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한다(창 42:15).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받는 장면이 나온다(창 43 장). 여기에서도 다시 르우벤이 장자로서 먼저 나서서 최선을 다해 야곱을 설득하며 비장한 각오까지 보여 주었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베냐민]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 이다"(창 42:37). 자신의 자식들을 담보로 하겠다는 엄청난 조건이다.

[28] Matthew Henny, *Genesis Vol. II*, 293.

[29] 창 35:21, LXX,톰슨,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그런데도 야곱은 루우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창 42:38). 야곱의 거부 속에는 분명히 아들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 의심이 섞여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0]"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창 42:36). 놀라운 것은 자식보다 더 예쁘다는 손자 둘을 담보로 하는 데도 야곱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야곱과 루우벤 간의 갈등이 너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루우벤의 죄에 대한 저주(창 49:4)라 보는데, 창세기 49 장은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장면(창 49:3~27)과 야곱의 죽음(창 49:29~50:14)을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루우벤이 서모 빌하와의 사건(창 35 장)에서 그 당시 야곱은 침묵했지만, 그가 임종 시에 그의 열두 아들들에게 복을 줄 때 야곱은 르우벤을 향하여 그때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창 49:3~4). 라는 말로 축복을 저주로 전환했다.[31] 여기에서 '더럽혔다'는 단어는 '거룩하다'는 뜻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침상에 올랐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그의 행위의 죄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초등하고-탁월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인데, 르우벤이 얼마나 출중하며 장자로서의 위상이 있었는가가 두 번씩 강조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30] Matthew Henny, *Genesis Vol. II*, 374.

[31] Ibid., 444.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죄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탁월치 못한’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만다. 아버지가 기억하는 르우벤은 첫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32] 일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의 불완전한 편애의 사랑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었고 자식들 간의 갈등을 만들고 부자지간에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3) 아합과 엘리야

열왕기상 16 장부터는 갈등의 관계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왕과 선지자의 갈등, 왕비와 선지자와의 갈등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33]

아합왕의 아버지는 오므리왕이다. 성서는 오므리의 통치를 5, 6 절로 대강 이야기하고 넘겨 버렸지만(왕상 16: 23~28) 그는 분명히 매우 유능한 인물이었다. 앗시리아 사람들은 오므리 왕조가 전복된 뒤에도 오랫동안 북부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 이라 불렀다. 이스라엘의 국력 회복을 위한 오므리의 정책은, 주요한 점에 있어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정책을 본 받았다.[34] 그의 정책은 국내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유다와는 교우적인 관계를 맺고 주변국들과는 힘의 강경책을 쓰는 정치를 시도하였다.

---

[32] www.http://woorich.tistory.com/354 (*회복의 삶을 향하여~!!*) (accessed July 20, 2017).

[33] Matthew Henny, *1Kings*, 남준희 역 (서울: 교문사, 1976), 289-292.

[34] John Bright, *이스라엘의 역사 상권*. 김윤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6), 381.

그의 아들 아합 역시 아버지의 이런 외교 정책을 이어받았다. 아합이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2 년간 통치하면서(왕상 16:28~22:40) 왕권을 굳건히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시돈과 동맹을 맺고 여리고 성을 재건하여 모압의 반역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앞선 왕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35] 그래서 이 아합왕은 바알 숭배자의 표상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아합은 아람을 물리치고 국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돈 엣 바알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다.[36]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신명기 7 장 3~4 에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셨는데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풍속에 빠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한 조치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왕은 엣 바알이라 하는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이는 후에 이교적인 우상숭배와 여호와를 향한 예배 사이에 사투를 지속게 하는 결과를 빚게 하였으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일으키셨으니 이것이 성경적 역사 가운데서 제 2 의 위대한 이적의 시대로 불리게 되었다.[37]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방신 숭배를 위한 전환기를 마련한 기점이 되었다.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두로의 바알 숭배를

---

[35] 박재갑, *분열왕국시대*, 오아시스 성경강해 구약 8 (서울: 도서출판좋은땅, 2016), 51.

[36] Ibid,. 52.

[37] Edward J. Young, *구약총론*, 오병세, 홍반식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4), 211.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 이스라엘 안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높여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궁과 제단을 세웠고 또한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도 박해하였다.[38] 물론 이 아합왕의 배후에는 엣 바알의 딸 이사벨이 있었다."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왕상 21:25). 이 때문에 이사벨은 엘리야와 깊은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39]

엘리야에 대하여 신학자 카일(Keil)은 말하기를 "그의 이스라엘적인 혈통 증거는 이 여인에게 복을 빌어 준 사렙다 땅의 여행과 그 이외의 몇 가지 그의 행동은 주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그때를 미리 알려 주었으며, 그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일이나 하늘로 승천한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영은 세례요한에게서 재현된 셈이다" 라고 하였다.[40]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왕에게 보내셨다. 아합 왕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궁내 대신 오바댜의 인도로 아합왕을 만났을 때,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뜸 가뭄의 탓을 그에게 돌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바로 너냐?" 하는 왕으로서의 위협적인 질문을 했다. 그러나 엘리아는 이에 기죽지 않고 이렇게 대꾸한다. "나라를 괴롭히는 자가 내가

---

[38] Ibid.

[39] Matthew Henny, *1Kings*, 350.

[40] Edward J. Young, *구약총론*, 211.

아니라 왕과 왕의 아비 집안입니다”라고 했다. 여기서부터 아합왕과 엘리야는 갈등의 관계가 시작되었다.[41] 아합은 이 가뭄의 탓이 엘리야가 예언한 후부터 이기에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했을 뿐 이 재앙의 시작은 오므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 하였던 것이다.[42] 이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다.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다. 그곳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확실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시돈의 국경 지역에 있고 바알 숭배지였다. 갈멜산의 대결은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대승리의 결과이지만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깊은 갈등을 겪는 사건으로 두려움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제사장들이 죽자 우상의 정점에 있던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건이었다(왕상 19:1~3). 이는 아합왕과의 갈등과 배후에서 왕을 조정하고 있던[43] 더 강력한 세력인 아내 이세벨과의 갈등이 더해진 셈이다. 이 갈등의 무게는 엘리야로 하여금 인간의 유약함을 드러나게 하였다. 이 유약함은 엘리야에게 믿음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갖게 했다.[44]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길 기도했다

[41] Matthew Henny, *1Kings*, 332.

[42] Ibid. 332-334.

[43] Ibid. 350.

[44] Richard Nelson, *열왕기상하, 현대성서주석*, 김회권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209.

(왕상 19:4).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게 하신 뒤 불수레를 보내심으로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엘리야의 사역을 마감시키셨다(왕하 2:8~14).

위의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아합과 엘리야와의 갈등 관계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인간에게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는 좋은 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시각의 관점은 자라온 환경과 교육의 배경이 작용하기에 이 갈등의 영향력은 삶의 의욕조차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신약에 나타난 갈등

William C. Hill 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을 제외 한 신약 성경 총 7,546 절 중 1,906 절이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갈등 사건을 기술 하고 있다 라고했다.[45] 1,063 절은 이러한 갈등에 대한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약 40%가 인간과 인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갈등은 성경의 핵심에 계신 예수그리스도도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갈등을 겪으셔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교회의 시작과 발전도 이 갈등의 연속 속에서 발전되어 갔음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들을 통해 볼 수 있다.

[45] William C. Hill, *The Theme of interpersonal conflict Traced through the New Testament*. Wheaton, IL: (Wheaton College, 1978).

교회가 형성되기 전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사역 하셨던 현장 속에서 어떠한 갈등에 부딪히셨는지를 살펴보겠다.

1) 예수 그리스도와 구시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33 년을 사시면서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셨음을 4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겪으신 갈등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바리 세파들은 거의 전 생활을 통하여 오직 선악에 대한 지식만을 중요시하는 왜곡 된 인간성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인간성을 가진 자들과의 관계에서 진지함과 중대성이 상실된 상황이 되었다. 냉정하고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 눈을 가진 인간들은 인생의 투쟁 마당에서 타인의 결단에 대하여 그를 시험하는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46] 이러한 그들이,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 속에 몰아넣고 올무를 씌우기 위해 시험하는 자세로 질문을 하였다.

그들이 질문한 것들은 인간의 삶 속에서 부딪히며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그 당시 납세문제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이라든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 등, 그 당시엔 이러한 계율들이 파괴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 당시 바리 세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46] Dietrich Bonhoeffer, *기독교 윤리*, 손규태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74), 24.

것밖에 할 수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으셨다.[47]

그들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하나님과 일치, 즉 근원으로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분열 극복에서 주어졌기에 바리 세파와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평면에서 말을 주고받았다. 따라서 양자 간의 말은 매우 이상하게도 서로 엇갈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대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바리 세파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들렸던 것이다.[48] 후대의 갈등 관계 학자들이[49]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갈등은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참과 위선에 대한 갈등이었으며 그 갈등의 해결 방법은 억압, 회피, 지지, 설득, 허용과 같은 갈등 관리 기술을 사용하셨다” 라고 했다.[50]

예수 그리스도의 갈등 관리 방법에 가장 좋은 예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것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건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 던지기 전에 그들 자신을 반성해 보라고 도전을 주셨다. 그 말씀에 그녀를 끌고 온 누구도 조그만 돌멩이 하나 던지지 못했다. 모두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떠났다(요 8:1~11).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라는 인간의 허상에 양심이라는 참을 제시하여 그 갈등을 해소하셨다.

---

[47] Ibid., 25.

[48] Ibid.

[49] William R.Miller, & Delaney. Judeo, *Human nature, motivation, and chang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5), HD (Eds.) Christian perspectives on psychology.

[50] William R. Miller 는 내적 갈등 타입을 접근- 접근형타입, 회피-회피형 갈등타입, 접근 회피형 갈등타입 그리고 이중접근 접근형 갈등타입으로 나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 년 제자들과 함께 사시는 동안 본질적 갈등의 경우는 더 많이 나타났다.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으냐는 다툼에서 보듯이(마 9:33, 34) 자연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한 세력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갈등의 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붓던 내용에서 그녀를 향한 가룟 유다의 꾸짖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요 12:8).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중적인 갈등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간의 갈등도 엿볼 수 있지만, 제자들끼리의 갈등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요 12:6).

이러한 모든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그의 행위의 단순성에서 성립된다. 다수의 가능성, 논쟁, 양자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의 것만이 그 행위를 위해 존재했다. 이 하나의 선택이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51]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철저히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음식이라 하셨다(요 4:34).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셨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한다. 이런 목적 있는 사역을

---

[51] Dietrich Bonhoeffer, *기독교 윤리*, 26.

하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반은 그 당시 권세를 가진 자들과의 갈등 관계가 심화 될 수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참 목적은 지상 왕국 건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건설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이 우주의 절대 유일의 진리에 입각한 것이기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성취 자이시자 새로운 신약의 주체이심을 깨닫지 못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겐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경해석 오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아니면 그 진리를 왜곡 호도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갈등은 표면화되었던 것이다(마 16:11, 12). 그들과의 갈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으로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태초부터 정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셨다.

변화는 갈등을 통해서 온다. 모든 움직임과 변화에는 보통 그 속에 갈등이 연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현실의 변화를 위하여 갈등을 사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니라”(눅 12:51). 하신 말씀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2) 초대교회 속에서의 갈등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탄생 되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동안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52] 초대교회의 갈등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사도들과 성도들 간의 갈등이다. 이는 구제에 있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과의[53] 갈등이 형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매일의 음식 할당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행 6:1~6). 당시 예루살렘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노년기가 되면 거룩한 도시에 묻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54]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은 매주 14 끼에 해당하는 구제를 받았는데 이는 매일 두 끼씩 다음 금요일이 올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부들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다.[55] 그 당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교회는 과부들에 대하여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쳤다(딤전 5:9~10).

---

[52] Leslie B Flynn, *Great Church Fights* (Wheaton: Victor Books, 1976), 13-14.

[53] 헬라파 유대인이란 과거 남북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앗시리아에 각각 멸망당할 때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 혹은 자진해서 화를 피해 해외로 이주한 유대인들도 있었다.이른바 '디아스포라(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겨났다.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기원전 3 세기부터 지중해 지역을 장악한 헬라 문화권 속에 살면서, 그들의 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다. 그런데 당시에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팔레스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살기 시작했다.이들은 혈통상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모국어로 썼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끝까지 조국에 남아서 살던 유대인의 후손들로서, 히브리어(아람어)를 계속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한데 섞여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회 안팎으로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의 숫자가헬라파 유대인의 숫자보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았다.

[54]사호행, "한국교회내의 갈등원인 분석과 그 갈등 극복을 위한 방안"(총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교회성장학 전공, 2015), 23, Quote in E. Haenchen, *Apostelgechichte, 사도행전,* 이선희 박경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402-403.

[55] Ibid., W. Baclay, *The Acts of the Apos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5), 50.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미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이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멸시한 까닭이라 보여진다.[56] 이 경멸은 매일의 구제금품을 나누어 주는데서 나타나 갈등의 요소로 자리매김 하였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갈등이 발생 했을 때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신실한 일곱 사람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이 일을 맡김으로 사도들과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였다(행 6:1~7).

그 외에도 초대교회는 많은 갈등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동안 지켜 오던 유대인들의 할례나 율법 문제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제시함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새로 믿은 신자들과 갈등 관계로 들어갔다(행 15 장). 이 갈등은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기에[57]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오랫동안 회의를 함으로 결국 은혜의 복음 쪽으로 가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심하게 부합되는 우상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지 말게 하는 것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문제를 해소해 주었다.

사도행전 15 장 후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상황이 나오는데, 마가를 그들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서로의 의견이 강하게 부딪힌 사건이 나온다. 일 중심적으로 사역하던 바울과 관계 중심적으로 사역하던 바나바는 마가가 첫 선교여행에서 자신들을 버리고 갔던 그

---

[56] William Barclay, *The Acts of the Apostles*, 정혁조 역 (서울: 교문사, 1972), 79.

[57] Ibid., 155-158.

일에 대해 바울은 용서가 되지 않았고, 관계 중심적으로 일하던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의견의 합일을 볼 수 없어(행 15:36~38) 그동안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결과를 빚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르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하게 된 결과를(행 15:39~40) 보면서 일의 스타일, 또는 성품에 따라 갈등의 관계는 빚어지며 이는 쉽게 해소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른 지도자를 위한 캠페인으로 양분되어 갈라질 위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진행된 것이라던지(고전 1:10~12), 교회의 넉넉한 이들이 사랑의 애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음식을 나누는 것을 거부했던 일(고전 11:18~23), 로마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에 관련된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혹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두 파로 갈라진 일(롬 14:1~6),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유명한 두 여신도 유오디와 신디게 사이의 불일치 등은 교회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켰으므로 바울이 편지로 호소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빌 4: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 속에서 나타난 초대교회는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고 그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계속된 성장이 있었음을[58]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갈등이 파괴만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의 동기도 될 수 있는 순응적인 기능이 있었기에 이를 잘 활용 한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교회를 잘 존속시켰

[58] Martin William Mittelstadt, *The Spirit and Suffering in Luke-Ats* (London: T. & T. Clark, 2004), 95.

으며 좀 더 나은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그러므로 갈등의 원인은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 관습의 차이, 성격의 차이, 종교의 차이 계층 간의 차이가 클수록 갈등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갈등이란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갈등의 주제가 된 죄

갈등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죄인으로 태어난(롬 3:23) 인간들 본성에 담겨 있는 죄의 뿌리가 인간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장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개념을 살펴보되 율법 안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율법 밖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그리고 은혜 시대에 와서 마음의 부패로 인한 바울의 갈등과 현대 신학자들이 본 죄의 개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들이 말한 죄의 속성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갈등의 요인들로 작용하는지 보면서 이러한 죄들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죄의 개념

우리말 국어사전에서 죄란 “도덕이나 종교 법률 등에 어긋나는 행위” 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 사전에서는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곧 하나님 없는 자의 부패한 본성과 그 영향력,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말한다’ 즉 과녁에서 벗어난 화살이라고 쓰여있다.[59] 죄의 개념에 있어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죄의 개념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자연인

[59] I.V.P 성경사전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2), 493.

이 말하는 죄는 단지 법률이나 종교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죄는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성경은 죄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한다. 때론 사람에게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간주 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였사오니'(시 51:4)라고 하였다.

1) 율법과 죄

구약에서 죄의 개념으로 쓴 *Hatat* (하타트)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목표물을 놓쳐 빗나가는 것을 의미한다.[60] 그러나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기원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목표물을 놓친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뜻을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14 장 49 절은 죄는 정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구약에서 말하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 예로써 다윗의 죄 고백을 들 수 있는데, 다윗은 신하 우리아가 전장에 출정 해 있는 동안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므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였다. 그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가서 자도록 배려했지만,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거절로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요압 장군을 통해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세워 전사하도록 명령을 내리므로 결국 우리아는 암몬 족속의 성(城)인 랍바성 전투에서 죽게 된다.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과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삼하 11:27).

---

[60] 나용화, *핵심조직신학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127.

사건이 있은 지 약 7 개월이 지난 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에게 베푼 은혜를 지적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지적하신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두 번째, 사울의 추격에서 막아주었고, 세 번째, 여러 아내를 얻게 했고, 네 번째, 유다와 이스라엘을 맡겼다고 했다. 만일 그것이 부족 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했다. 이것은 그 당시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남편이 있는 또 다른 여인을 취했고 그 간음죄를 은폐시키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방 군대의 칼에 죽게 함으로 살인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음을 지적 하셨다(삼하 12:9, 10).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께 범하는 큰 죄였다. 인간의 편에선 왕의 권세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취할 수 있었기에 죄라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를 범했다고 다윗은 그의 회개에서(시 51:4) 고백하였다. 이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다르다. 다윗은 왕의 권력을 사용하여 율법을 편법 화 시키고 무시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율법 안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를 책망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무게와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무게는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서 제 7 계명에 속하는 간음 하지 말라 하신 간음죄에 대한 개념에서도 인간의 편에서 판단하는 시각과 하나님의 편에서 판단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간음죄는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처벌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간음을 처벌하는 간통죄는 20 세기에 들어서 유럽국가 들을 시작으로 점차 폐지되었고, 간음죄를 폐지한 대부분의 일부일처제 국가에서는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중혼죄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50 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 주에서 간음을 비범죄화하였고 간음 처벌 규정을 두는 일부에서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사문화되었다.[61]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간음죄를 십계명 가운데 제 7 계명을 범하는 엄중한 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하여(마 5:28) 비록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를 간음 한 자라 하셨다.

두 가지 더 예를 든다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젖먹이들과 동물까지도 다 전멸하라 하신 것(신 7:1~11)을 볼 때 인간의 편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잔인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구별되어야 하기에 가나안 땅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혼합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신 것이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무고한 살인죄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단호하게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징벌 하셨다. 인간의 윤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며느리인 다말과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간음 사건이다. 인간의 편에선 범해서는 안 되는 간음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연결해 유다

---

[61] *Wikipedia,The Free Encyclopedia*, s.v."간음죄" last modified on August 10, 2017, https://ko.wikipedia.org/wiki/%EA%B0%84%ED%86%B5 (accessed August 15, 2017).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셨다(마 1:3). 이처럼 인간의 처지에서 보면 한없이 잔인하고 몰인정한 것들을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 명령하셨고 인간은 순종해야 했음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러하기에 사람이 기준으로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본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에서 죄라는 단어가 포함된 레하테 에트 하바이트(*Rehate et Habait*)의 의미 속에는 회개하다 정결케 하다, 화해하다, 용서하다, 란 뜻이 같이 있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는 그 죄로 용서에까지 이르라는 것이다. 즉 죄들을 짓지 말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한계를 알아 거기서 벗어 나라는 의미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죄의 개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모든 행위가 죄였다.

2) 은혜와 죄

사람들은 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보통 주관적인 죄책감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경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죄를 설명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43:7 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간주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다르다. 성경은 이 죄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왔다고 말하면서 죄의 기원을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라고 말한다(롬 5:12).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은 사망이라는 형벌을 갖게 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추방이며 그로 인해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부패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62]

즉 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약에서 말한 죄의 개념과 아주 다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 성에 위배 된 것이 죄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였다. 물론 신약에서도 죄를 이야기할 때 이 둘을 제외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신약 에서 강조하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했다(롬 14:23).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절망적인 용어로 묘사한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이고(롬 5:10) 생물학적, 영적 죽음의 지배를 받고(롬 5:12-14) 사탄 및 다른 적대적 영적 존재들의 영향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며(엡 2:2)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다(엡 2:3)고 한다. 이는 죽음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후기 바울의 가르침(롬 5:12)에 따른 것이다.[63]

---

[62] James D.G. Dunn, *Romans 1-8*, *로마서 1-8*, 김철, 채천석 역 (서울: 도서출판사 솔로몬, 2003), 655.

[63] Geerhardus Vos, *Bibi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 *성경신학*,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62.

바울은 유전적인 죄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 바울은 로마서 3 장 9 절을 필두로 로마서 5~7 장에 본격적으로 온 인류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인격화 된 죄에 대해 묘사한다.[64] 바울의 인격화 된 죄의 세력은 종말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멸절당할 영적 세력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세상에 존재하며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존재라는 설명이 가능하다.[65]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크게 두 종류의 죄를 섞어서 사용한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로, 예를 들어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여 짓는 죄, 즉 우상숭배, 성적 타락 등 모든 부패 된 행위를 말하며(롬 3:25; 5:13), 또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죄가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인간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지배하므로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존재를 이야기 하였다(롬 3:9; 5:12~8:3).[66]

바울이 인식하는 죄의 힘은 본래 생명을 약속했던 율법을 장악했으며 그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 율법이 약속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물인 죽음을 낳았기에 인간은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롬 3:20),

[64]로마서 5-7 장의 죄는 권능을 가진 우주적,영적 세력으로 악의 권세들 가운데 하나이며 인간을 지배하여 왕 노릇하고(롬 6:12, 14), 인간을 속임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롬 7:11).악의 세력, 즉 인격화된 죄의 세력을 바울은 유대 묵시문헌에서 말하는 악의 세력과 결부시켜 생각하였다.

[65] Scott M. Lewis, *최근 신약 묵시사상 연구 동향*, 김병모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63-66.

[66] 바울은 인류에 악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세력을 표현할 때 주로 죄의 단수형ἁμαρτι ́α을 사용한다. 단수형으로서의 죄는 로마서에서만 48 번 등장하는데 특히 롬 5:12-8:3 에 집중 되어있다 (41 회). 박수암,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죄사상: 로마서 6 장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제 6 권* (1990): 204.

율법은 더 이상 인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며 인간을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의도적으로 정죄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은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범죄를 조장하므로 우리에게 율법은 죄의 작동 요인이요,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요구 하지만 인간은 죄와 육신으로 인해 선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롬 7:14~23).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롬 8:3).[67] 바울은 또한 "죄의 세력은 내 안에 작용하여 나를 죄 가운데로 몰아갔지만 결국 그 행동을 한 장본인은 인간인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였다.

바울은 죄의 세력이 인간 안에 존재하는 악한 성향을 충동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죄의 세력은 인간 내면의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선한 성향을 죽이며 인간 내면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로마서 7 장 18~19 절에서 같은 사상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 진술한다. "나는 여전히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며 다시 한번 로마서 7 장 15 절에서 처음 언급했던 내면에 존재하는 갈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로마서 7 장 20 절에서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준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67] Sanders, E.P. *Paul, Law Jewich People, 바울, 유대교, 율법*. 김진영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6), 116-120.

죄니라.” 이것은 로마서 7 장 16~17 절의 반복이며, 갈등을 일으키는 진범인 죄의 세력을 밝히기 위한 강조이다.

이 로마서 7 장에서는 인간 내면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 악한 행실 사이의 투쟁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주하는 죄가 악한 것을 행하도록 이끌어간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바울은 나를 사로잡은 죄의 세력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사악함 원인을 밝혀낸다.[68]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죄의 권세를 이길 힘에 대해 율법이 아닌 성령을 제시한다(롬 8:2).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 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령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이상 바울에게 토라(율법)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성향을 제어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완전히 해결하신다.[69] 라고 하며 죄의 해결 열쇠를 성령님께 의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울이 말하는 죄의 실체는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악한 행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속에서 다스리는 원치 않는 죄의 힘에 의해 죄를 짓는다고

---

[68] Thomas R.Schreiner, *The law its fulfillment A Pauline Theology of law*, *바울과 율법*, 배용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7), 457.

[69]유대교에서도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내면의 악한 성향을 제거해 주실거라고 생각했다. 랍비들은 겔 36:26 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두 성향과 관련시켰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종말이 오지 않았고 악한 성향의 문제는 근본적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김철홍, “1 세기 유대교 인간론의 악한성향과 바울의 인간론” *신학연구* (2014): 773.

보았으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70] 이것은 아담 이후 원죄의 죄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며 이 죄의 뿌리에 대한 깨달음과 해결은 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인간은 내재하는 죄로 인해 교만, 편견, 허영, 증오, 시기 질투, 분노, 보복, 원한, 비통, 적개심, 세상적 애착, 자기애, 욕망, 여기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과 고집이 나오고, 여기서 허영심, 탐욕, 정욕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분노, 증오, 복수, 선망, 질투의 씨가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여기서 모든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망이 나온다.[71] 이러한 모든 죄의 근원들은 인간의 삶 속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며 관계성의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제공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 원죄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부에 의한 강력한 힘인 죄의 세력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많은 심리학자는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정신 병리학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72]

또 한 사람이 본 죄의 개념을 잠깐 살펴보려 한다. 그는 기독교 영성 사와 인류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3~14 세기 사상가요 신비가요, 사제요, 수도원장이요, 설교가요, 행정가요, 시인이요, 여성주의자였던 마이스터 에크 하르트

---

[70] 리재학, *DTP 교리강해연구 IV 인간편* (서울: 선린, 1990), 325.

[71] John Wesley Sermon, *The Way to the Kingdom* II. 2.

[72] Mark, R. Mc Minn, 채규만 공저,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된 기독교 상담* (서울: 두란노, 2004), 150.

(Meister Eckhart)가 보는 죄의 개념에 대한 것은 바울과 종교개혁자 들이 말한 것과 다르다. 그는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73] 이 의미는 상당히 깊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위 인간이 말하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하나님 안에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 사람들은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원수들마저 친구로 변화시키면서 그들의 죄의 삶으로부터 거룩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잘 알며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해 한 죄는 단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 주장엔 한계가 있다. 이는 하나님께 깨어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통용되지 않는다. 이 죄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2. 죄의 구체적 해석

1) 감각적 본성에 억눌림 당하는 것

종교개혁 후 정치적으로는 100 년 전쟁, 영국 시민 전쟁,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과 같은 수많은 갈등과 투쟁이 일어났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가 출현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산업혁명이 발생했으며, 사회 계급이 태동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능력을

---

[73] Blakney, Raymond, *마이스터 에크 하르트,* 이민재 역 (서울: 다산글방, 1994), 79.

무한히 신뢰하고 강조하는 계몽주의가 태동하였으며 이 현대 정신은 18 세기 유럽의 지성계 대부분을 지배했다. 이것은 과학적이며, 낙관적인 세계관을 형성했으며, 과학적 경험주의와 역사적 상대주의를 낳았다.

이 현대적 세계관은 기독교 신앙에 중대한 도전이 되었다. 이는 성서의 역사적 확실성과 그 가치를 비롯한 전통적인 신학의 모든 전제를 문제시하고 성서의 해석을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 지극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자유신학 운동이 전개되었다. 슐라이에르마허(FriedrichDaniel Ernst Schleiermacher), 리츨(Albrecht Ritschl), 트뢸치(Ernst Troeltsch), 하르낙(Adolf von Harnack)이 대표적인 신학자이다.

19 세기 초의 신학적 과제는 기독교 신앙의 활력을 회복하고 창조적인 미래를 위한 신학의 토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슐라이에르마허였다. 그는 현대의 정황에서 신학의 가능성을 문제 삼고, 그에 근거하여 기독교의 전통적인 진리를 재해석함으로써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슐라이어마허는 특별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종교적 체험에 관한 기록으로 보았다.[74]

슐라이에르마허는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감정이라고 말하면서, 신학의 과제는 기독교인의

[74] Tony Lane, *The Lion Concise Book of Christian Thought*, *기독교 인물 사상사전*, 박도웅, 양정호 역 (서울: 홍성사, 2007), 333.

생활에서 발견되는 종교적 감정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75] 슐라이에르마허에게 있어 감정이란 객관적 이해의 양식, 정서적 지각의 연쇄, 영적인 것의 각성이었던 것이다.[76] 슐라이에르마허는 인간이 우주를 직관하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종교적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에 대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우주를 직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인간의 유한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슐라이에르마허가 말하는 두 번째 종교적 감정은 형제에 대한 사랑, 감사, 연민, 통회와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아픔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슐라이에르마허가 선택한 신학 방법론은 특별 계시가 아닌, 절대 의존감정, 즉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인식하고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이 감정의 강도에 따라 종교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슐라이에르마허는 말한다.[77]즉 모든 감정이 종교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자기의식의 객관적 측면인 직관과 주관적 측면인 감정이 결합하여 절대 의존 감정을 형성할 때, 비로소 인간은 종교를 탐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예수님을 원형적인 인간, 즉 두 번째 아담으로 인식하고 있다.[78] 슐라이에르마허가 말하는

---

[75] 목창균, *현대신학논쟁* (서울: 두란노, 1998), 46-47.

[76] Hugh Ross Mackintosh, *Types of Modern Theology: Schleiermacher to Barth*, *현대신학의 선구자들:슐라이에르마허부터 바르트까지,*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53.

[77]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Über die Religion : Reden an die Gebildeten unt ihren Verächtern.* *종교론*, 최신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69.

[78]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The Christian Faith, Trans. H.R. Mackintosh and J.S. Stewart* (Edinbutgh: T. & T. Clark, 1928), 367.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지닌 구세주가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 의존 감정을 가장 풍부하게 느낀 유일한 인간으로 묘사한다.

또한, 슐라이에르마허는 죄를 절대 의존 감정이 인간의 감각적 본성에 억눌림 당하는 것[79]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죄란, 하나님의 법칙을 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이며, 이는 인간의 육과 영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죄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 근거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인의 종교적인 의식 즉 내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죄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했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전통 신학과는 다른 죄관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나 불 충성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행위, 심지어 사탄에 속박당하는 것도 죄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슐라이에르마허의 신앙과 경건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는 감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였기에 인간의 구속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 의존 감정의 회복으로 보았는데 절대 의존 감정을 가장 완벽하고 충만하게 느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신의 그 절대 의존 감정을 나누어 주셔서 그와 같이 절대 의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을 구속으로 보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능력을 나눠 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는 죄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부터 일어나는 인간의 행위 곧 하나님과 관계의 혼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죄의

---

[79] Ibid.

원인을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서 찾은 것이 슐라이에르마허 죄관의 특징이다. 이는 슐라이에르마허 뿐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원죄 개념을 부인하고 새로운 죄의 개념을 부각함으로 인간 스스로 죄를 극복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사에 끼친 공헌도 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세계 내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신앙과 이성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 하여 종교적 관용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들의 낙관적인 인간관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었으며, 기독교의 윤리적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여 신앙을 관념적인 것이 아닌 사회 속에서의 윤리적인 면을 부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성의 능력을 신뢰하여 과학의 업적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접근 수단으로 과학적 탐구 방법을 수용했다고 하는 데 있다.

2) 교만, 태만, 기만 그리고 불안

자유주의 신학은 제 1 차 세계 대전과 제 2 차 세계 대전을 통해 인간의 야만성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가져왔던 낙관적인 인간론과 진보적 세계관에 모순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편승해 자유주의 신학에 반기를 들고, 칼 바르트(Karl Barth)를 중심으로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 루돌프 불트만(Rudolf Bultmann), 등의 학자들이 정통주의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며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강조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증법적 형식을 사용했기에 법증법적 신학

이라 불리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의 토대로 하였기에 신정통주의 신학 (NEO-Orthodoxy Theology)라 부르기도 하였다.[80]

이들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기독론을 부활시켜, 그로 인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복을 꾀했다.[81] 그리고 신정통주의 신학과 같은 시기에 실존주의 철학(Existentialism)의 영향을 받아, 실존주의자적 시각에서 기독교를 재 해석 하려는 죄렌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 루돌프 불트만(Rudolf Bultmann)과 같은 신학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82]

신 정통주의 창시자는 잘 알려진 칼 바르트이다. 그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예견했던 것 같이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한 것' 이라는 그의 신념을 천명하였다.

그의 신관을 보면 화해의 주체는 인간에 의한 믿음의 결심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며 객관적 화해론에서 화해가 이루어 지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 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순간이다. 인류의 죄를 심판하셔야 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심판을 받으심으로 만인의 죄를 해결하는 순간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만인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증거이자 상징이며

---

[80] Tony Lane, *Christian Thought*, *복음주의 입장에서 본 기독교 사상사,* 김응국 역 (서울: 나침반, 1987), 412.

[81] 정성민, *폴 틸리히와 칼 바르트의 대화* (인천: 도서출판 바울, 2004), 9-10.

[82] Tony Lane, *복음주의 입장에서 본 기독교 사상사,* 436.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에 대한 객관적 승리의 표징이다. 만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루신 화해와 인류의 죄에 대한 사면과 악에 대한 승리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객관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화해 하심을 인간이 눈을 감고 거부할 수 있을지라도 결코 철회할 수 없다.[83] 인간의 믿는 행위는 하나님의 객관적 화해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이다.[84] 인간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화해와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무의 힘의 지배에서 해방되며 어마어마한 은총에 대한 감격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객관적 화해로 인하여 만인이 하나님 생명의 값이 지급 된 존재로서 존귀함을 입으며 만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사랑할 것을 요청 받는다.[85] 이 지점이 바르트 윤리학의 시작점이다. 반면 하나님의 객관적 화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곳에서는 죄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르트 죄론의 시작점이다. 칼 바르트는 죄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정의했다.[86] 인간의 죄 인식은 인간 자신의 어떠한 흐리멍덩한 빛에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과 만남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떠나서는 도대체 죄도 인식될 수가 없다고 바르트는 말하고 있다.[87] 그러므로 죄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 즉 교만이라는 것이다.

---

[83] Eberhard Busch, *칼 바르트(Karl Barth)*. 손성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4), 643-649.

[84] Geoffrey W. Bromiley,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Karl Barth*.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신옥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261.

[85] 윤성범, *Karl Barth* (서울: 기독교서회, 1968), 168.

[86] Karl Barth, *교회교의학* Ⅳ/2, 최종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520.

[87] 윤성범, *Karl Barth*, 169.

따라서 바르트는 죄는 인간 자신으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바르트는 인간의 죄의 형태를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3 가지 모습인 교만(Hochmut), 태만(Trägheit), 기만(Lüge)으로 분류했다. 먼저, 교만은 인간이 만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죄이다.[88]
즉 창세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객관적 화해를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라는 것이다.

두 번째 태만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된 존귀함을 거부함으로 부터 기인한다.[89] 이는 만인의 죄를 대속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리심으로 존귀하게 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이란 죄의 문제를 해결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존귀함을 받은 존재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존귀 하게 하신 은총을 거부하는 인간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태만의 죄를 범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기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 하신 객관적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다.[90] 바르트는 객관적 화해의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모든 것이 기만의 죄라고 말한다.

이러한 바르트의 죄론은 근본적이요 전체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원죄 그리고 이 원죄 사상에서 유래 된 유전 죄와 같은

---

[88]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7), 245-246.

[89] Karl Barth, *교회교의학*Ⅳ/2, 551-560.

[90]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249-250.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죄를 아담에게 전가 할 수 없도록 바르트는 엄밀히 규정하여 놓는다. '원' (Ur) 이라는 말을 시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유전 죄라는 관념을 무시해 버린 것이다.[91] 그의 죄 개념은 우주적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죄의 기원을 아담의 타락에서 추적하지 않고 혼돈과 무에서 찾았다. 이것은 죄의,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의미를 경시할 뿐만 아니라 성서적인 근거도 희박한 것이다.

반면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유한하고 의존적이고 나약하지만, 유한성과 자유를 함께 소유한 피조물이다. 이 자유와 유한성 때문에 인간은 자신에 대해 염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아직도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불안인데 니버는 이 불안을 죄의 근원으로 간주했다.[92] 불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죄의 내적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불안은 죄와 신앙 모두를 가능하게 하므로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는데 이것이 신앙이라면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다. 니버에게 죄는 종교적인 차원과 도덕적인 차원을 가지게 한다.[93]

---

[91] 윤성범, *Karl Barth*, 169.

[92] Reinhold Niebuhr, *인간의 본성과 운명*. 이상설, 윤영복, 양우식 역 (서울: 문교부, 1962), 1:247.

[93] Ibid., 1:239.

니버는 원죄가 타락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불가피한 사실이며 이 불가피성은 인간의 본능적 영성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 설명한다.[94]

이처럼 신정통주의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그 당시 유행하던 실존주의 사상 바탕 위에서 죄의 개념을 이해하였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원죄의 개념을 실존적인 차원으로 설명함으로 죄 앞에서의 하나님의 절대성을 비껴가게 한 것을 볼 수 있다.

3) 자아를 향한 이기적 전환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은 유럽의 정치 신학과 몰트만의 소망의 신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1960 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전하여 북미의 흑인 신학과 여성 신학 그리고 제삼 세계 신학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현대 신학 사조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신학자들은 서구의 신학은 라틴아메리카의 구체적 상황에 적합지 않고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장애가 된다고 보고 독자적인 신학 방법론을 취하게 되었다.

서구의 전통신학이 교리로부터 출발한다면 해방신학은 실천으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실천에 우위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혁명적 엘리트들과 일부 기독교인들은 제삼 세계의 사회정의, 가난, 인권 등의 정치 경제적 문제를 복음에 어떻게 상관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해방신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95] 해방신학자들은 전통적 신학 내용의 허구성을 밝혀내면서 신학 하는

---

[94] Reinhold Niebuhr, *기독교 윤리학*, 노진준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8), 88.

[95] 전호진, "Contextualization 의 문제점과 필요성" *한국교회와 선교* (1984): 113-133.

방법은 달라도 신학의 내용은 고유한 것이라는 구미 신학자들에 반해서 신학하는 방법이 바른 것이어야 신학의 내용도 바른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스타보 구띠에레즈(Gustavo Gutiérrez)는 "하나님 신앙은 그의 존재를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행동하는 데서 성립된다 “[96] 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신학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해방신학이 신학적 작업의 발판 혹은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이론보다 실천에 우선권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군도(J. L.Segundo) 역시 "신학의 해방적 성격을 유지시켜 주는 유일한 것은 그것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의 방법론이다"[97] 라고 말한다.

인간이 처한 각양의 압제적 현실을 벗어나려는 해방 운동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해방신학은 인간의 죄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 이해의 핵심이 죄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신학자들은 인간의 태만, 즉 인간의 자기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화 시켰다. 해방신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구띠 에레츠(Gustavo Gutierrez)는 죄악이란 자아를 향한 이기적 전환이며, 범죄란 이웃사랑 하기를 거부하고 종국에는 주님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98] 그에게 있어서의 죄는 압제적 구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민족들과 인종들 사이에 또한 사회계층 사이의 지배와 노예제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구미 신학자들의 개별적이고 내면적인 죄

---

[96] Gustavo Gutierrez & R. Shaull, *Liberation and Change* (Atlanta: John Knox Press, 1977), 89.

[97] Juan Luis Segundo, *The Liberation of Theology* (New York: Orbis Books, 1976), 40.

[98] 나용하, *해방신학비판*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3), 77.

해석을 뛰어넘어 죄악의 전체성, 집단성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죄를 개인적이고 인간 내면에 해당하는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죄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실재로서 하나님과 동료, 그리고 이웃들과의 친교의 단절, 그로 말미암은 인격적인 균열이라고 보고 있다.[99] 따라서 해방 신학자들의 구원은 악한 사회 구조의 개선과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구원에 집중한다.

전통적인 영성은 개인주의화 되었다.[100] 그리고 고유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들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구띠 에레즈는 전통적인 영성 개념에서 개인주의라는 특성을 제거하는 대신 영성의 연대성을 추가시켰다.[101] 그러나 이들의 죄의 개념은 한계가 있다. 성서적 의미에서 죄가 존재론적 의미의 죄와 현상론적 의미의 죄인 두 가지로 분류되어[102]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존재론적 의미의 죄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해방 신학의 약점이다. 즉 해방 신학은 인간화라는 목표 아래 해방과 구원을 동일시하고 죄를 사회적 규정의 면에서 강조했다. 이들은 죄악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평등 주의가 이

---

[99] Gustavo Gutie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역사와 정치와 구원,* 성염 역 (서울: 분도출판사, 2000), 94-104, 318-37.

[100] 구스타보 구띠에레즈, “우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련다” *한국신학연구소* (1986): 34-37.

[101] 테오 순더마이어(Theo Sundermeier)는 연대를 콘비벤츠(Konvivenze:생명) 개념으로 정리한다. 그는 콘비벤츠 개념은 종교간의 만남과 문화간의 만남의 형태를 종합하기 위한것으로 규명하였다. 구조적으로 ‘배우고, 돕고, 잔치하는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자기 신념의 교류와 전달 뿐 아니라 상호도움을 통해 인간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해방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인간에게 허용하는 삶을 축하는하는 잔치에 초청함으로써만 가능할 수 있다. 테오 순더마이어,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채수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49-358,

[102] 고범서, *해방신학논쟁* (서울: 범화사, 1984), 20.

세상에서 성취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 주리라는 것을 믿는다. 이 사실은 해방 신학자들이 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신학자들이 해석한 죄의 개념들인 교만, 태만, 기만과 불안 그리고 자아를 향한 이기적 전환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삶 속에서의 갈등은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함께 지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이다.

3. 죄의 해결

이러한 갈등 요인의 주범이 되는 죄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리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죄하는 길과 화목의 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해 주셨다. 이곳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희생과 고통이 성 삼위 하나님께는 있었다. 하나님의 고통은 독생자를 속제 제물로 주어야 하는 것이요, 성자 하나님께는 저주받은 십자가(갈 3:13)에서 희생 제물로 처참히 죽으셔야 하는 것이요(고후 5:21 갈 1:4, 엡 1:7), 성령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에 성부, 성자 하나님의 고통이 함께 느껴지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불변적이신 하나님의 내적 실유(being)안에는 변화가 없었고 초래 된 변화는 하나님과 그의

속죄적 사랑의 대상들과의 관계에서의 변화이었다.[103] 이러한 고통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죄 해결의 방법은 3 가지의 결과가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1) 속죄의 은혜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기 위해 제사법을 알려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동물 중 흠 없는 것으로 인간의 죄를 전가하여 죽게 하여 온전한 번제를 통한 제사법으로(레 1:1-10,16:24)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제를 명하셨다. 이 구약의 희생제도는 인간의 속죄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였다.
이는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완벽한 구속사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다.

구약학자들이 통념적으로 말하는 바는 구약에서 사용된 가장 중요한 원어가 보통 "속(贖)하다"(to make atonement)로 번역되는 동사 카파르(*Kaphar*)라는 사실이다. 구약에 100 회 이상 사용된 이 동사는 "덮는다" 라는 주요한 개념을 전한다. 그 파생어인 코페르(*Kopher*)라는 명사는 "덮개" 혹은 은폐물 또는 보호물을 뜻하며 영어 성경에서는 총액(sum of money)" "가격(price, 출 21:30)" "속전(ransom, 출 30:12), 그리고 "배상금(satesfaction, 민 35:31-32) 등으로 사용 되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인간의 죄를 "덮는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레위기 16 장이 그 현저한 실 예가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 덮는다는 행위는 덮는 물건과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덮는데 필요한 희생 동물의 '피'에 대하여

[10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제 4 권 기독론*,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8), 187.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덮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성취 되었다(벧전 1:19).

속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헬라어의 관련어는 힐라스모스(*Hillasmos*)란 동사로서 몸값을 받고 해방한다(벧전 1:18)는 뜻의 낱말이다. 그 현저한 개념은 사로잡힌 상태에서 "되사다" 이므로 그 파생 명사인 루트로우시스(*Rutrousis*)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유래된 '구속' 혹은 '해방'의 전체 사업을 암시한다(눅 1:68, 2:38). 이 구속의 개념은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두 분 새로운 담당자가 필요했다. 한 분은 인간성을 초월한 구속자, 즉 대가를 치르신 루트로테스(*Rutrotes*)였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한 것이니라"(벧전 1:18-19).

속죄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삼위가 모두 관계하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던 예수그리스도 외에 다른 한 분은 인간의 능력 이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롬 8:16). 그러므로 속죄의 동인은 어느 한 위에게만 독점적으로 발견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속죄는 하나님의 도모와 섭리에 의하여 계획 된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공의(출 34:7, 민 14:18, 나 1:3, 시 5:4~6, 롬 1:18, 3:25~26)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한다(롬 3:24~25). 하나님의 공의는 피의 희생을 통한 속죄를 요구 하시고, 속죄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거룩 성에 따라온다(민 23:19, 롬 3:4).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더불어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불순종 하면 형벌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다(창 2:17, 겔 18:4, 롬 6:23).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의 용서를 마련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는 동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다(갈 1:4, 골 1:19~20).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의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랑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수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지는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계신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10:4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사 53:5-6).”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고전 15:3)".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이니라(고후 5:21).”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롬 5:8).”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벧전 3:18).”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참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이 명백하다(출 12 장, 고전 5:7). 예수그리스도는 진정한 속건제물로서(사 53:10)

구약 시대의 속건제물의 완결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취하셨다 (레 6:24~30: 히 10:1~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리적 죽음 이셨으며, 하나님 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속죄를 성취 하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회유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다른 것은 구약의 제사는 제사드리는 자와 제물이 완전히 구분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양자가 일치한다. 이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제사장이며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임을 보여 주신 것이다(히 9:13-14). 그리고 장사 되셨다가 3 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고전 15:4)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격파하였다.

속죄에 있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속죄물을 통해 속죄한다는 방법은 같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속죄는 불 완전하여서 해 마다 이 속건제를 지내야 했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단 한번의 제사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씻어 주셨다는 것이다(요 5:24).

2) 화목의 은혜

계시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화목을 얻었도다"(롬 5:11).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재판적 진노의 백성들(엡 2:14)이었던 자들과 화목 하셨다(엡 2:3~7, 마 18:11, 롬 5:10, 고후 5:21, 갈 1:4, 엡 1:7). 이렇게 화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를 통해 정당한 재판적

입장이 주어졌는데, 이곳엔 사죄, 양자, 영원한 기업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104] 또한 중생과 성화를 통한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신비적 연합[105] 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옛사람의 점진적인 회저(mortification)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된 새 사람을 점진적으로 옷 입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 1:21, 21).

화목을 영원히 보존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건 제사를 드리신 예수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계속적인 대속의 중보를 하고 계신다. 조직 신학자 루이스벌콥은 그리스도는 지상적인 대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천적인 (heavenly) 대 제사장이다[106] (히 8:4, 20)라고 말한다.

파라클레토스 (*paravklhto*) 라는 용어는 보혜사라는 말로 예수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헬라어로써 두 가지의 용법으로 쓰인다. 하나는 곁에(para)부름 받은 자의 수동 명사형으로써 보혜사(성령)으로 사용 되었고(요 14:16, 26, 15:26, 26:7)또 다른 하나는 능동의 의미가 있는 예수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지칭하여 대언자로서(요일 2:1)사용되었다. 대언자는 도움을 위해 불림을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의 소송을 변호하며 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자를

---

[104] Louis Berkhof, *제 4 권 기독론*, 189.

[105] Ibid.

[106] Ibid., 202.

의미한다.[107] 예수그리스도는 지금도 고소자인 사탄에 대항하여 성부에게 신자들의 소송을 변호하시지만(롬 8:33, 34), 성령은 세상을 대항하여 신자들의 소송을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변호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 주신다[108] (요 14:26, 15:26, 16:14).

예수그리스도의 이 대언적 사역은 이 땅에서의 속죄적 제사와 분리될 수 없는 그의 제사적 사역의 계속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완성 하는 일이다.[109]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예수그리스도의 대언의 사역은 이 땅에서의 대속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히 9:24), 예수그리스도의 이 대언적 사역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 당신의 완성된 사역을 지적해 주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봉사도 성화시키시고 계신다.[110] 이처럼 예수그리스도의 대언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성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

---

[107] Ibid., 204.

[108] Ibid.

[109] Ibid., 205.

[110] Ibid., 206.

3) 성령의 내주 하시는 은혜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자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주 하셨다(요 14:16~20). 로마서 8 장 9~10 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요한일서 4 장 13~15 "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내주 하심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심이요, 이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게 하심이기에(요 16:8, 행 1:8, 롬 8:29~30, 고전 3:16,17, 12:3, 고후 1:22,) 하나님의 죄에 대한 구속 사역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측량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다.

IV. 문화속에서의 갈등

오늘날 “문명”으로 번역되는 civilization 이라는 단어는 18 세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111] 19 세기에 civilization 의 개념을 구체화 한 학자는 프랑스의 Guizot 였다. Guizot 는 기존 개념 즉, 도시적 문화와 예절에 덧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civilization 에 포함했다. Guizot 가 새로 덧붙인 부분은 바로 르네상스적 관념인 “진보와 발전”이라 할 수 있다.[112]

이처럼 어원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명 개념은 도시 공동체에서 누릴수 있는 철학, 미술, 예술과 문화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룬 구조적 산물이며 문화의 현상학적 표현 양태이며 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후 예절과 예의와 같은 개념을 포섭했으며, 19 세기에는 그 개념에 진보와 발전의 개념이 덧붙여졌다.

1. 문화의 변화

1) 21 세기에 보이는 현상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량 생산으로 소비 체제가 사회화로 구축되어 있어 사람들은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도시 인구의 증가와 생활 양식이 옛날과는

[111] 노대환, “문명,” *한국개념사총서 6 권* (도서출판 소화, 2010): 23-24.

[112] Ibid., 39.

다르게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문화와 교육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과학 기술은 생산 활동에 응용되고 그 결과로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이 인류에게 주어졌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던 상황들을 21 세기 현실에서 현 사회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이것은 풍요뿐 아니라 또 다른 변화들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데, 첫째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엘니뇨(스페인어: El Niño) 및 라니냐(스페인어: La Niña)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113]를 맞이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인간성의 파괴이다.

21 세기의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기로 멀리 떨어진 세계를 조정할 수 있기에 정작 창밖의 진짜 세상을 이해하지는 못한다.[114] 20 년 전 만 해도 이해할 수 없던 단어, '사이버 왕따'라는 것이 아이들 세계에선 존재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 깊이 침투한 음란 사이트와 인터넷에서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

[113] 엘니뇨가 발생할 때에는 해류가 따뜻해져서 증발량이 많아지며, 이로 인해 태평양 동부 쪽에는 강수량이 증가한다.엘니뇨는 북아메리카에 비해 남아메리카에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엘니뇨는 따뜻하고 매우 습한 여름(12 월-2 월)에 남아메리카 북쪽의 페루나 에콰도르와 같은 해안선을 따라 찾아오게 되며, 엘니뇨가 강할 경우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하게 된다. 2 월-4 월 동안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 남부 브라질 및 북부 아르헨티나에는 봄이나 초여름 동안 평상시에 비해 습한 기후를 겪게 된다. 중부 칠레는 다량의 비가 내리는 온난한 겨울이 찾아오게 되고, 페루-볼리비아의 고원지대(Altiplano)는 때로는 비정상적인 강설현상도 겪는다. 아마존 강 유역,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에는 평상시보다 건조하고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엘니뇨로 인해 보다 건조한 상태가 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북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는 산불 빈도가 증가한다. 퀸즐랜드 주, 빅토리아 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태즈메이니아 주 등지에서도 역시 6 월-8 월 사이에 평상보다 건조한 상황을 겪는다.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s.v. "엘리뇨," last modified on September 1, 2017, https://ko.wikipedia.org/wiki/%EC%97%98%EB%8B%88%EB%87%A8 (accessed September 25, 2017).

[114] Johann Christoph Arnold, *어린이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원마루 역 (서울: 포이에마, 2014), 65.

성 학대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은 자라 나는 아이들의 도덕성 파괴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폭력성마저도 키워주었다.

또한, 과학의 발달은 인공 지능의 개발을 가지고 옴으로 인간을 닮은 로버트들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고 이로인해 실업화는 다중화되고 새로운 사회 제도가 등장함으로 우리의 미풍양속이던 경로사상이라든지 이웃 간의 친밀함 등이 사라질 뿐 아니라 성의 바른 역할 등이 사라져 Unisex[115] 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예전엔 음지에 있던 동성애가 국가 인권 보호법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기도 한다.[116] 사회의 성격이 변화되어감에 따라 생활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모든 것에 속도와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다. 누구나 손안에서 자유롭게 검색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온 세계의 정보를 1 분 안에 우리의 시야에서 볼 수 있기에 21 세기는 속도의 전쟁이라 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새로 나오는 기기의 특징은 우리가 검색하는 것이 몇 초 안에 보이는가에 촉각들이 맞추어져 있고 이는 정보화시대를 이루어 정보가 퍼지는 속도는 채 1 분도 안 걸리기에 인터넷 정보의 영향력이 커졌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확대되고 조직의 체계화는 거대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족 제도의 변화와 가족 기능의 분화 및 역할 바뀜이 자연스럽게

[115] 유니섹스(Unisex)는 남녀 겸용.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등 여러 면에서 남성·여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을 이르는 말. 원래는 1956 년 미국의 성(性) 과학자 솔로킹의 저서 「미국의 성혁명」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후 사회 문화 현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패션계까지 파급되어 다양한 캐주얼 아이템과 브랜드에 활용되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로 인한 남녀 동등의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초월한 이성의 요소를 공유하는 새로운 현상이다.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s.v.“Unisex,” last modified on October 27, 2014,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8B%88%EC%84%B9%EC%8A%A4, (accessed September 25, 2017).

[116]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 2조3항과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http://terms.naver.com/alikeMeaning.nhn?query=E00239408(Accessed August 2, 2017).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도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인격적, 정서적 유대가 단절됨은 물론, 하나하나의 개인들이 고립되어 가는데, 이는 가족 간에도 발생 되는 현상이어서 이에 따르는 갈등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한 학자들이 있다.

2) 사회 학자들이 바라본 현대사회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David Riesman)은 그의 저서 고독한 군중 (The Lonely Crowd)에서 이렇게 말했다.

> 산업사회 속의 현대인은 자기 주위를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 이유는 그들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다. 즉 겉으로 드러난 사교성과 다른 내면적인 고정감과의 충돌로 번민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고독하다.[117]

사회는 개인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 영향이 개인의 모든 행위를 결정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은 이 영향과 동시에 사적인 개성을 창조 해 나간다. 또한, 이러한 창조는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이는 새로운 문화인 포스트 모더니즘 (Post-modernism)[118]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

[117] David Riesman, *고독한 군중*, 류근일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11), 15.

[118]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일반적으로 모더니즘 후의(라틴어 post: 뒤, 후)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상황을 일컫는다. 모던니즘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의 총칭이다. 2 차 세계대전 및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민권운동과 구조주의 이후 일어난 해체현상의 영향을 받았다. 키워드로는 데리다가 주장한 해체(deconstruction, 탈구축)인데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 탈이성적 사고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으로 1960 년대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데리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이 문화는 사회 여러 계층에 영향을 끼쳤기에 포스트모더니즘 시대(Post-modernism)이란 단어가 생성되게 되었다. 이 단어의 뜻이 의미하듯 현대 문화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모호성과 불연속, 임의성, 반역, 곡해, 무작위, 해체, 변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는 세계의 분열함을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적 세계관에서는 절대성이란 없으며 삶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특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 속에 유연성과 포용성이 보이기에 인간들 사이의 갈등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현대 사회는 규범과 가치가 실종되어 공공장소에서 총기 사건과 폭행 사건 아동학대의 건수가 높아질 뿐 아니라 교사들이 어린 제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뿐인가? 가족 간의 갈등 수위는, 엄격하고 권위적이던 옛날보다도 더 심하기에 가족 간에 빚어지는 갈등의 문제들은 사회적인 심각한 이슈가 되어 세분된 학문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포스터 모더니즘은 종교에도 영향을 끼쳐 종교 다원화 시대를 만들어 절대 진리라는 개념을 희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신학까지 태동하게 되었다. 고르돈 헬머(T.J Gordon Olaf Helme)는 2000 년의 세계에 대하여 이렇게 예견하였다. 세계의 인구는 61 억까지 육박 할 것이고,

---

보드리야르 등이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용어 자체가 역사학적 구분에서의 근현대에 스쳐간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자, 지식인, 역사가 사이에서 그 정의를 두고 극한 논쟁이 일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포스트모던적 생각이 철학, 예술, 비판 이론, 문학, 건축, 디자인, 마케팅/비즈니스, 역사해석,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는 포스트모더니즘과는 구분되는 용어로 사용되며, 포스트모더니즘이 발생한 시기의 사회·문화의 접변 현상만을 가리킨다.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s.v."postmodernism," last modified on September 1, 2017. 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C%8A%A4%ED%8A%B8%EB%AA%A8%EB%8D%94%EB%8B%88%EC%A6%98 (accessed September 27, 2017).

합성 단백질의 제작은 새로운 식량 자원을 형성할 것이며, 통제된 고온에서 시행될 원자핵 융합 반응력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무한대로 마련해 줄 것이며, 새로운 광물질이 바다로부터 추출될 것이며 새로운 생명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자동 조작이 수동적 로봇의 서비스로부터 IQ 높은 로버트에 이르기까지 진보할 것이며,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만능 언어가 자동화된 통신을 통해서 발전될 것이고, 상업 탄도의 수송이 제도화될 것이며, 군사 목적을 위한 기후 조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다.[119]

이원설도 이렇게 말한다. 과학 기술은 모든 것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과학 기술은 모든 국가를 과소비가 덕목이 되는 풍요로운 사회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특히 테크노믹스는 광 화이버와 레이져 광선, 그리고 디지털 통신기술이 합쳐져 광 통신시스템을 만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영역을 열어나갈 것이다. 두 종류 이상의 혼합물로 이뤄지는 신소재도 많이 나타날 것인바 다가올 수소 에너지 시대의 총애로 지목되는 수소합금, 형상기억합금, 세라믹스 종이 등이 이미 활용 단계에 있다[120] 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견들은 이루어진 것들도 많고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본다면 고르돈 헬머의 예견이나 이원설의 에견은 분명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이며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되어 갈등은 줄고 행복지수가 옛날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갈등은 예전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고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 간의 갈등도 심화하여 있는 현상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

[119] Thomas E, Jones, *Options for the Futur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37), 50-51.

[120] 이원설, 문영식, *Visionary Leadership for the 21st Century*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16.

물질과 환경이 편리하다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학자들의 예견은 현시대를 만들어 가고 이러한 과학의 발달로 인간에게 주는 풍요와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따른 문제들은 인간의 삶 속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케 했는데 풍요함 속에 가난함을 만들어 냉정함과 이기심과 자기애가 고도로 발달하게 함으로 사회생활 속에서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시대 속에서 문화는 무엇이며 문화의 범주에서 받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보겠다.

2. 문화와 문명의 기초

1) 문화를 이루고 있는 두 정신사조

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정신세계를 크게 분류해 보면 일원론적 사고와 이원론적 사고라 말할 수 있겠다. 일원론적 사고란 우주 안의 모든 삼라만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원리로써 설명하는 사상이다. 존재와 같은 개념에 단일성을 적용하는 시각이다.[121] 이순종과 김종균은 일원론 사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하였는데, 일원론의 역사는 기원전 6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인간과 자연, 물질까지의 동일성을 강조하며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121] 일원론(一元論, 영어: monism)은 존재와 같은 개념에 단일성(그리스어: μόνος)을 적용하는 시각이다. 소재 일원론(substance monism)은 일련의 존재하는 존재하는 것들은 단일한 실체나 물질로 설명할 수 있다는 철학적 시각이다. 다른 정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의 그것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원천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신플라톤주의에서 모든 것은 일자로부터 파생된다. 이는 종종 우선 일원론(priority monism) 으로 불리며, 오직 일자만이 존재적으로 기본이 되거나 다른 모든 것에 앞선다는 시각이다.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s.v.“ monism,” last modified on Octber 10, 2017,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C%9B%90%EB%A1%A0 (accessed Octber, 10, 2017).

한 유기체적 자연관을 근본으로 한 사상이기에 변증법적 발전보다 음양(陰陽)이 조화를 이루는 순환으로의 변화를 중시하고, 경쟁과 차별화의 가치보다는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기에 이 사상은 미래 사회의 가치적 흐름과 일맥상통 하고 있다.[122] 이 사상은 근대 심리철학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관념론적, 현상론적 철학에서 말하는 오직 정신만이 실제 한다고 하는 주장을 뒤 받침 하는 이론이 되었고, 이에 반해 중립적 일원론에서는 하나의 실체만이 존재하며 정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 모두 그 실체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23]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정신세계를 강조한 일원론에서 유물론적 일원론은 물질적 세계가 우선하며, 모든 의식은 물질적 세계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한다. 라는 유물론 사상을 이론적으로 반박해 주질 못하였다.

반면 이원론의 사고를 보면 이는 기원전 6 세기 페르시아의 자라투스트라(Zarathustra)[124]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데카르트와 칸트에 이르기까지 2,500 년 이상 서구 사회의 중심 철학으로 자리 잡아 왔다. 논리와 합리주의를 이상으로 삼으며, 이분법적 사고 하에 정확성과 명확성을

---

[122] 이순종,김종균, "일원론적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2)," *디자인학연구*, Vol.46, No2 (2002): 16-17.

[123] Ibid.

[124]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로 본명은 스피타마자라투스트라(SpitamaZarzthustra)이며, 조로아스터'는 자라투스트라의 그리스식 발음이다.그의 출생 연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BC 660 년 경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학자에 따라서는 BC 1,500 년 경,혹은 BC 6,000 년 경으로 보기도 한다.그의 출생지는 학자들이 추측과 자료에 따라 두 곳 정도로 예상되는데,한 곳은 아프카니스탄이며,한 곳은 지금의 이란 동부 국경의 옥수스강 유역이다.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으며, 후대의 사람들이 전승하는 것으로 추축하고 있다.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이다.[125] 이원론에서 흔히 등장하는 상호 간에 '독립' 하는 두 개의 근본 원리들로는 빛과 어둠(light and darkness), 선과 악(good and evil), 신과 물질 우주(God and material cosmos), 영과 물질(spirit and matter), 의식과 물질(consciousness and matter), 영혼과 육체(soul and body), 영성과 물질성(spiritual and material) 등이 있다. 이원론의 기본적인 구성 형태는 이러하다. 존재하는 세계를 양분하여, 첫째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로 보며 이는 신과 신앙, 종교적 활동, 정신, 영혼, 천국 등 보이지 않는 것들의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의 세계로 구성한다.

둘째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인데. 학문, 물질, 정치, 경제활동, 육체, 일상적인 생활 등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개념의 세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조로아스터교[126]의 교리에 의하면 어떤 한 가지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와 상반되는 별개의 것의 대립을 필연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원론적 사상이다.

---

[125] 이원론(二元論, 영어: dualism)은 세계나 사상(事象)을 두 개의 상호간에 '독립'하는 근본 원리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세계나 인간을 설명할 경우에 쓰인다.
조로아스터교 등의 종교에도 있지만 철학에서는 데카르트가 대표자이다. 데카르트는 물심(物心, mind and body) 이원론을 주장하여, 정신(mind 또는 soul)과 물질(body, 신체)은 전혀 이질(異質)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원론을 철저히 구명한다면 물심(物心)이 분열해 버리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물심이 실체의 표리(表裏)라 하여 일원론을 주장했다. 또한 다원론도 이원론의 곤란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생겨났다.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s.v.“ dualism,” last modified on August 30, 2017,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9B%90%EB%A1%A0 (accessed Octber 10, 2017).

[126] 예언자 조로아스터(Zoroaster)의 가르침에 종교적,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유일신 아후라 마즈다(AhuraMazda)를 믿는 고대 페르시아 종교이다.이원론적 일신교(一神敎)로,고대 인도-이란 또는 인도-게르만의 종교적 공유재산에 근원을 둔 신들이나 제령(諸靈)을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 아래 통괄하고,우주를 선과 악의 두 원리로 설명하였다.세상은 선과 악이 싸우는 투쟁의 현장이며,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의지를 활용하여 이 둘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이때 인간은 선을 선택하여 완전함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선택의 결과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2) 문화와 문명의 개념

이러한 사상들 속에서 리쳐드 니버(H. Richard Niebuhr)는 문화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문화란 인간이 자연적인 것 위에 억지로 뒤집어씌운 '인공적인, 제 이의 환경' 이다. 이는 언어, 관습, 이념, 신념, 전통, 사회조직, 전해 받은 공예품, 기술적 진전 그리고 가치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야말로 문화는 세상 모든 것이어서, 국가나 정치, 교회,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포함한다.

문화가 이렇게 과거 인간들의 노력 결정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을 받는 사람도 자기들로서의 노력과 성취 없이는 결코 차지할 수 없는 것이 문화인데, 즉 인간의 마음과 손이 만든 것이 문화이며 어느 공장 어느 때에 인간이 고안하고 힘써서 만든 그 무엇을 우리에게 준 것이 문화라는 것이다.[127]

이에 반해 문화 주의자들에게 있어서의 문화 개념은 훨씬 협소하게 적용된다. 이때 문화는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문화 중에서도 발달 된 영역-흔히 문명이라고 지칭되는 영역을 말하게 된다. 그것은 문화생활 안에 자리 잡은 인간 성취의 절정이며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받고 또 물려주는 사회적 유산이다.[128] 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하버드 대학의 사무엘 헌팅톤(Samuel Huntington)은 문명의 정의를 이렇게 말한다. 문화적 동질성이 문명이다. 즉 문명이란 인간들의 동질성에 대한 가장 폭넓은 수준이며 한 문명 안에 몇 개의 국가가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하위

---

[127]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윤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40-41.

[128] Ibid.

문명을 포함할 수도 있다.[129] 라고 하며 문화의 동질성으로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또 다른 학자 말리노브스키(Malinowski)는 문화란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바와 과학적으로 관찰 한 바에 의하면, 문화의 본질적인 사실은 인간들을 항구적 그룹들로 조직화한 것이다[130] 라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문화의 역할은 그 사회 속에서 정신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화에는 그 사회와 국가를 지켜내는 문화원형이 있다. 문화원형은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적인 부분에는 학문, 예술, 종교나 한(限), 풍류(風流)와 같은 정서가 해당하며, 물질적인 부분에는 전해져 오는 모든 물질적 요소들이 해당한다.

문화원형은 과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여 바람직한 미래의 문화 발전을 모색하고 문화 산업의 효용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131] 풍부한 역사, 전통문화와 삶을 집대성한 창작의 보고(寶庫)로서의 문화원형은 보편성과 원형을 뜻하는 것이며 고유성과 정체성이라는 실체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의 형식으로서의 원형은 보편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문명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산물이라는 문화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

[129] Samuel Huntington, "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 72, .no. 3 (Summer 1993): 38-40.

[130] Malinowski, "A Scientific Theory of Culture and Other Essays" (1944): 43.

[131] 윤찬종, "한국문화원형,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육성 방안에 대한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결국, 원형이라는 의미 체계 속에는 공동체의 물질적, 정신적 산물인 문화가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보편성, 고유성, 정체성이라는 각각의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이고 상대적으로 결합하여 원형의 의미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132] 즉 문화 원형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이 총체적으로 형성될 때, 그 기반을 이루는 인간 내면의 원초적 관념이나 이미지를 의미하기에 각 지역이나 국가에 적합한 행동과 생활 양식에서 비롯한 문화적 양상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여 저마다 민족 고유의 특수한 색채를 띠게 된다. 즉 문화원형이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한 집단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정체성이 갖는 고유성을 의미한다. 이는 폭넓은 문화의 개념과는 조금 차별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적 문화를 이해하는 일은 전통문화와 현대의 대중문화를 관통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과정이 되며 나라마다 지닌 고유성의 문화 발전은 이러한 문화의 원형 위에 입혀진 유산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문화엔 다양성이 있고 독특성이 있지만 문화의 통일성도 읽힐 수 있는 것이다.

3. 문화의 영향력

1) 계층 간의 갈등

문화를 이룩하며 사는 인간은 사회 안에서의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문화생활을 영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계급과 계층이 만들어지고 이는 갈등의 요소로 또 다른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에서 오는 문제의식은

[132] 김만석, *컨버전스 시대 전통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화 전략* (서울: 북코리아, 2010), 13.

바로 인간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간의 행위가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때 주관과 객관, 구조적 필연성과 개인의 행위 같은 대립 쌍들은 왜곡된 이율 배반들(faussesantinomies)로서 늘 이중 구조를 가지면서 갈등을 유발한다.

Ruth Benedict 에 의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모든 문화의 특징은 이원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인간이 구하는 문화의 가치는 단 하나가 아니다. 사회는 그 다수한 가능성을 실현하려고 시도한다. 그 하나하나가 고도로 복잡한 것이며 각기 많은 목표와 교체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133] 라고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은 필수 불 가결함을 암시해 주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겪어야 하는 갈등은 서로 간의 관심, 주장, 동기, 태도, 욕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일어나는 대립 상태로, 상호 공존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친 사회적, 반사회적인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인 것이다

인간이 속한 사회 구조를 사회계급과 계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계급' 이라는 단어는 사회를, 서로 갈등하는 계급체계로 보면서 사회 갈등의 문제를 제기한 맑스로부터 출발하는 반면, '계층'은 사회를, 유형화되고 되풀이되는

[133] Ruth Benedict, "Patterns of Culture," Chap. II; "Malinowsk, A Scientific Theory" etc., Chap, X, XI (1934).

과정에 의해 균형이 유지되고 통합되는 체계로 보는 기능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았을 때 계층의식은 사회계층의 위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 하거나 특정 계층 지위에 주관적인 일체감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회계층의식은 생활 세계의 다양한 사회적 존재 조건에 의해 영향받는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는 각 개인의 삶의 기회,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가족의 구체적 특성도 달리 나타나며, 사회의 권력, 재산, 사회적 가치 또는 심리적 만족이 사회구성원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될 때 계층 간의 갈등은 심화한다. 또한, 사회구조 속에서 정치나 종교, 이념이나 사상, 성별이나 연령, 학벌의 수준은 계층 간의 갈등에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

경제체제 개혁이 점차 심화 됨에 따라 사회자원의 다원화 구조가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는데, 경제체제의 전환과정 중 사회구성원들이 소속된 단위의 성격과 경제 체제에 적응하는 개개인의 능력차이로 수입과 부의 축적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전과는 달리 개개인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빈부 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 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134]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층민이다. 옛날에는 농민들이 그 핵심을 이루었겠지만,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는 노동자와 빈농이 그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발달로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135]

---

[134] 김경희, “한국정치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제 22 집 제 1 호* (2013).

[135]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서울: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1981), 45.

이러한 빈부격차에서 오는 계층 간의 갈등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이 되며 이러한 대물림은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성서의 정치 경제학'의 저자 울리히 듀크로(Ulrich Duchrow)는 전 세계적으로 몇 사람의 손에 부를 집중시키고 노동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며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민주적 권리들을 위축시키는 것을 말하면서 빈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자유기업, 자유경쟁 및 시장의 이 점에서 벗어나 구조화된 제도 속에서 억제되고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36]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계층 간의 갈등이 있다. 부레너(Bronfenbrenner)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아버지의 고유한 권위가 어머니에게로 더 부과되어 어머니의 경우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에 아버지의 일부 역할이 가중되었다고 한다. 또 부모가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다르게 자녀를 다룬다고 하는데, 즉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더 엄하다고 한다. 그러나 상류 계층으로 갈수록 자녀 양육 및 지도 방법의 차이는 적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가정에서 사회화의 성공 여부는 아버지의 교육 역할과 관계가 깊다. 일반적으로 하류 계층에서 아버지를 통한 자녀의 사회화 성공 정도는 대단히 미약하다. 이는 하류 계층의 어머니들이 비교적 자녀 교육에 깊이 관여하므로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약화 된 데에서 기인한다. 아버지는 자녀의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에 수동적이며 관심이 적고 늘 불안해한다.[137]

---

[136] Ulrich Duchrow, *자본주의 세계경제대안, 성서의 정치경제학,* 손규태 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 10.

[137] 노은호 외, *교육과 삶* (서울: 동문사, 1998), 135-136.

이는 현대 문화 현상이 빚은 또 다른 계층 간의 갈등인 것이다.

이외에도 계층 간의 갈등을 빚는 원인으로는 전통적인 지역감정, 권력배분,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편차로 인해 집단 의식화, 탈 개성화를 촉진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다.

2) 불확실성의 21 세기

위에서 본 연구자는 문화의 광범위한 개념을 서술하면서 이 문화 안에 있는 사회라는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삶이 사회와 정치와 종교 등이 서로 맞물려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부르트 하르트(Jakob Burkhardt)는 문화를 종교와 국가에서 구별하였다. 그의 정의대로 한다면 문화란 것은 종교와 국가와는 다르게 비권위주의적(non authoritarian)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물질생활의 향상 또는 도덕적 생활의 한 표현으로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총칭이라고 하였다.[138] 그러나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문화 속에서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는 없으며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과 문화에서 생긴다는 것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정할 수 없다. 그리고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구별도 부르하르크가 생각한 것 같이 확연하지는 못할 뿐 아니라 문화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것은 극히 자의적이며 또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139]

---

[138]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39.

[139] Ibid.

이에 사회학자 베버((Marks Weber)는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종합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 실재론을 주장하며 그것을 설명하려 한 뒤르켐(David Émile Durkheim)[140]이 우회 하려고 했던 딜레마인 개인들의 행위에 수반 되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사회학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과제로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뒤르켐의 주된 관심이 사회 구조의 통합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에 있고, 변화해 가는 사회 구조와 생산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계급 간의 갈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지만 베버의 주된 관심은 행위자가 특정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상호 지향하는 가운데 자신의 행위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회 변동과 종교의 관계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141] 즉 베버는 뒤르겜의 사회 실재론과는 거리를 두었다.

---

[140]다비드 에밀 뒤르켐(David Émile Durkheim, IPA: [dyʁˈkɛm], 1858 년 4 월 15 일 ~ 1917 년 11 월 15 일, 학계나 가문에서 Durkheim 을 뒤르카임이라 발음함)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며 사회학과 인류학이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사회학 연보는 사회학이 학계에서 사회과학의 분과로 확립되는 데 일조했다. 뒤르켐은 일생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 범죄, 종교, 자살, 사회주의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사회학 연구서를 출간했다. 초기 연대주의와 길드사회주의를 제창한 사람이기도 하다. 1897 년 뒤르켐은 자살론을 발표하였고, 1898 년에는 사회학 연보를 설립하여 사회학 이론을 정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데 심오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원래 뒤르켐은 종교적/인종적 단일성이 깨진 근대 사회가 어떻게 통합과 응집성을 유지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근대 사회의 사회 생활을 연구하기 위해 뒤르켐은 사회 현상에 거의 처음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허버트 스펜서와 마찬가지로 뒤르켐은 사회의 여러 분야들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기능하는지 밝혀서 그 성격과 존재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를 기능주의 사회학의 선구자로 보기도 한다. 뒤르켐은 사회는 각 부분의 합 이상의 존재라고 주장했다. 당대의 페르디난트 퇴니스나 막스 베버 같은 학자들과 달리 그는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요소(방법론적 개인주의)보다는 사회적 사실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 용어는 각 개인의 행동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 그 자체로 존재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사회적 사실은 각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초월하는 더 크고 객관적인 실체이며, 이것은 가령 특정 기후나 생태 환경에 적응하는 어떤 사회의 적응 양태처럼 다른 사회적 사실들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s.v.“ David Émile Durkheim,” last modified on September 10, 2017, https://ko.wikipedia.org/wiki/%EC%97%90%EB%B0%80_%EB%92%A4%EB%A5%B4%EC%BC%90 (accessed Octber 20, 2017).

[141] Max. Weber,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slicher und sozialpolitisher Erkenntnis,” in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 *Tübingen: J. C. B. Mohr, 1922* (1968, 1973): 56.

전체로부터 출발하여 개별 행위를 분석하면 개념의 실체화라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뒤르켐이 <자살론>에서 자살의 원인을 아노미 상태[142] 에 두었는데, 여기서 아노미라는 개념을 너무 절대시한 나머지 자살의 원인을 아노미라는 모호한 개념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버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심리로 설명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가 주목 한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사회 속의 각 개인이 상호 작용하고 서로 기대하는 어떤 의미 체계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의미 체계가 각 개인의 행위 동기가 된다는 것이고, 사회학은 그러한 행위 동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버는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영역과 비종교 영역 사이의 관계성 및 상호 작용에 관한 것으로 보면서, 그의 초기 저작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143]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가 도덕과 무관한 개인적 이득 추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의 일에 대한

---

[142] 아노미(Anomie)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 삶의 가치와 목적의식을 잃고, 심한 무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지며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거대도시에서 범죄나 비행, 매춘이나 부랑, 신경증이나 자살, 유기(遺棄)나 이혼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은 거대도시가 계속해서 해체하고 변동하여 여러 가지 가치기준의 대립을 가져오게 되고 안정된 질서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대도시에 있어서의 사회관계로부터의 소외와 지역으로부터의 소외, 나아가서는 거기에 반항하는 지역적 저속문화의 자극 등은 가족·이웃·학교·직장 등에 있어서의 규율이나 상호감시의 약체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소비적인 자유의 향수(享受)와 함께 인간의 생활이나 마음의 의지할 곳을 빼앗고 불안과 실의, 고독감과 고립감, 무력감과 자기상실, 붕괴감각, 방향과 목표의 상실감 등을 높이며 부적응행동과 퇴행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능률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거대도시에서는, 사회나 집단이나 문화의 차원에서도, 인간의 행동과 의식의 차원에서도 아노미를 가져오는 힘이 잠재해 있고 인간을 매스화(mass 化)하고 비합리화하며 정동화하는 유력한 환경조건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s.v." David Émile Durkheim," last modified on August 6, 2017,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85%B8%EB%AF%B8 (accessed Octber 15, 2017).

[143]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4~5): 41.

엄격한 책임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144] 베버에게 특이한 것은 종교와 경제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버가 이렇게 종교가 사회의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글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은 1904 년 미국 여행에서 크나큰 감명을 받았다. 미국 자본주의 출현에 있어서 개신교 종파가 행한 역할, 정치기구, 관료제 등은 그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이것은 이후 그의 종교사회학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주로 개신교와 경제 발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종교적 관념과 윤리가 사회의 경제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관계성을 신앙 행위자들의 주관적 의미와 이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비롯해 천직(소명의식)이라는 관념의 토대인 합리적 생활 방식은 금욕주의적 기독교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145] 즉 베버는 종교가 하나의 기성 질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 과정에 의미를 두었으며 이것은 베버가 종교적 기능을 사회변동의 역동성의 근원으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사회계층 간의 갈등 해소 방안이라 보았고 이러한 돌파((breakthrough)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두드러진 것이며, 그것은 종교를 사회 행위의 방향을 구성하는 관념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의 하나로 보았다.

---

[144] 베버(Max Weber)는 이 논문에서 끊임없는 재투자를 통한 자본 축적 그 자체를 추구하는 근대자본주의 정신의 탄생은 수많은 물질적, 제도적, 역사적 요인들과 함께 칼빈주의의 직업의식이나 소명의식과 같은 금욕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밝힌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신을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단지 삶의 수단일 뿐이었던 영리 추구 행위가 그자체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주객이 전도된 비합리적 정신이라고 말한다.

[145] 양영진, *베버 종교사회학 저술들의 내적 연관성, 막스 베버 사회학의 쟁점들* (서울: 민음사, 1995), 345-392.

그러므로 자본주의 정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상 나타났던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 역시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있어 새로운 돌파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자본주의의 출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합리화' 과정을 확산시키는데 공헌 했다는 것이 베버의 주장이다.[146]

또 베버는 사회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신정론[147] 에 대한 분석에서는 인간의 경제적 태도가 종교적 믿음 체계에 의해 지배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체계도 경제 체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148] 베버가 말한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그의 공헌은 종교를 하나의 독립변수의 역할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종교가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관념, 가치, 문화에 끼치는 중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 있다. 즉 종교의 힘이 경제로부터 오는 갈등상황을 해소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

[146] 이종수, *막스 베버의 학문과 사상* (서울: 한길사, 1984), 306.

[147]신정론은 악의 존재도 신의 섭리로 본다. 문제는 불합리한 고난의 경우에 일어난다. 베버(Weber)는 이 용어를 자신의 세계종교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적용되도록 확장하였다. 첫번째는 고난, 부정, 불완전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이다. 둘째는, 이러한 문제에 연관된 종교와 이념에 의해 제시되는 해결책이다.일부 논자들(예, Obeyesekere)은 첫번째의 문제에 국한시킬 것을 주장하지만, 또 다른 논자들(예, Peter Berger)은 두번째의 의미에서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 고난과 악에 도덕적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려는 필요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교에 나타나는 문제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신정론 [theodicy, 神正論] (사회학사전, 10.30, 2000, 사회문화연구소) (Accessed Octber 2, 2017).

[148] 이러한 연구는 1911~1914 년에 수행하고, 1915~16 년에 사회과학 및사회정책논총에 발표하기 시작한 세계종교와 경제윤리(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에 잘 나타나 있다. 베버가 교정을 채 완료하기 전인 1920 년 7 월 급작스럽게 사망하여 이 논문집은 그의 사후에 3 권으로 출간되었다. 제 1 권에는 서언과 서론, 유교와 도교, 중간고찰이, 제 2 권에는 힌두교와 불교, 제 3 권에는 고대유대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의 또 다른 저작인 경제와 사회 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사회학 과련 장들과 서로 해석하고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사실상 베버는 사회를 각각 자체의 경제적이익, 지위적 명예,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위집단의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관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집단의 종교적 이념은 그들의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적 관념과 사회계층의 관계에대한 베버의 연구는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베버는 사회를 각각 자체의 경제적 이익, 지위에 따른 명예,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위 집단의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관계로 보았으며, 따라서 사회 집단의 종교적 이념은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구조 속에서의 종교적 역할은 경제의 활성화뿐 아니라 문화, 관념, 가치관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봄으로 인간의 삶 속에 갈등의 요인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경제를 종교와 접목함으로 사회는 모든 것이 맞물려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었다.

불과 수년 사이 지식의 총화가 배가 되는 지식 폭발의 현상, 물질문명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가는 진보에 역 비례하여 지혜의 부족함, 인성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역리 현상을 보며 살고 있다. 이러한 세계를 예견이나 하듯 로마클럽의 부회장 킹(Alexander King)은 그의 책에서 오늘날의 세계를 불확실성의 세계라 살피고 있다.[149] 예일대의 역사학 교수 캐네디(Paul Kennedy)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불확실성과 직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150]

오마에 겐이치에 의하면 이미 이 세계는 국경이 없는 하나의 세계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151] 이러한 불 확실성의 21 세기 주도세력을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책 '전제와 약속'에서 풍부한 자연자원, 고도로 교육받은 대중,

---

[149] Alexander King, *The First Grobal Revolution* (NewYork: Pantheon Books, 1991), 11-12.

[150] Paul Kennedy,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York: Random House, 1993), 348.

[151] Kenichi Ohmae, *The Borderless World* (London: Fontana, 1991), 269.

지방 분화가 가장 잘 된 정부, 매우 강력한 R&D[152]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21 세기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 보았다.[153] 그러나 시카코 대학의 교수 불륨(Allan Bloom)은 미국 쇠퇴를 이야기하며 그 근원적 이유를 영혼의 상태(The State of Our Souls)에 있다고 하며 그의 저서 '미국정신의 폐쇄'에서 지적하면서 미국인은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가치를 상대적이라고 믿는 데 문제가 있다.[154] 라고 지적하였다. 자유는 방종으로 변하고 선과 악도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온 사회를 휩쓸고 있기에, 불륨에 의하면 미국인의 영적 상태는 파산 지경에 있다고 본 것이다.

김의환 역시 인간 사회와 인간 안에 스며들어온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은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155]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는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숨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복음이 아닌, 행복이, 성공이 기독교의 진리를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현대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로 볼 수 있으며 이 문화의 영향은 이 세계를 수다한 이율 배반 현상으로 가득하게 했다.

---

[152] 연구개발(研究開發) 또는 간단히 R&D(Research and development)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따르면 "인간, 문화, 사회의 지식을 비롯한 지식을 증강하기 위한 창조적인 일이자 새로운 응용물을 고안하기 위한 지식의 이용"을 가리킨다.

[153] Alvin Toffler, *Previews & Premises* (New.York: Bantam Books, 1983), 13-21.

[154] Allan Bloom,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NewYork: Simon & Schuster, 1987), 25-43.

[155] 김의환,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21 세기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295.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좁은 의미로는 문학을 비롯한 예술 분야,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문화 전반,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20 세기 후반의 시대정신이나 정신구조 또는 세계관과 관련된 폭넓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56]

하버드 대학의 사무엘 헌팅톤 (Samuel Huntington)은 그의 논문 '문명의 충돌'에서 앞날의 국제분쟁의 원인을 주로 문화적인 면에서 찾았다.[157] 그의 예리한 분석은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정신문화가 쇠퇴하고 있는 현실은 힘이 아닌 문화가 국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이 자명한 현실이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 혹은 성서가 말하는 생령(A Living Soul)으로 본다면 역사를 움직이는 힘, 곧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한 사회가 가지는 정신 풍토 (Noosphere)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158] 이에 문화가 끼치는 영향은 분명 전통적 사회 가치와 새로운 사회 가치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이민 사회에서 겪는 문화충격은 개인적인 갈등의 요소들로 작용 할 뿐 아니라 계층 간에도 갈등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집단을 유지, 존속,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 구성원간 불화를 일으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고민이 될 것이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힘은 이념으로 인한 국가 간의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고 작게는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들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해 본 바에 의하면 문화의 영향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56]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1991), 16.

[157]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72, no. 3 (Summer 1993): 22-23.

[158] 이원설, 문영식, *Visionary Leadership for the 21st Century* , 68.

V. 대상관계 이론에서 본 갈등

한 인간이 태어나 일생을 사는 동안 주변의 환경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현대의 세분된 학문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 가운데서 원인을 밝혀내면서 해결점들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가장 큰 공헌을 한 학문이 20세기에 발달한 심리학일 것이다. 심리학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해 연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서 대상 관계심리학자의 이론을 택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상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 부모와 관계가 한 개인의 성품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며 또한 이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기반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특히 초기 부모와의 대상 관계 경험은 부모-유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면화되고 심리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기에 이러한 내적 대상 관계는 이후 성인의 삶에서 인간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159] 이는 기독교 교육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인간이 태어나 누구에게 어떻게 양육을 받았느냐 하는 양육방법은 그 사람의 인성과 성격을 만드는 중요한 여건이다. 내적 대상과 외

---

[159] Jay Greenberg & Stephen Mitchell, *정신분석적 대상관계이론*,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31.

부 대상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떤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갈등은 발생한다.

본 프로젝트는 대상 관계에서 오는 갈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상 관계 심리학자들의 이론들 속에서도 갈등의 원인과 대안을 볼 수 있었기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마가렛 말러(Margaret Mahler),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도널드 위니컷(Donald Winnicott), 그리고 하인즈 코핫(Heinz Kohut)의 이론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1. 대상 관계 이론의 개념

대상 관계 이론은 인간관계를 분석하고 서술하는 심리학 이론으로서 관계성을 심리적인 삶의 중심에 둔다. 초기의 대인관계 경험들은 정신 안에서 심리적 구조로서 기능하므로 개인이 세상과 관계 맺는 형태를 결정하는 풍부한 정신적 상들을 형성한다. 이때 잘못된 상들이 맺히게 되면 대상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가장 중요한 동기로 이해한다. 따라서 대상 관계라는 말은 한 개인이 실제로 사람들과 맺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가 맺는 내적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그 내적 대상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들이나 이론들의 측면을 가리킨다.[160] 이뿐 아니라 정서적 에너지가 부여되는 그 어떤 것과의 관계 경험이 내재화된 내용을 의미한다. 개인의 초기경험은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원자료를 제

[160] 김진숙, "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2 (2000): 53-54.

공한다. 주요 타자들과의 반복적인 상호 작용에서 유아는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인 경험도 갖게 된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자신과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은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인 표상은 부정적인 대로 조직되어 자신과 대상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표상으로 유아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아가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경험하면, 표상의 긍정적 측면들과 부정적인 측면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우세한 가운데 하나의 통합 된 구조로 형성된다. 주요 타자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은 점차 아이의 내면에 자신과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정서가 부착된 긍정적인 표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감으로 발전한다.

반면, 유아가 충분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처벌을 받으면서 성장한다면, 유아의 내면에 형성되는 표상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성격을 띤다. 즉, 자신과 대상에 대한 표상이 주로 부정적인 지각과 정서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경험 중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각하게 되는데. 그 결과 낮은 자존감과 취약한 자아 구조를 갖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왜곡된 지각과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161] 이것은 대상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은 거친 훈육과 방임의 혼란스러운 결합에 주목하였다.[162] 이렇

[161] 노안영, 강영신,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8), 161.

[162] Nancy McWillams, *Psychoanalytic Diagnosis*, *정신분석적 진단*, 장남윤, 이기련 역 (서울: 학지사, 2008), 223.

듯 부적절한 양육은 유아가 자라 성인이 되었을때 자신의 내적으로나 외부적인 갈등의 요소로 작용함으로 주변인들에게 심한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가 형성됨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 형성으로 갈등 관계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기에 양육자와의 만족스러운 관계 경험은 유아의 자아 기능 발달을 촉진하고, 자기 존재감과 안정된 정체감의 근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즉 대상 관계 이론의 핵심은 인간을 이해하면서 인간을 하나의 자기 체계 속에 갇힌 존재로 보지 않고 근원적으로 대상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이해한다는 것이다.[163] 이는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넓다는 의미이다.

2. 대상관계 심리학자들의 이론들

1) 마가렛 말러(Margaret Mahler)

한 인간이 출생하여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공생과 개성화의 과정으로 이론을 설명한다. 그는 유아의 탄생을 생물학적 탄생과 심리적 탄생으로 나누며. 심리적 탄생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즉 심리적 탄생이란 한 아동이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서 분리-개별화되는 과정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정신 내적과정을 말한다. 이 심리적 탄생을 잘 이루어야만 건강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163] 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Jay Greenberg & Stephen Mitchell,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이재훈 역 (서울 :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Stephen Mitchell & Margaret Black, *프로이트 이후*, 이재훈, 이해리 역 (서울 :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Frank Summers, *대상관계이론과 정신병리학*,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4), 등을 보라.

유아가 현실 세계와 관련있으면서도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뜻하며, 유아 자신의 신체 경험과 그가 경험하는 세계의 주된 표상, 즉 일차적 애정 대상과 관련되어 유아 스스로가 확립됨을 말한다. 이 단계는 태어난 후 4~5개월부터 30~36개월 사이에 볼 수 있다. 분리와 개별화 과정은 정상적인 공생기 다음에 시작되는데 이 과정은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분리된 기능을 성취할 수 있게 되며 정상적인 분리-개별화 과정은 독립적 기능 등장을 위해 발달 적으로 준비되며 즐기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유아의 공생과 개성화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자폐적 단계(Autism): 생후 몇 주 동안 신생아는 깨어 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길다. 이때는 자기나 대상에 대한 인식 없이 신체 감각만을 인식하는 자폐적 상태이다. 이 기간 동안 신생아는 환경과 자신의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생리적 긴장, 즉 배고픔을 줄이기 위해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찾는다. 이 시기에 유아와 외부 세계를 연결 해 주는 통로는 아직 열려있지 않으며, 유아는 생리적평형 즉, 욕구 만족에만 관심을 가지며 쾌락의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마가렛의 자폐적 단계는 대상이 없는 시기이다 라고 한 이 주장은 프로이드가 말한 구강기 안에서의 리비도(Libido)와 일맥상통한다.[164] 프로이드는 인간을 본능적인 자아를 억압하려는 사회적체제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는 갈등적 존재로 보았다.

---

[164]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chell,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대상관계이론*,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78-79.

두 번째 공생단계(Symbiosis): 이 단계는 생후 2~6개월에 이르며, 유아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때 유아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어떤 사람의 존재를 희미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기와 주요 양육자인 어머니를 분리 된 존재로 지각하는 것은 아니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통해 자기와 양육자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지각하게 된다. 이 단계부터 유아는 경험을 조직화 하기 시작하며, 이 시기 동안 유아에게 좋게 느껴지는 경험은 '좋음'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경험은 '나쁨'으로 범주화 된다.

세 번째 분리 개별화: 7~10개월가량, 기면서 엄마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엄마의 눈길을 계속해서 인식한다. 10개월쯤 되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의 관심이 무생물에게로 옮겨 가기도 하는데 위니컷은 이것을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 이라 부르기도 했다.[165]

네 번째 활동기: 12개월 정도에 일어나며, 이 시기를 말러는 특별히 심리적 탄생기라고 지칭하였다. 아동의 직립 운동과 함께 아동의 시야는 넓어지고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동의 기분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자기애와 대상, 사랑, 모두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라고 주장했다.[166] 이 단계에서는 어머니는 아동의

[165] Ibid., 432.

[166] Ibid., 433.

성장을 특정한 방식으로 격려 해 주어야 하며 자기 자신의 선입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아이에게 반응해야 한다.[167]

다섯 번째 재접근 하위 단계: 15~24개월, 아동에게 이시기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이다. 이 시기의 투쟁은 그들의 일생의 성격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때 아동은 어머니를 강력히 원하기도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강력한 분리도 원하기에 정서적인 심한 갈등을 겪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재접근 위기가 잘 해결되어야 이후의 심각한 정신병리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시기는 자율적 자아 기능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기이며 언어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현실검증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하기에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 시기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아이의 성격형성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말러는 이 시기에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168]

마가렛 말러의 대상 이론들은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유아 시절 부모의 일관 된 양육 태도 및 풍부한 사랑은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주며 대상관계속에서 갈등 관계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67] Ibid., 434.

[168] Ibid., 435-437.

2)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오스트리아 비인 출신의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1882-1960)은[169] 놀이를 통한 아동 분석과 관련한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느 이론가들도 비슷하겠지만 그녀의 이론은 우울하고 험난하기도 했지만 꿋꿋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삶의 주제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170] 그녀의 중요한 업적은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묻는 물음에서 경제적, 물리학적 고려로부터 대상관계의 중요성으로 연구의 초점을 옮겨 놓았다는 점이다. 클라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유아 발달에 있어서 초기 정신 과정에 대해 매우 깊이있는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1) 놀이와 환상

클라인의 이론은 놀이를 통해서 아동을 직접 분석 하는 임상적 연구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클라인 이전에도 아동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09년에 프로이트가 한스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린아이 한스를 분석한 사례를 출판했는데 이것이 아동 분석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이후 허그 헬무스(Hug-Helmuth)는 1912년 이후 프로이트의 이론을 접목시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하였고, 직접적인 관찰과 대화 기법에서 더 나아가 1917년 처음으로 아동의 치료에서 장난감을 사용한 놀이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169]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chell, *대상관계이론*, 197-247.

[170] 클라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국내 자료로는 Hanna Segal, *멜라니 클라인*, 이재훈 역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1999). 345-350.

그녀는 놀이에서 나타나는 아이의 말과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거의 해석하지 않았고 주로 교육적인 접근을 하였다.[171] 클라인은 이것의 한계를 넘어서서 놀이를 통해 아동들의 내면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클라인은 1923년에 아동 분석의 원리와 기술을 완전히 확립 하였고 아이에게 적합한 정신분석적 환경을 제공해 주게 되었다.[172]

클라인의 천재적인 공헌은 아이가 놀이를 통하여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과 따라서 놀이는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데 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단순한 놀이' 가 아니다. 놀이는 작업이며, 외부 세계를 탐험하고, 정복하는 수단 일 뿐 아니라 불안을 탐구하고, 정복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놀이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환상들을 극화함으로써 갈등들을 정교화 하고 극복한다.[173] 클라인은 아이에게 선물을 주거나 아이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아이를 충족 혹은 '유혹'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분석에서와 동일한 원칙을 고수한다.

그녀의 아동 분석은 어린아이의 내적 불안과 충동, 무의식의 역동이 환상에서 표출되어 갈등의 문제로 안고 있기에 무엇보다 자유로운 놀이 상황에서 가

---

[171] 박선영, "멜라니 클라인 정신분석과 아동정신분석의 역사,"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6-1 (2004): 65. 허그 헬무스는 자신의 방법을 치료적 교육적 정신분석 (curative educational psychoanalysis) 혹은 (psychoanalytic pedagogy)이라고 하였다.

[172] Hanna Segal, *멜라니 클라인*,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43.

[173] Ibid., 38.

시화되며, 외재화 되는 불안과 공격적 충동 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이 곧 불안의 경감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클라인은 아이의 언어 소통과 자유로운 놀이는 성인의 자유 연상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고, 1929년 논문에서 실제로 사례 분석을 통해 어린아이들의 놀이에서 자아(Ego)와 이드(Id), 그리고 초자아(Super Ego)가 인격화되며 그 무의식적 역동이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174]

클라인은 아동 분석을 통해서 초기의 정신 과정에 무의식적 환상이 지배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역시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세계가 현실을 지배한다는 이론을 뒤 받침하고 있는 듯하지만 환상을 좌절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정신과정으로 생각했던 프로이트와는 달리 클라인은 환상의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서 그것이 단지 좌절된 욕망에 대한 의식의 보상이 아니라 계통 발생적으로 아동이 소유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상들과 지식의 저장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클라인에게 있어서 환상은 그 자체로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175] 특별히 그녀는 아동의 환상을 'fantasy'가 아닌 'phantasy'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백일몽처럼 경험하는 성인의 환상과는 다른 무의식적 환상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생후 초기부터 유아들은 자극에 대해 즉각적인 환상으로 반응한다. 좌절을 포함한 불쾌한 자극에 대해서는 공격적 환상으로, 만족감을 주는 자극에 대해서

---

[174] 박선영, "멜라니 클라인 정신분석과 아동정신분석의 역사," 68-69.

[175]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chell, *대상관계이론*, 205.

는 유쾌한 환상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최초의 대상으로서 어머니의 젖가슴이 주는 충족과 좌절은 유아의 내, 외적 세계를 조형하며 이 역동적 상호과정은 환상작용과 결부된다. 좋은 외적 경험은 내면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내적 세계의 안정감은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다시 이는 박해 적이고 위협적인 환상을 감소시키는 우호적인 순환 관계가 형성된다. 또 생후 초기부터 유아들은 좋은 어머니와 착한 마술사 등을 닮은 이상화 된 대상과, 한편으로는 괴물 및 마녀와 같은 무시무시한 대상들의 환상 지배를 받는다. 이때 아동들은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어린아이의 지각과 환상이 최초의 원시적인 사랑과 증오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구성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76] 그래서 클라인은 근본적으로 정신을 대상과의 환상적 관계 단위들로 이루어진 구성물로 이해하였다.[177]

(2) 자리 이론(two position theory)

멜라니 클라인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근본적인 자리(position) 즉, 편집-분열적 자리(paranoid-schizoid position)와 우울적 자리(depressive position)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와 유사한 혹은 대안적인 견해를 제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자리는 불안, 환상, 방어, 대상 관계 등으로 구성되며 주체가 인생의 과정에서 언제라도 다시

[176] 박선영, "환상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프로이트와 클라인을 중심으로," *감성과학*, 9-2 (2005): 144-145.

[177] Robert Douglas. Hinshelwood, *임상적 클라인*,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53.

들어설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다.[178] 이러한 공간은 갈등을 발생케 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편집-분열적 자리는 태어난 후 몇 달 사이에 유아가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이 상태의 특징은 분열과 투사와 같은 방어기제의 우세성, 부분적 대상관계, 자아의 보존이나 생존에 대한 편집적인 두려움이다.

클라인에 의하면, 유아는 자신의 파괴적인 성향을 분리하여 어머니의 한 가슴에 투사하고 마치 자신이 박해 당하는 것으로 지각하여 편집증적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유아는 우선 편집-분열적 자리로 자신을 방어한다. 이때 편집적(paranoid)이라는 것은 유아가 외부의 나쁜 대상인 가슴으로부터 박해받는다는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이고 분열적(schizoid)이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열(splitting)[179] 하는 경향성으로부터 나왔다. 이때부터 아동은 대상으로부터 오는 갈등을 경험하며 그 갈등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한다. 유아는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와 같은 원시적인 방어기제[180] 를 통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체험

---

[178]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단계(stage)'라는 용어보다는 '자리(position)'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신발달의 점진적이고도 유동적인 이동을 강조한다. 자리 개념은 유아의 정신발달을 되돌아가는 것이 없는 완전한 단계의 연속이라기보다는 안과 밖의 변동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자리 개념에서는 어떤 심적 상처에 의한 일시적이거나 만성적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퇴행이 있다. Otto, Weininger,*Melanie Klein: From Theory to Reality* (London: Karnac Books, 1992), 1.

[179] 분열(splitting)은 받아들이기 힘든 모순된 감정, 자기-표상, 대상-표상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무의식적 과정이다. 클라인은 이 분열이 생후 수개월 동안 유아의 감정적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을 발견했다. 분열은 유아로 하여금 선함과 악함, 쾌감과 불쾌감, 사랑과 증오 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서 긍정적으로 채색된 경험, 감정, 자기-표상, 대상-표상들을 독립된 정신 영역 안에 안전하게 보존하게 하고 부정적 대응 요소들로부터의 오염을 막는다. 그러나 분열은 양극적인 요소들의 통합을 방해함으로서 자아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Glen O. Gabbard,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Third Edition* (05-15-2000): 65.

[180] 이것은 주로 편집-분열 자리에서 사용되는 방어 기제로서 분열, 투사, 내사, 투사적 동일시, 이상화, 전능성, 부인 등이 있다.

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반면 발달이 순조롭고, 특히 이상적인 가슴과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면, 유아는 죽음의 충동을 견디어 내게 되고 원시적인 방어 기제에 덜 의존하게 된다. 즉, 피해 의식이 감소하고 자아 통합이 촉진된다. 대상의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통합되고, 유아는 엄마를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둘 다를 주는 사람이라고 보게 된다. 편집적 불안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기 파괴에 대한 공포라면, 우울적 자리(depressive position).[181] 에서 오는 우울적 불안은 자신의 공격성에 의해 현실 대상과 내적 대상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공포이다. 우울적 불안과 박해 적 불안을 극복해 내는 작업은 아동기 첫 몇 해 동안에 걸쳐 지속된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은 지각의 순간부터 갈등의 관계속에 있음을 이론화 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클라인은 편집-분열 자리와 우울적 자리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세울 수 없다고 보았다. 두 자리는 중첩되고 두 자리 사이에서의 변동은 언제나 발생하고, 이는 정상 발달의 한 부분이다. 유아가 우울적 자리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불안을 촉발하는 상황은 예기치 않게 닥치며 그러한 경우 유아는 편집-분열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편집-분열적 자리는 사실상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182] 이 과정에서 유아가 안정적으로 발달해 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과 좋은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가 돌봄이 좋으면 좋은 대상이 내재화와 되는 보상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좋은 대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누그

---

[181] 편집-분열적 자리의 특징인 박해 불안과는 대조적으로, 우울적 자리의 주된 두려움은 자신이 내부와 외부의 좋은 대상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다.

[182] 박선영, “멜라니 클라인의 아동정신분석 이론 및 임상체계의 재구성,”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3): 329.

러뜨릴 수 있다. 부모의 돌봄을 통해 주어지는 긍정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아의 정서 조직은 우울적 자리에서 고착되고 병리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이의 성격형성이 이루어지며 이때 잘못된 양육 방법은 아이로 하여금 대상 관계에서 쉽게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인은 부모가 제공하는 좋음의 요소가 유일한 변수는 아니라고 보았다. 아이가 타고난 공격성과 좌절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많은가 혹은 적은가에 따라서도 유아의 정서적 발달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인은 이상에서 설명한 두 자리에서의 실패할 경우 인간의 다양한 정신 병리가 생겨난다고
보았다.

(3) 투사적 동일시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는 시기심과 함께 클라인의 생애 후반에 도입했던 중요한 개념이고, 이후 클라인학파 이론의 중심적 개념이 되었다.[183] 1946년에 클라인은 생애 첫 몇 개월 동안에 발달하는 편집-분열적 자리를 설명하는 분열성 상태의 기제에 관한 논문에서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심리과정은 출생 초기 몇 달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유아가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불안과 싸우면서 시작되는데, 이때 유아는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양육자가 그러한 감정들의 힘에 의해 압도되는 것

[183] 이 개념은 클라인이 1946년에 처음 설명한 이후로 한나 시걸(Hanna Segal)이 명확하게 발전시고 토마스 옥덴(Thomas Ogden), 죠셉 샌들러(Joseph Sandler)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최근에는 질 샤르프(Jill Scharff)가 설명했다.

을 두려워한다.

투사적 동일시에서 유아는 자신의 공격성과 그것에 대한 불안을 환상의 형태로 엄마 안에 집어넣는 것을 통해서 자신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때 엄마는 제거되고 투사된 자기의 부분과 동일시한다. 이것이 투사적 동일시 과정의 첫 단계이다. 그때 유아 안에 남아있는 압도적인 감정의 일부는 자신이 바깥으로 내보낸 것들이 그러한 공포스런 감정들로 채색된 엄마의 형태로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그때 엄마는 보복하는 대상으로 보인다. 이것이 투사적 동일시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제 유아는 내사적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 엄마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자신 안에 받아 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투사적 동일시의 세 번째 단계이다. 유아는 이제 점점 더 무서운 엄마처럼 되고 제거되어야 할 더욱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런데 충분히 좋은 엄마는 이러한 걱정스러운 감정들을 변형시킬 수 있다. 즉 이 감정들을 다루어 줌으로써 아기에게 그가 지나치게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해 줄 수 있다.

성인들의 관계에서 투사적 동일시는 자기가 수용하기 힘든 어떤 내적 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여 다른 사람들이 투사된 특성대로 느끼거나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투사되는 부분에는 자기의 특성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대상 관계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모에게서 학대받고 성장한 사람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거부적이고 학대하는 대상 (a "bad object")을 배우자에게 투사하여 배우자가 학대하는 대상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은 무기력한 희

생자의 역할을 하여 내적인 대상 관계를 현재 관계에서 재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184] 이 이론은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의 갈등문제를 뒷 받침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성인은 결혼하여 배우자에게 이런 투사적 동일시를 보여 줌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3) 도널드 위니컷(Donald Winnicott)

영국의 플리머스 출신의 도날드 위니캇(Donald Winnicott, 1896-1971)은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이론을 결합시켜 자신만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클라인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나 클라인보다 환경과 모성적 역할에 더 역점을 두었다. 여러 책들과 200편 이상의 논문에서 위니캇은 정신분석학은 물론이고, 유아치료, 가족치료, 사회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관찰한 결과들을 종합했다. 위니컷의 발달에 대한 이론에서 발달이 실패하여 격어야 하는 병리이론들은 다음장에서 다룰 임파워먼트 교육의 방향을 지지해 주는 이론이기에 그 내용들을 보겠다.

(1) 발달

위니캇은 생후초기 산만한 경험의 조각들과 파편들로 구성된 통합되지 못

---

184 김진숙, "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00): 56.

한 자기를 지칭하는 말로 자아(ego)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자아가 돌봄의 경험을 통해 자의식을 형성하고 통합된 구조를 이루게 될 때 자기(self)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위나캇의 이론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은 바로 이러한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인간 유기체는 '성숙과정' 이라 불리는 욕동을 갖고 태어나며, 정해진 방향을 따라 발달한다. 이런 선천적인 요소는 바뀔 수 없는 것이지만, 성숙과정에서 요구되는 '촉진적 환경' 이 실패할 경우 그것의 발달은 방해 받을 수 있다.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발달은 이뤄질 수 있고 그것이 방해를 받으면 정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위니캇에게 있어서, 정신 병리적인 모든 증상들은 발달이 정지되거나 성숙과정이 차단 되었음을 나타낸다.[185] 이러한 정신적인 병리들이 대상 관계에서 표현될 때 갈등은 발생하며 관계가 소원 해 지는 것이다.

위니캇은 자아의 발달은 절대적 의존 단계로부터 상대적 의존 단계를 거쳐 독립을 향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세 가지 발달적 성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자아의 통합이고, 두 번째는 몸과 정신의 통전이며, 세 번째는 대상 관계 능력의 형성이다. 위니캇은 그의 이론에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의존 단계에 초점을 두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절대적 의존기 (0~6개월)이다. 이 시기는 유아가 자신과

[185] Donald Winnicott,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41.

환경을 구별하지 못하고 융합된 상태로서, 유아에게는 시간 감각이 없고, 경험을 하나로 묶어주는 자기가 없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아는 안정감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쉽게 멸절 불안에 사로잡힌다. 이때 어머니는 멸절 불안을 막아주고 유아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양의 현실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의 완벽한' 적응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시기와 관련해서 위니캇이 제시한 중요한 개념이 일차적 모성 몰두(primary maternal preoccupation)이다. 이것은 출산 전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 몇 주 동안 지속되는 어머니의 마음 상태로서, 자신의 주관성을 포기하고 유아의 주관성을 발달시키는데 몰두하는 건설적인 광증상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는 출생 초기 아이에게 완벽한 돌봄을 제공해 주는 안아주는 환경이 된다.[186]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이란, 의존상태의 유아에게 필요한 촉진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모성적 기능을 일컫는 말로써, 유아의 정서 상태를 안아주고 자아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유아가 전능감과 안전감을 경험하게 하는 환경을 말한다. 어머니는 이러한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환경 어머니와 본능적 욕구충족을 제공해 주는 대상 어머니로 구분된다. 대상 어머니는 유아의 대상 관계와 자아조직이 충분히 형성된 후에 대상 지향적인 원 본능 만족을 제공하는 어머니를 가리킨다. 발달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대상 어머니의 역할이 아니라, 후기 단계에서의 분리 경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 시켜주는 환경 어머니의 역할이다. 위니캇은 이때 어머니의 역할을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186]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chell, *대상관계이론*, 310-311.

enough mother)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원 본능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어머니이다. 이런 어머니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성 본능에 따름으로써 초기에 거의 완벽했던 적응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아이에게 전능감의 점진적 좌절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모험심과 대상에 대한 분화된 공격성을 사용하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갈등 상황을 접하였을 때 지혜롭게 대처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적 의존기 (6개월-오이디푸스기)이다. 초기 멸절의 위협에서 회복되는 반복적인 경험은 유아에게 회복에 대한 확신을 주고, 이 확신은 자아 능력으로 변형되며, 마침내 통합된 감각을 형성시킨다. 유아는 이를 통해 정서적 접촉과 심리적 인식이 가능 해 지며, 이로 인해 대상과 관계를 맺는 자아 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의 내면화를 통해 자기 조직을 발달시킨다. 자기조직의 발달과 함께 유아가 어머니와 맺는 관계는 공감에 기초한 안아주기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함께 살기(living with)의 관계로 옮겨진다. 이때 유아는 점차 통합된 감각을 갖게 되고, 경험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 본능적 욕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서, 유아는 자신이 무자비하게 파괴한 대상 어머니가 자신을 돌보아주는 환경 어머니와 동일인임을 알게 되는데, 이때 유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손상을 가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것은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타인에 대해 건강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대상 사용의 능력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시기에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에 따른 분리 불안을 완화시키고 주관적 전능 세계에서 객관적 현실 세계로 옮겨가는데 필요한 완충작용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아이는 이러한 완충작용을 위해 중간대상[187] 을 사용하여 현실원리에 대한 지각 능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위니캇은 이 시기에 유아가 경험하는 경험들을 중간현상(transitional phenomena)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그것은 나와 나 아닌 것 모두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이것에는 인형, 담요 등의 물건뿐만 아니라 옹알이, 흥얼거림과 같은 소리도 포함된다. 이러한 중간대상과 중간현상은 정신의 조직자로 기능하며, 어머니에 대한 양가감정을 수정하고, 자기 경계의 확립을 돕고,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도록 지원하여 장래,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원천이 된다. 특히 위니캇은 아이들의 놀이를 중간 현상의 확장으로 보았고, 놀이는 개인적 자기와 환경 사이의 잠재적 공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188]

세 번째 단계는 독립을 향해 가는 단계(오이디푸스기 이후)이다. 독립을 향한 움직임은 걸음마 시기에 시작해서 사춘기와 청소년기에 혹은 개인에 따라서는 성인기에도 가능한데 유아는 정신적 기제와 인지적 이해를 발달시키고 사회적

---

[187]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이란 아이가 어머니와의 분리에 따른 상실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분리불안과 우울불안을 완화시켜주고, 전능환상에서 현실세계로 나아가도록 연결시켜주는 매개물을 말한다. 아이는 이 중간대상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대상은 아이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어야 하며, 또한 그 자체의 현실을 가지고 아이의 공격성과 강렬한 사랑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chell, *대상관계이론*, 313.

[188] Donald Winnicott, *놀이와 현실*,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187.

관여를 한다. 위니캇은 이 시기에 불만족과 욕구 충족의 지연이 정서적 성숙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어머니와의 융화 상태에서 경험한 본능 충족은 대상의 위치를 상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 대상의 출현과 이들 대상과의 관계 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자기 아닌 다른 세상의 존재를 교육시키고 독립을 촉진시킨다. 무엇보다도 유아의 홀로서기는 그 유아의 심리적 현실에 좋은 대상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즉, 성숙과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이 좋은 곳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충분히 좋은 모성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189] 위의 모든 이론을 보면서 위니컷 역시 인간이 건강한 자아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좋은엄마의 양육방법에 있음을 설명한다.

(2) 병리이론

위니캇의 병리이론은 발달의 각 단계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정신병리는 절대적 의존기로부터 독립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환경에 의해 발달이 정지되어 발생한 것이다. 절대적 의존기의 병리는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의 병리로서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공감과 안아주는 환경의 실패로 인해 아이가 전능 환상의 때 이른 붕괴를 경험하고 멸절불안을 느낌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이때 갖는 갈등은 내적인 갈등이 심화하고 정신증은 전능 방어와 전혀 통합되지 않은 자아에서 기원하는 것이며 아이가 전능 환상을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과정 없이 조숙하게 현실에 의해 침입을 받을 때 경험하는 멸절 불안으로 인해 자신이

[189] Donald Winnicott,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130-132.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인 전능 방어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적 정서는 부인되고 전능 환상에 따른 마술적 사고에 고착되어 현실을 왜곡하게 된다. 이 현실의 왜곡은 대상 관계에서 심한 갈등관계를 일으키게 되고 이 갈등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무서운 파괴력으로 다가간다. 이때 갖는 정신장애는 경계선 장애와 자기애적 인격장애가 오며 절대적 의존기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전능 방어에 고착되었지만, 자기의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들은 상대적 의존기 동안에 상대적 박탈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이며, 따라서 잃어버린 만족 경험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가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치료과정에서 표출된다.[190] 위니캇은 정신병을 환경 결핍증 (environmental deficiency disease)으로 정의한다.[191] 그의 이론 체계에서 모든 정신병리는 부모가 아동을 적절하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능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성격은 아동의 발달에 지극히 큰 영향을 끼치며, 유아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병리 때문이라는 것이다.[192]

이처럼 유아가 병리적인 현상을 겪어야 하는 것에 대해 위니캇은 그 발생의 자리를 생의 초기에 아이와 어머니가 갖는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 즉

---

[190] 위니캇은 절대적 의존기에 발생한 침범을 욕구가 처음부터 충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대박탈"(privation)이라고 불렀고, 주어졌던 것을 도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박탈"(deprivation)은 상대적 의존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위니캇은 반사회적 행동,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해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었다. Donald Winnicott, 박탈과 비행,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1), 93.

[191]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chell, *대상관계이론*, 321.

[192] Ibid.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아기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해 주며, 이때 아기는 이를 통해서 전능 환상을 경험하여 마치 자신이 그 필요한 것을 창조해 냈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머니가 아기의 요구에 적응해주지 못하게 되면, 아기의 환상은 깨지고 따라서 환상과 자발적 충동이 결핍되어 아기는 생존을 위해서 본래의 참 자기를 포기하고 서서히 거짓 자기를 형성하게 된다[193] 면서 위니컷은 정신분석 치료를 인간 속에 내재 되어 있는 심층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환자에게 잃어버린 돌봄을 제공하고 초기의 발달적 욕구를 채워주는 과정으로 이해했다.[194] 이는 갈등의 원인을 대상 관계 에서 찾아 교육의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으려는 본 프로젝트를 지지하기에 충분한 이론의 받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하인즈 코핫(Heinz Kohut)

대상 관계 이론과의 연장 선상에서 자기 심리학(self psychology)의 영역을 개척했던 하인즈 코핫(Heinz Kohut, 1913-1981)은 심리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공감(empathy)에 대해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1981년 마지막 발표한 논문이 'Reflections on Empathy' 였던 것을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193] 이재훈, "참자기와 거짓자기의 문제," *기독교사상* (1991, 5): 217-220.

[194]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chell, *대상관계이론*, 322.

수 있는 점이다.[195] 특히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이해와 치료에 대한 그의 공헌은 실로 큰 것이다. 크리스토퍼 래쉬(Chritopher Lasch)가 후기 현대 사회의 인간의 삶의 양태를 '자기애적 성격(narcissistic personality)'의 출현으로 예견하였듯이[196]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두드러진 문제는 자기애와 관련된 것이다. 자기애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와 사회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일찍이 자기애의 문제에 집중했던 코핫의 이론은 이러한 현상에 맞게 매우 적절한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헤인즈 코핫이 사용한 공감은 갈등 해소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해결의 열쇠이며 자기개념은 발달의 교육 기초가 되기에 임파워먼트 교육이론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1) 자기(self)의 발달

코핫의 가장 중심개념은 '자기'(self)에 대한 독특한 이해이다. 코핫에게 있어서 자기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자극을 주고받는 주체로서 하나의 응집된 단위이며 객체로서 단독으로 존재하기 보다 자기 대상과의 관계의 틀 안에서 존재한다.'[197] 즉 자기는 한 개인 안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대상'(selfobject)과의 관계적 모체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산물이라는 것이

---

[195] 정석환, "목회상담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3): 30-31.

[196] Chritopher Lasch, *나르시시즘의 문화*, 최경도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9).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의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인간관계, 죽음과 늙음에 대한 기피, 진지하지 않은 자기 탐구, 사랑과 진실성이 결여된 즉흥적 남녀 관계 등이 새로 오는 세대의 문화 현상이 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197]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chell, *대상관계이론*, 548.

다.[198] 여기에서 자기대상은 어린 자기가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필수적인(심리적으로 삶을 지탱 해 주는) 기능을 수행해 주는 대상을 지칭하는데 유아에게 최초의 자기대상은 모성적 돌봄을 제공해 주는 어머니이다.

아동이 자기대상과 융합될 때 자기 대상이 되는 성인의 경험은 아동의 정신에 미묘하고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199] 이때 부모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했다든지 아이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했을 때는 아이의 성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왜냐면 최초의 자기는 파편화된 자기(fragmented self) 또는 자아의 핵 요소들(ego nuclei)로서 존재한다. 이때 아기의 자기의 목표는 어머니와의 공생적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자신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애적 평정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츰 어머니의 돌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애적 평정은 깨질 수박에 없는데, 아기는 이 지점에서 자기애적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하나는 과대 적이고 과시적인 자기(grandoise and exhibitionistic self)의 발달이며, 그 뒤를 이어 나타나는 것이 부모를 감탄스럽고 전능한 자기대상으로 만드는 것, 즉 이상화 된 부모상(idealized parental image)을 창조하는 것이다.

코헛은 아기와 자기대상의 관계를 정신 발달과 구조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

[198] Ibid.

[199] Ibid., 549.

로 본다.[200] 이때 아기의 부모가 자기대상이 되어서 아이의 과대주의와 과시주의의 욕구에 대해 공감적인 반응(mirroring)을 제공해 주면 이것은 차츰 길들여지고 조절되고 보다 현실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자기감 또는 자존감으로 성숙해 간다. 또한 부모가 아기의 이상화 시도에 대해 이상화 된 대상으로서 아이를 과도하게 실망시키지 않고 관계를 맺어주면 아기는 이상화 된 부모상과 자리를 동일시하게 되고, 차츰 그 이상화 된 부모상을 내면화하며 자기이상(self ideal)으로 삼게 된다. 이 두 가지 자기대상의 기능이 적절하게 이뤄지면 유아의 자기는 응집적 자기(cohesive self)로 발달하게 된다.[201] 이러한 응집적 자기의 형성을 위해 제공되는 자기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코헛은 "심리적 산소(psychological oxygen)"라고 하였고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개인은 응집적 자기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고 "텅 빈 자기(empty self)"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최적의 좌절(optimal frustration)인데, 이것은 위니캇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완벽한 돌봄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애적 평정이 깨어지는 실망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경험하게 될

[200] Ibid.

[201] 이재훈 "하인즈 코후트의 자기 심리학이 갖는 목회신학적 함축," *한국교회와 신학실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351-352. 코핫은 그의 마지막 책에서 세 번째 자기의 욕구로서 아이가 현실 안에서 부모나 자기대상을 자신과 똑같은 현실적 존재로 확인하려는 욕구, 즉 "쌍둥이 자기 대상"(twinship)에 대한 욕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이되지 않았다. Heinz Kohut, "How Does Analysis Cure?, " Ed. Arnold Goldberg *Chicago: The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194-200.

때, 자기애의 영역 안에 기본적인 긴장을 견딜 수 있고 자기를 달래는 능력을 제공하는 내적 구조가 형성된다.[202] 아이가 최적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기대상의 좋음의 요소를 받아들여 건강한 자기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코헛은 변형적 내면화(transmuting internlization)라고 하였다.[203]

(2) 자기애적 병리

코핫이 말하는 자기애적 병리는 무엇보다도 자기애적 성격장애에서 그 모습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다. 코핫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발전 된 이론에서 자기대상은 아동의 자기애적 욕구뿐만 아니라 더욱 복잡한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난다.[204] 이에 코헛은 부모가 지속적인 공감을 아이에게 주지 못할 때 정신병리가 발생한다고 보았기에 기독교 교육에서 교육의 범주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교육의 범주로 포함 되어야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핫이 연구한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특징들인.[205] 유아적 자기애, 과대주의, 과시주의, 낮은 자존감, 허약한 신 체감, 수치심, 시기심, 등은 대상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202] Heinz Kohut, *자기의 분석*,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76.

[203]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chell, *대상관계이론*, 550.

[204] Ibid., 551.

[205] 이재훈, “하인즈 코후트의 자기 심리학이 갖는 목회신학적 함축, ” *한국교회와 신학실천 대한기독교서회* (1996): 353-357.

(3) 치료

코핫에게 있어서 치료는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하고 적절한 자기대상을 선용할 수 있는 자기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206] 이러한 치료를 위해 코핫은 세 가지 과정의 치료적 단계를 밝히고 있다. 첫째, 코핫에게 있어서 자기애적 상처에 대한 치료는 충분히 공감적이고 신뢰할 만한 관계의 모체를 제공 해 주는데 달려있다. 치료자는 치료 상황에서 내담자에게 자기 대상이 되어서 그의 과대주의와 과시주의에 공감적인 이해와 반영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상화 대상이 되어서 내담자가 인정받고 동일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때 상담가는 섣부르게 해석하기보다는 공감적 이해와 수용을 통해서 내담자가 옛 관계의 상처들을 노출하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관계 경험을 체험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코핫은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응집력 없는 자기를 응집력 있는 자기로 만들 수 있는 시멘트와 같은 요소이다[207] 라고 한다.

둘째, 이러한 공감적 관계를 통한 내담자의 옛 관계의 치료적 활성화의 단계를 형성하면, 내담자와 상담자는 보다 깊은 자기와 자기대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상담자가 공감적 이해와 반영, 그리고 이상화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

[206] Allen M. Siegel,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권명수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266.

[207] Ronald R. Lee & J. Colby Martin, *Psychotherapy after Kohut* (London: The Analytic Press, 1991), 117.

상담자는 완전할 수 없다. 끊임없이 유아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충분히 공감적이면서도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최적의 좌절'을 제공하게 된다. 상담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기 마련이다. 이때 상담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담자가 바로 잡아 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내담자는 어떤 해도 입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상담자가 잘못을 자각할 수 있고, 후퇴, 격노, 불안과 같은 내담자의 반응을 인식할 수 있다면, 상담자의 실수는 최적의 실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는 이 최적의 좌절을 통해서 상담자에게 기대했던 유아적-환상적 기대감에서 벗어나 상담자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상담자와의 경험을 내면에 받아들여서 건강한 자기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코핫이 말한 '변형적 내면화' 가 이루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에 지루함과 짜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공감적 자기 대상으로서 '현존(presence)' 하며 내담자의 파편화 된 자기에서 분출되는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통제력을 지녀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변형적 내면화의 과정을 통해 응집적 자기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타인의 경험에 공감적으로 응답할 줄 알고 타인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삶의 건조함과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적절한 기쁨과 좌절, 희망과 분노 등을 상황과 관계의 틀 안에서 표출할 수 있게 되는 응집적 자기를 형성하게 된다. 코핫은 자기는 항상 외적인 대상을 요구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 확립되어 이후로는 필요 없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 자기가 있으려면, 항상 그리고 평생,

대상이 필요하고 그 관계에서 자기가 세워진다[208] 고 말한다.

혹여 원치 않는 환경에 의해 자아의 발달을 정지시켜 미성숙으로 남게 함으로 왜곡된 자아가 형성됨으로 대상 관계 속에서 갈등을 유발하게 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지만, 환경이라는 이차적인 요인에 의해 성숙한 자기대상을 만남으로 치료가 가능함이 대상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이다. 코핫은 전이 된 자기 대상과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초기 발달 적 실패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9] 이는 이차적인 환경은 인간에게 주어진 갈등의 관계를 해소할 기회이며 이 갈등 해소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교육은 미성숙에서 시작하여 성숙에 도달하게 하는 목표가 있기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육의 범위는 아동뿐 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포함 시켜야 하기에 기독교 교육에서 부모교육은 반드시 커리큘럼 안에 포함 시켜야 한다. 코핫 역시 유아의 과대 적 자기 표현을 반영해 주고 아동에게 이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한다.[210]

마가렛 말러(Margaret Mahler),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도널드위니컷(Donald Winnicott), 그리고 하인즈 코핫(Heinz Kohut) 대상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공통 된 부분은 유아가 태어나 첫 번째 만나는 대상인 어머니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며 이 어머니의 건강한 육아법은 유아가 건강한 자아발달로 성숙시켜 건강한 대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잘못된 양육은 유

---

[208] 최의헌, “Kohut의 자기 이해,” *기독교상담학회지2 109-110.s 1991* (2001): 117.

[209]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chell, *대상관계이론*, 554.

[210] Ibid., 567.

아가 발달의 미성숙을 가져옴으로 심한 내적 갈등을 갖게 하며 이 내적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왜곡된 자아 형성으로 인해 대상 관계 속에서 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혀 주었다. 이러한 원인에 코핫은 제2차적인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처음 형성된 왜곡된 자아를 치료받을 수 있음도 밝혀 줌으로 갈등의 해소 방법으로 택한 교육이 좋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I. 갈등해소를 위한 임파워먼트 교육

1.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개관

세계문화를 이룬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일 것이다. 이 두 기둥은 하나는 인본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신본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시대적으로 그 교육의 흐름도 변하게 되었는데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흐름은 어떻게 그 변천사를 이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자 한다.

1) 초, 중세 시대의 기독교 교육

초대 교인들은 말씀을 근거하여 교육하며 행하는 일에 생의 초점을 맞추었다.[211] 이들의 교육 방법은 문답식과 대화식이었고 그들이 가르친 교육 범위 역시 복음적 신앙과 이 신앙 전달을 위해 성경이 중심이 되어 교육하였다.

중세 시대엔 수도원에서 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도사들은 자신의 수도 생활 외에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 수도원의 가장 큰 공헌을 꼽는다면 성경사본을 함으로 성경의 높은 문턱을 내려 놓았다는 것에 있다. 사회적으론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 컬럼부스의 대륙 발견과

---

[211] 김득용, *기독교 교육 원론*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23.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상공업의 식민지 확장을 촉진하며 헬라 와 로마 문화 문명이 유럽에 전수되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420 년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은 성경을 민중이 쉽게 접할 기회로 제공됨으로 교육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모든 교육의 중심에 신학이 차지하게 되었다 .

근세로 와서 르네상스 운동과 자유주의 신학의 발전 후 신정통주의 태동은 죄, 계시, 및 은혜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기독교 교육은 교회학교 교육 사업에 눈을 뜨게 되면서 주일학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사조가 현대 사회에 만연하면서 교육은 ‘우리’의 개념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절대 진리는 무너지고 상대주의가 절대 진리라 생각되는 교육 풍토가 되었다. 이러한 풍토 위에 현대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2) 현대 교육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information society) 옮겨 감에 따라 정보처리, 통신,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총체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대는 교육 이론의 초점도 사회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사회 과학의 이론으로서 사회환경에서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 대상 등의 한정 된 영역이 있으며, 모든 교육 현상에 근거한 개념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개념 체계에서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에에 따른 교육 이론을 정립하였고 교육 현상은 '기술, 예언, 설명, 통제'의 네 가지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임파워먼트 교육의 방향은 어떠한 곳으로 흘러가야 하며 교육의 범주는 어디까지 잡았는지 보겠다.

2. 임파워먼트 교육의 시발점

현대 교육은 발달 심리 학자들과 사회 학자들의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해 지면서 유아가 성인이 되기까지 연령별로 성취해야 할 발달의 영역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에 맞는 교육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인간 발달에 따른 세분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인간의 성장은 발달을 하여야 하고 이 발달은 성숙으로 이어지기에 임파워먼트 교육은 인간의 발달 요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 인간 발달 형성

인간은 태어나 끊임없는 발달을 이루며 산다. 육체적인 발달은 한계점이 있지만, 정신적인 발달은 무한하다. 이렇게 자신을 계발하고 발달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인격 변화나 성품 등을 변화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 새로운 개념, 태도, 기술, 문제 해결의 요령 등이다. 발달이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 해 나가며 실패와 성공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며 이것은 발달 또는 성숙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발달이나 성숙은 일반교육뿐 아니라 기독교 교육에서도 교육의 목표로 적용되는 원리이다.

인간의 발달 과정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다. 식별과 통합이다. 반응에 대한 식별은 정화되는 과정이다. 전체에서 부분 운동으로 식별하는 것이다. 통합과정은 부분에서 전체로의 통합 작용이다. 이는 인간 행위가 복합적임을 말해 주며

인간의 발달은 전체에서 부분으로서의 식별 작용과 아울러 부분에서 전체로의 통합 작용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실패와 성취감이 따르고 이 실패와 성취감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타고난 성품에 새로운 것이 형성되어 인격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때 성숙 된 행위란 문화적으로 참여 한 기대이며, 이는 그 주어진 연령에 해야 할 행위를 말함이다.

이러한 발달과 성숙의 이론을 자신의 교육이론에 도입한 교육가가 있는데 파울로 프레이(Paulo Freire)이다. 그는 브라질에서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하면서 인간의 의식화 운동을 통해 문화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의식화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의식화 교육이란 인간이 책임 있는 주체로서 사회 정치 경제적 모순을 학습을 통해 인지하며 역사적 과정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212] 프레리는 억눌린 자, 가지지 못한 자의 의식화 변화는 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인간 해방을 목적으로 삼으며 의식화 교육은 비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본 것이다.[213] 교육을 통한 인간화란 구체적으로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긍정을 하게 될 때 즉 눌린 자 자신들이 압제자의 주인임을[214]스스로 발견하여 주체성의 회복과 함께 압제적인 상황에 개입하여 그것을 변혁시키려는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며 인간 해방 이란 이처럼

[212] Paulo Freire, *Pedage of the oppressed* (New York: Sobury Press, 1970), 10.

[213] Ibid.

[214] Paulo Freire, *교육과 의식화*, 채광석 심지연 공역 (서울: 새밭, 1978), 28.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215] 라고 하였다. 그는 교육을 통해 의식화를 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인간이 발달로 이어짐을 확신하였다.

프레리는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인간이 자신을 비인간화 하는 압박의 상황을 이겨내고 주체로서 자아를 긍정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론적 역사적 사명이다[216] 라고 하며 사회적 갈등으로 부터 오는 인간 해방을 위해 교육을 하였다. 즉 피압제자들의 의식화를 위한 주장이지만 교육을 통해 의식화가 되며 그 의식화는 갈등 해소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인간 해방을 위해 문맹자 교육을 하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의식화(on Conscientização)를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217]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교육을 통해 성숙에 이르게 하는 거시적인 목적이 아니라 현시대를 비판할 수 있는 의식화 운동으로 교육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갈등 해소를 위한 임파워먼트 교육의 지향점은 발달과 성숙이다,
내부적인 요인의 영향과 외부적인 영향이 모두 인간의 발달과 성숙에 영향을 끼친다. 인간발달이론은 임파워먼트 교육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에 인간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과 그에 따른 원칙 그리고 발달과업에 대해 이론적인 것들을 제시한다.

---

[215] Paulo Freire, *Pedage of the oppressed*, 33.

[216] Paulo Freire, *Pedage of the oppressed*, 40.

[217] Thomas C. Sanders, *The Paulo Freire Method,* 박형규 역 (서울: 제 3 일사, 1972), 32.

(1) 발달의 요인과 원칙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유전과 환경,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개인의 유전 정보는 독특하고 특별한 유전자로 구성된다. 인간 발달에 있어서 유전적 영향은 비교적 간접적인 것으로 보고 적절한 환경적 기회들이 유전적 결함들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이들이 있다.[218]

환경적 요인이란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딪치는 모든 자극을 의미한다. 환경적 영향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기적 환경의 영향이다. 임산부의 영양결핍이 태아의 지적 발달의 관계가 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위적 환경의 영향으로 이를 인격적 환경(만남의 환경)과 무인격적 환경(자연과 문화) 등으로 나눈다. 이는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오는 환경적 영향으로 한 인간을 발달시킴에 있어 크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인간 행위의 발달은 유전적 및 환경적 영향들의 합작 때문에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영향은 상호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같은 일란성 쌍생아라도 다른 환경에 의해 발달에 영향을 받으며, 같은 환경적 영향이라도 다른 유전적 영향에 의해 다르게 발달할 수 있다.

또한, 발달엔 개인차가 있다. 첫 번째, 생리적(신체적) 변화와 그의 경험 종류에 의존한다. 두 번째, 각 아동의 심리적 기능들이 그 발달 비율에 있어서 다양 적이다. 읽기, 무게, 키, 치아, 손목, 손 쥐는 힘, 정신연령 등의 발달 비율이 다르다. 세 번째, 발달 연령형이 있다. 인간 발달 단계에 있어서 발달 심리학자들은 청소년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발달 단계의

[218] Donald E. Miller, 고영수, 장종철 역, *기독교 교육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 1988), 108.

상호 의존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발달은 최대에 이르기까지는 계속적 이다. 네 번째 심리학적으로 다른 아동의 환경은 다른 발달 결과를 낳는다.[219] 그러하기에 아동이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기까지는 각 개인은 수행해야 할 과업들이 있는 것이다.

(2) 발달 과업

발달 기간에 있어 개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은 발달을 위한 일반 사회적 기대에 대한 행동형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맥도날드 (Frederick J. McDonald) 교수는 발달 과업의 다섯 가지 특징들을 지적했다.[220] 첫 번째, 어떤 과업들은 모든 문화에 공통적이며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걷는 것을 배우는 과업 같은 것) 두 번째, 어떤 과업의 성격은 특수한 문화와 긴밀히 관련되어있다. (직업선택이나 결혼 연령 등) 세 번째, 어떤 과업은 일생 중 어떤 시기에 한 번만 배워 두면 된다. (걷는 것. 배변 훈련 등) 네 번째, 어떤 과업은 계속적이어서 다른 연령에 새로운 과업의 국면들을 배워야 한다. (성 역할 같은 것) 이 네번째 단계부터는 나라마다 문화적인 여건에 따라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에 교육 과정이 다를 수 있다. 다섯 번째, 어떤 과업은 계속적 이어서 다른 연령에 일어 나거나, 또는 주어진 사회 내에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직업과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사회계층에 따라 다른 것 등).

---

[219] David R. Shaffer, *Childhood & Adolescence*, *발달심리학*,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역 (서울: 시그네프레스, 2002), 64.

[220] Donald E. Miller, *기독교 교육개론*, Quite in, Frederick J. McDonald, *Educational Psychology*, 432.

이를 바탕으로 발달 과업의 실패는 사회 적응의 실패이다.[221] 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한 과업에 대한 실패는 다른 과업을 성취할 수 없고 또한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실패로 빠질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학자가 있다. 헤비거스트(Havighurst)는 연령별 발달과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발달 과업이란 개인의 욕구(need)와 사회의 요구(demand)와의 가교적(架橋的)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일생에서 어떤 시기에 성취해야 할 과업을 의미한다. 만일 그것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면 장차의 과업 수행에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지만, 실패하면 자신의 불행, 사회의 무시, 과업 수행에 대한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달 과업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요구(예:역할기대)와 개체의 의도적인 노력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다.[222]

그에 의하면 발달 과업은 계열 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음 단계의 시작은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을 완수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한 단계의 완성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시간의 한계점이 있으며, 만일 절대 시간 내에 완결하지 못한 과업은 영원히 성취 불가능 한 채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발달 과업론은 서구 사회의 중간계층 집단을 모델로 한 것으로서 특수 집단에 대한 발달 과업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제시하고 있는

[221] Donald E. Miller, *기독교 교육개론*, 109.

[222] http://eunjong.net/bbs/zboard.php?id=note&page=4&sn1=&divpage=1&category=5&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82 (accessed December 15, 2017).

연령에 따른 발달 과업처럼 현대 사회 내에서의 인간 생활이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순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발달 과업에 따른 임파워먼트 교육

임파워먼트 교육의 출발점을 인간의 발달 과업에 두게 된 이유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발달을 통해 개발과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발생은 자연스러우며 이 갈등의 발생 해결점으로 본 연구자 역시 교육을 해결의 방법론으로 택했다.

이러한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할 커리큘럼의 중요성에 대해 김형태 는 인간 발달의 기독교적인 견해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223]

"인간 발달에 있어 기독교 교육으로 세 가지 차원을 생각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발인데 어릴 때는 상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사실적으로 정리하여 더욱 현실적이며 책임 있는 지식을 습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성숙 해 지면 성경적 지식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이것은 의미를 찾는 철학적 또는 논리적 사고이다. 신화 속의 의미를 찾고 종교적 상징들을 통해 종교적 의미를 발견한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 발달 과업이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 임파워 먼트(Empowement)교육의 개념정리

임파워먼트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파워(Power)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워(Power)는 권한과 능력이라는 두 가지

---

[223] 김형태, *기독교 교육의 시초*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0), 111.

의미가 있다. 실제로 Webster 사전은 'empower'의 뜻을 '권한을 부여하다(give authority to)'와 '능력을 부여하다(give ability to)'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임파워먼트란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관리자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실무자에게 이양하여 그들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베드로전서 4:10 절의 말씀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신 말씀을 교회내 에서 이룰 수 있는 좋은 도구라 여겨진다.

사회학에서는 이 임파워먼트란 과업 수행 시 필요한 권한과 기능 그리고 자유를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주는 것을 의미한다.[224] 그러나 본 프로젝트에서 임파워먼트 교육이란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들을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 봄으로써 그들의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의 회복에 중점을 둔다. 이는 예전에 학생 중심이던 교육이 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임파워링시켜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교육은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 하셨던 타락 전의 인간성 회복에 목표를 두기에 죄로 인해 파괴 된

[224] 강영걸, *The Korean Journal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5, No 2 (2003).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 되어 임파워 하는 교육 방법이다.

임파워먼트의 기독교 교육을 도표로 그려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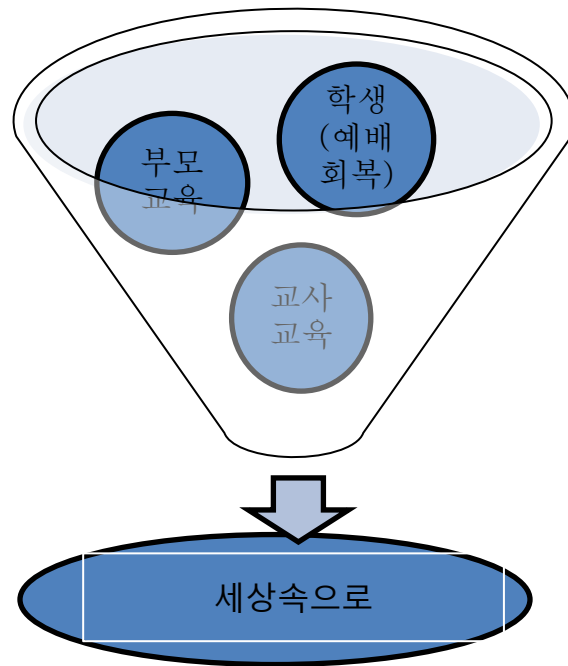



표 1-1

현대에 이르러 기독교 교육의 동향은 3 가지 기류로 흘렀다고 보는데 에큐메니컬 교육운동, 평신도 교육 운동, 그리고 토착화 교육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큐메니컬 교육 운동은 타 교파의 교육적 연합 운동만이 아니라, 타종교와의 교육적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한편 일반종교 교육과의 협력도 아울러 시도하고 있다.

평신도 교육 운동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서 평신도의 훈련이 자유하는 새 인간상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략에 있어서 선교와 교육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세계 교회 협의회와 세계 기독교 교육 협의회 통합이 이런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토착 교육 운동도 에큐메니컬 운동의 한 연장으로 이것은 인간 해방을 위한 의식화 교육이며, 민주적 문화적 또는 시민적 확립을 위한 선교 교육 운동이다. 이러한 현대의 기독교 교육은 사회적인 면에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라에 치우친 바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은 미숙한 부분이 보여진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대중사회, 대중 민주주의, 대중문화의 상업성, 폭력성, 선전성, 개성의 상실과 획일화, 통신 발달로 세계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량이 증가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독교 교육 목적 역시 과거의 지식 함양이나 정신훈련 그리고 성격훈련 등에서부터 전인 양성, 원만한 생활 등으로 그 양상이 달라졌으며, 형이상학적인 국면에서부터 좀 더 사회의 실용적 필요에 관련된 것으로 변천케 되었다. 이는 인간의 행동적 변화를 목표로 해서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임파워먼트 교육도 학생에게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를 모두 교육의 장으로 묶어 지식 전달이 아닌 어우러진 교육을 함으로 행동적 변화를 목표로 두되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 되게 하는 데 있다.

임파워먼트 교육은 동기 부여와 적절한 보상이 함께 행해져야 한다.

지도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보다는 선생들의 은사에 따라 또는 부모의 은사에 따라 그들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힘을 분배해 줘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는 행사가 다 끝날때 까지 기도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어느 부서가 약한지 살펴보아 지원도 해 줌으로 그들이 능히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행사 후 항상 평가를 통해 격려와 보상을 부여해 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임파워먼트 교육이다. 이렇게 임파워먼트 교육이 실행되기까지는 지도자는 부모와 교사에 대한 선행 교육이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이 없이는 임파워먼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지코 교수는 기독교 교육을 인간의 위대한 창조자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 지도된 말씀에 기초하여 인간들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비판적 검사와 재건으로 보았다.[225] 여기에 나타난 대로 그는 기독교 교육을 인간관계의 재건 또는 인간 생활의 재창조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에게 중심을 둔 성격 개조와 도덕 교육을 강조한다.[226]

밀러(Randolf, C. Miller)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고 또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며 또 인간이 모든 생활 부분에서 기독교의 근본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있다[227] 라고 하였다.

---

[225] 김형태, *기독교 교육의 시초,* Quite in kendig B Cully, ed, *Basic Writings in Christian Education*, 338.

[226] 김형태, *기독교 교육의 시초,* 72.

[227] Miller Randolf Crump, *The Clue to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1950), 8.

(2) 임파워먼트 교육의 주요학습 이론들

A) John M. Keller 의 동기부여 이론

임파워먼트 교육은 인간의 발달을 시발점으로 교육을 하기에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기(motivation)라는 용어는 라틴어 동사‘movere (움직이다)’에서 기원한다. 움직임(movement)이라는 개념은 개인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임을 유지하며, 개인의 과제 완수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동기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다.[228] 개인을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임은 개인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동기의 개념은 일반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교육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보조직과 현대사회’라는 책에선 동기 부여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동기 부여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을 유지하며, 나아가 그 행동을 목표 지향적인 방향으로 유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29]

이 동기 부여에 관한 연구는 각 대학, 각 기관마다 과제를 성취함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동기 부여에 대한 연구, 발표 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중에 동기 부여에 대한 많은 연구 논문을 읽고 결론을 내린 것을 하나 본다면 동기부여 (ARCS) 전략을 적용한 가정과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하며, 가정 교과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가 학습자의 동기적 특성에 따라

[228] Schunk Dale H•Pintrich Paul•Judith L.Meece , *학습동기 이론 연구 그리고 지원*, 신종호 역 (서울: 학지사, 2013), 26.

[229] 이창원, 명승환, 임영제, *정보사회와 현대조직* (서울: 대영문화사, 2005), 378.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등의 학습 동기 전략을 수업에 적용한다면 수업에 대한 학습 동기의 향상뿐만 아니라 교과에 대한 태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30] 라고 하였다.

동기 부여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이 많지만, 본 연구자는 동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교수설계이론을 만든 켈러(John M. Keller)의 이론들을 살펴보겠다. 그는 ARCS 라는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ARCS 모델의 'ARCS'는 각각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의 첫 글자로 이루어진 약어이다. 이 ARCS 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을 지도 함에 있어 좋은 교육 도구가 될 수 있기에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 보겠다.

a. 주의집중 (Attention)

주의집중 전략은 호기심, 감동, 그리고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각적 주의환기, 탐구적 주의환기, 변화성에 의한 주의환기의 세 가지의 하위 전략들이 포함된다.

지각적 주의환기 전략은, 새롭고 놀라우면서 기존의 것과 모순되거나 불확실한 사건 또는 정보를 수업 상황에서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를 유발하고 유지시킨다는 전략이다. 지각적 주의환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애니메이션, 삽화, 역상문자, 도표, 그래프, 음향 및 반짝거림 등의 시청각 자료의 활용과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이나 사건, 믿기 어려운 통계 등의 제시,

[230] 유미숙, "동기유발(ARCS) 전략을 적용한 가정과 수업이학습동기 및 교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지나친 지각적 자극이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자극 등을 피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이 있다.

탐구적 주의환기 전략은 학습자에게 스스로 문제나 질문 등을 만들어 보도록 함으로써 정보 탐색 활동을 자극하고 문제 해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전략을 말하는 것이다. 일단 지각적 주의환기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끈 후에는 더욱 심화된 수준의 호기심을 유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학습자를 보다 탐구적인 과정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탐구적 주의환기를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응답-피이드백의 상호 작용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능동적 반응을 유도하거나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 해결활동을 구상하게 하고, 탐색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지식은 부분적으로 제시하는 신비감 제공 등의 방법이 있다.

변화성의 전략은 수업의 요소들을 변화시킴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지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수업 진행 전개 순서상의 변화를 의미하거나 정보가 조직되고 제시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변화성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수 단위를 간결하고 짧게 하며 정보제시, 연습, 시험 등의 다양한 형태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과 일방적인 정보제시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 등과 같은 교수. 학습 방법을 적절히 혼합한 수업 방법의 활용, 수업 자료의 적절한 변화, 수업 목표와의 기능적 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b. 관련성 (Relevance)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이 유발된 후에는 그들이 학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수업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필요를 지각하게 된다. 학습자가 수업활동 중 어떤 개인적 필요,즉 관련성을 지각하지 못한다면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관련성 요소에서
왜 내가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해답을 Keller 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답하고 있다. 첫째,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수행하는데 현재의 학습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둘째는 학습 그 자체에서 가치를 알고 즐거움을 찾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며, 셋째는 결과보다 학습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방식이다. 학습의 과정이 개개인 학습자의 요구나 특성에 맞게 전개되어 학습자가 학습의 관련성을 지각할때 동기는 유발되고 유지될 것이다. 수업의 과정에서 관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에는 친밀성 전략, 목표 지향성 전략, 필요나 동기와의 부합성 강조 전략 등이 있다.

친밀성을 위한 전략은 학습자의 경험과 가치에 연관되는 예문이나 구체적인 용어, 개념 등을 사용함으로써 학습동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친밀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흥미있는 언어와 그래픽, 친숙한 이름, 인물, 그림 등을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실례의 활용과 친밀한 예문이나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목표 지향성의 전략은 유용성을 나타내는 진술이나 예문을 제공하거나 성취 목표를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전략이다. 목표 지향성 전략의 구체적 방법으로 학습 과제의 중요성이나 실용성에 중점을 둔 목표의 분명한 제시, 학습자에게 학습 활동 자체의 목적을 제시해 주기에 용이한 게임,

시뮬레이션 등의 학습 형태 이용, 학습자에게 다양하게 제시된 목표 중에서 스스로에게 적합한 목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필요나 동기와의 부합성 강조 전략은 교수의 과정 또는 방법 측면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언제, 어떻게 학습자의 학습 양식과 개인적 관심에 수업 전략을 연결시키느냐에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목표 수준의선택 가능성을 부여하거나 성취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학업 성취 점수 체제를 활용하는 방법, 소속 욕구가 높은 학습자의 동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경쟁적인 게임 참여나 비경쟁적인 학습 상황의 선택 기회 제공, 두 사람 이상의 학습자들이 협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c. 자신감 (Confidence)

자신감 요소는 학습자들이 학업 수행을 계속하도록 영향을 주며 학업 수행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기의 요소로 중시되고 있다. 여기서의 자신감은 성공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성공에 대한 기대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실수를 하여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학습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학습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학습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능과 지식을 숙달한 후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그들의 성취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도전감과 모험심을 주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는 학습의 필요 조건 제시 전략, 성공 기회의 제시 전략, 개인적 조절감 증대의 전략 등이 있다.

학습의 필요 조건 제시의 전략은 학습자에게 수행의 필요 조건과 평가 기

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성공의 가능성 여부를 짐작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수업의 목표와 구조를 분명하게 제시하거나, 피이드백과 함께 연습의 기회 제공 및 평가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는 방법, 학습자의 성공을 돕기 위해 선수 지식과 기술, 태도 등에 대한 분명한 진술문을 제공하거나 학습자에게 시험문제 수, 시간 제한 등의 시험의 조건들을 알려주는 방법 등이 있다.

성공의 기회 제시의 전략은 학습 과정과 수행의 조건에서 의미있는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도전감을 제공해 주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수업을 조직하고, 너무 지나친 도전과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의 필요 조건과 지식, 기술을 부합시켜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다양한 수준의 출발점을 제공하며, 시간, 자극의 속도, 상황의 복합성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개인적 조절감 증대의 전략은 성공에 대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을 지원 해줄 수 있는 피이드백과 조절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언제든지 학습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돌아오고 싶을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학습의 전 상황으로 가서 복습도 할 수 있게하는 방법과 학습자가 다음 내용으로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 속도조절 기회를 주는 방법, 학습자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학습과제와 난이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게 수업을 조직하는 방법, 학습자의 성공을 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돌리도록 유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d. 만족감 (Satisfaction)

동기의 한 요소로 만족감이 강조되는 이유는 학습자의 노력의 결과가 그들의 기대와 일치하고 학습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만족한다면 학습동기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이는 학습자의 학업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족감은 학습의 초기에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소라기보다는 일단 유발된 동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Keller 는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학습의 내적 결과와 외적 결과로 구분하였다. 내적 결과에는 학습자의 학업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기타 내적 보상이 포함되며, 외적 결과에는 강화와 피이드백이 포함된다. 만족감 증대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내재적 강화, 외재적 보상, 공정성 강조 전략 등이 있다.

내재적 강화 전략은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지시키기 위해 학습자가 새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실제 또는 모의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방법은 새롭게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연습 기회를 제공하고, 새롭게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다음 후속 학습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어야 하며, 흥미있는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의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모의 상황이나 게임 등을 수업 끝에 첨가시켜 적용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외재적 보상 전략은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성공적인 학습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 피이드백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행동주의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외적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231]

공정성 강조 전략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준과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학습자의 학업 수행에 대한 판단을 공정하게 함과 동시에 성공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의 강화가 기대한 대가로 주어져야 함을 암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수업 내용과 구조가 제시된 수업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고, 연습한 내용과 평가의 내용의 일치, 연습과 시험이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232]

이처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동기유발을 하는 것은 교육방법 중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켈러(John M. Keller)의 교수설계이론을 교사교육의 학습이론과 교안작성 서식을 만드는것에 참고하였다.

B) 교육가들의 교육철학

교육 철학은 교육적 과정을 가능케 하기 위한 사색적, 규범적, 그리고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철학적 기초를 필요로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기능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인간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철학적 물음에 대한 대답이 없이는 교육적 과정은 비현실적인 것이 될 우려가 큼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 교육이 성경 중심 교육 정책을 사용하여 현실 생활의 문제나 철학적

[231] David R. Shaffer, *Childhood & Adolescence*, *발달심리학,*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역 (서울: 시그네프레스, 2002), 61.

[232] John M. Keller "Development and use of the ARCS model of instructional design," *Journal of Instructional Development, 10(3)* (1987): 2-10.

물음에는 상관없이 단지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지식 전달을 위한 기술적 방법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키는데 실패하는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철학적 물음에 대한 신학적 해답을 시도하는 것이다. 임파워먼트 기독교 교육을 위해 본 연구자는 장 자크루소(Jean-Jacques Rousseau)와 죤 듀이(John Dewey) 그리고 기독교 교육가라 할 수 있는 코메니우스(Iohannes Amos Comenius)의 교육 철학을 임파워먼트 교육에 기초로 삼았다.

a. 루소(Jean-Jacques Rousseau)

루소는 학습자가 원래 선하다는 데 역점을 두었고[233] 훌륭한 시민인 자연인에 초점을 두었던 그 당시(18 세기) 사회적인 배경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영토와 세력 확장을 위한 각축전으로 사회의 혼란과 사치스러운 상류사회에 비해 민중은 비참한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 했다.[234]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왜곡 된 모습을 본 루소는 왜곡되지 않은 인간인 자유와 평등을 지닌 자연인으로 돌아 가는 것 만이 인간의 행복으로 보았다.

루소가 주장하는 교육은 학습자가 자연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잠재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것이라 한다. 이는 그의 교육 철학이 되어 교육의 목적을 자아개발을

---

[233] Jean Jacques Rousseau, *Ėmileoudel'ėducation* (1761), *루소에밀,* 권응호 역 (서울: 홍신문화사, 1987), 66.

[234] 안호상, *루소* (서울: 대양서적, 1970), 16-17.

통해 자신의 행복을 자기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유인의 육성에 있었다. 이는 기독교 교육의 완성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 생각한다.

그는 모든 교육 활동의 중심을 어린이에게 둠으로 어린이가 갖는 미성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린이가 부모, 교사, 사회에 의존하여 더불어 상호 교류하고 성장이 변용되어 인격을 완성하도록 하되 자연에 따른, 자연적 법칙에 따라 자연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에 교육의 초점을 두었다.

그의 교육 방법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른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을 적용한다. 이때 교사는 소극적인 자세로 학습자의 자발성, 흥미, 그리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자의 본성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의 교육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루소가 말한 발달단계에서 얻는 적절한 경험과 동시에 자연적 능력과 조화를 이루는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을 교육으로 보았기에 어떤 학설이나 추론에도 구애받지 않고 단지 관찰을 중요시하고 있다.[235]

이 교육 방법은 임파워먼트 교육에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성경은 크리스천에겐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고전 12:4~7), 그 은사는 다양하기에 지도자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해 줄 때 학습자는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계발할 수 있다. 개발된 자신의 은사에 따라 임파워먼트 교육 목적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할때 도구로 사용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루소의 교육 방법에서 공로가 있다면 어린이를 단순히 어른과 비교하여 어른의 축소 물이나 미성숙한 어른으로 보는 견해가 아닌 어린이 개체로 어린이

---

[235] 안인희, *루소의 교육론* (서울: 양서원 1990), 15-16.

에서 어른으로 성장 과정이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 고유한 특징을 탐구하여 그 특징을 이해하며 각 단계에 맞는 교육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에 있다.[236] 이러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사상은 현대 교육에서 심리학적, 과학적, 사회학적 기저가 되는 학설로서 다른 어떤 교육 운동보다도 인간 교육의 정신과 목적 및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237]

b. 존 듀이(John Dewey)

듀이는 교육을 지식 교과의 전달이 아니라 생활의 필요, 사회기능, 지도, 성장. 경험의 개조 등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교육이란 유희와 작업과 지적 활동의 결합을 통해 경험을 개조시켜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주요한 교육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교육은 생활에의 준비가 아니고 생활 그 자체임을 명시하면서 환경 속에서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능력인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즉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제안한다.[238]즉 교육이란 생활이며, 성장이며, 계속된 경험의 재구성이며, 사회적 과정이라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239] 라고 한다.

듀이의 교육 철학은 과학과 과학적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듀이에게 있어서 모든 사상은 철학까지도 실천적이다. 따라서 교육 철학은 교육 실천의 이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듀이는 실험 학교를 통해서 아동을 억압하는 모든

---

[236] 안인희, 정희숙, 임현식,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21.

[237] 손인수, *교육철학 연구* (서울: 문음사, 1986), 145.

[238] 임한영, *듀이 교육사상 연구* (서울: 민중서관, 1974), 18.

[239] 구광현, 권건일, 김승권, 이종숙 공저, *교육학 개론* (경기도: 양서원, 1994), 109.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그 이전까지의 교과와 교수 활동을 다 거부하였다. 그 결과 근대적인 아동 중심 교과 과정은 실험 학교를 통해서 처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240] 듀이는 인간의 경험이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면서, 이때 환경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경험의 양과 질이 크게 좌우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성장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문화, 다양한 물리적 환경 등의 개입을 필요로 하며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시한 존 듀이의 교육 방법론을 보면 지속성의 원리와 상호작용의 원리를 통해 습관이 형성되고 이 습관은 아동의 성장뿐 아니라 성숙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지속성의 원리는 이전 경험과 이후 경험의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연속으로서 모든 경험은 앞서 지나간 경험에서 무엇인가 영향을 받으며 그 이후에 하게 되는 경험의 질을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241] 습관의 기본 성격은 행하고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이 그 경험을 하고 겪는 사람의 성품을 형성하기에 경험의 질에 중점을 두기를 듀이는 강조하였다.

교육적인 의도에서 준비의 참된 의미는 자신이 경험하게 될 때 그동안 경험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심어 준다는 것이다.[242] 교육은 끊임없는 현재의 과정이어야 하며, 미래에 대한 좋은 영향을 주는 현재 경험의 여건을 마련 할 책임은 성숙자인 교육자에게 있게 된다.

---

[240] 이형행, *교육학개론* (경기도: 양서원, 1999), 95.

[241] 박영환, “J. Dewey 경험교육설의 재고,” *부산대학교 교육논문집 제 10 집* (1983): 35.

[242] Ibid., 49.

이 듀이의 교육 방법은 임파워먼트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지식의 적용을 통해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에 적용케 함으로 교육자인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그들의 교육이 왜 중요 한지에 대한 교육 철학에 적용하였다.

존 듀이는 교사를, 훈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으로 보았기에 "교사는 자기 직업에 대한 존귀성을 깨닫고 적절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올바른 사회의 성장을 도모하는 특별한 일을 담당하는 사회적 공복이다."[243] 이는 교사의 사명을 오늘날 성직자의 사명과 동등 되게 취급하였다. 듀이가 말하는 교사는 언제나 신의 참 예언자요, 신의 왕국으로의 안내자이다.[244] 라고 하였다.

듀이의 교육철학이 교육의 실천에 있듯이 경험주의 교육방법은 임파워먼트 교육방법에 영향을 주었다. 존 듀이의 지속성의 교육원리는 많은 깨달음을 주었는데 교육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이룰 수 있기에 부모들의 경건 훈련을 강조하는 도구가 되었다.

c.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그리고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세계는 이제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실천한 이가 바로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이다. 코메니우스는

[243]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and The Free Press, 1916), *민주주의와 교육,* 이홍우 역 (서울: 교학사, 1996), 87.

[244] John. Dewey, "My Pedagogic Creed, Personal Growth Leaflet 19, " *N.E.A.* (Washington, D.C., 1897): 72-74 항.

당대의 미로와도 같은 세상에서 마음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의 피조물로 지음 받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 회복이 중요 함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직시하고, 교육을 통해 어둡고 불완전한 세계 속에 빛의 길을 놓아 완전하고도 영원한 곳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교육한 교육가이다. 이 코메니우스 역시 인간성 회복의 목적에 교육을 도구로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지식과 덕성과 신앙의 씨앗은 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숨겨져 왔다. 그러나 실제적 지식과 덕성과 신앙 자체는 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기도와 교육과 행함으로 습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으로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적당한 교육을 통해서이다.[245] 라고 하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교육의 대상이 인간이기에 인간에 대해 알아야 한다. 코메니우스의 인간 이해론을 보면 첫째, 인간은 관계성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둘째, 인간은 거울과 같은 존재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이다.[246] 셋째, 인간은 이성적 존재임과 동시에 지성적 존재이다. 코메니우스는 전지(全知)는 하나님의 주된 속성임과 같이 인간 속에는 전지의 어떤 형상이 반드시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47] 코메니우스는 이를 범 지혜(Pansophia)로 이해하였으며,

---

[245] John Amos Comenius (1657), *The Great Didactic*. Translated by M. W. Keatinge (New York: Russell & Russell, 1967), *대교수학,* 정확실 역 (서울: 교육과학사, 2013), 63.

[246] Ibid., 51.

[247] Ibid.

범지혜를 소유한 인간을 가리켜 '합리적인 피조물' 이라 하였다.[248] 넷째, 인간은 창조세계의 책임자이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은 창조세계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게 되어 모든 피조물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은, 창조세계가 그 합법적인 목적에 따라 나아가며 목적한 바대로 성취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249] 다섯째, 인간은 조화로운 존재이다.[250] 여섯째, 인간은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역시 영원을 지향한다.[251] 일곱째,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어느 특정한 성(性)과 계층과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모든 창조세계가 그렇듯이, 모든 인간 역시 같은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인간 사이에 어떤 구별도 두지 않으셨다.[252] 그는 또한 어린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사랑이 결코 성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253] 이런 그의 인간 이해론은 교육에 상당한 혁신을 가지고 왔다. 그 당시엔 특정인들을 위한 교육의 대상이 여성들에게도 부여 해 지고 어린이들 역시 하나의 인격체로서 취급되도록 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할 수 있다.

---

[248] Ibid., 45.

[249] Ibid., 46.

[250] Ibid., 56-57.

[251] Ibid., 35.

[252] Ibid., 81.

[253] Ibid., 24.

코메니우스가 인간에 대한 개념들을 열거하며 인간은 결코 교육 없이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교육의 필연성에 대해 강조한 것은, 인간은 교육 받을 수 있는 동시에 교육을 해야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어디서나 갈등을 접할 수 있으며 이 갈등은 교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끌려 나오기를(educatio) 원했으며, 다시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고 본래의 자리에 세워지기를(institutio) 바랐던 것이다.[254] 코메니우스는 그의 '범교육(Pampaedia)'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255]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관계를 전체적이고도 보편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통하여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교육가의 교육사상 및 철학은 기독교 교육으로 임파워먼트 교육을 제시하는 본 연구자에게 있어서 너무도 좋은 표본이었으며 임파워먼트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교회의 갈등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었다.

(3)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

이 임파워먼트 교육을 특히 교회학교에 적용한 3 가지 이유가 있다.

---

[254] 정일웅,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 사상 연," *신학지남 62 (2)* (신학지남사. 1995): 214.

[255] John Amos Comenius, *Pampaedia Allerziehung*,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 정일웅 역 (서울: 그리심. 2008), 54.

첫 번째는 학생으로 교육학적으로 유아기와 아동기에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256] 이 시기엔 모든 것이 형성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는 단계이기에 임파워먼트 교육의 장으로 삼았다.

두 번째는 교사로서 물질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은 가정에서 있는 시간 보다는 밖에서 보내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므로 당연히 가족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정 자체의 중심인 가정예배라든지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257]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게 되었고 주일학교 교사는 '평신도'로서,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직접 학생들을 접하며 그들의 신앙과 삶에 관여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중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사명은 중차대하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 역할의 맥락 속에서 교사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는 가르침의 대상으로서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둘째는 학생들과 그들의 언행에 대해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의 부재이다.[258]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임파워트 교육은 교사교육을 강조하게 되었고 교사의 교육은 임파워먼트 교육의 한 요소가 된 것이다.

---

[256] David R. Shaffer, *Childhood & Adolescence*, *발달심리학,* 549.

[257] 김득용, *기독교 교육 원론*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123.

[258] 윤석준,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 가지 성경 이야기 1*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308-311.

셋째 이유는 교회학교는 베이비 씨터의 교육기관이 아니다. 가치관이 성립되는 시기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본다. 일반 사회 학교에서는 결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행여 가르친다고 해도 지극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발견하게 된다. 일반 사회 학교에서 1 년에 약 1,190 시간을 가르치고 있으나 신앙적인 교과는 한 시간도 없으니 아이들의 신앙적인 교육은 어디에서 누가 지도할 것인가?[259]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곳은 교회학교에서와 믿는 부모만이 아이들의 영적 생명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교회학교의 위치는 다시 부각 되어야 하며 각 교회 담임목사님들은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윤석준은 교회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개혁주의 교회론 안에서 이해될 때 주일학교는 각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260]

(4) 임파워먼트 교육의 방향과 목적

임파워먼트 기독교 교육의 방향은 부모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지도함으로 학생들에게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여는 것이다.

---

[259] 김득용, *기독교 교육 원론,* 124.

[260] 윤석준,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 가지 성경 이야기 1,* 308-330.

임파워먼트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데 있다.

스마트(James, D. Smart)의 교육사상을 보면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이 교육에도 주력해야만 되고 교육은 교회 본질에 속하는 일이라 말한다.[261] 이에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은 통제가 아니라 사랑 안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이 진리에 대해 순종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 해야한다 라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장을 마치면서 기독교 교육은 다시 리폼(reform)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파워 (empower) 되어야 하며, (비록 이 단어가 세상에서 먼저 사용 된 단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야 말로 지극히 기독교적인 단어라 본다) 주안에서 다시 임파워먼트 된 우리가 되어야 사회 속에서 그리고 내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임파워먼트의 교육과정은 계속해서 계발되고 실행됨으로 기독교 교육을 통해 미발달 된 인간성을 성숙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61] James, D. Smart,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60), 1.

VII. 임파워먼트(Empowerment) 교육실행

1. Site Team

임파워 먼트 교육프로그램을 실행 할 때 함께 하는 구성 요인이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는 새 시대 교회[262] 에서 11 월 4 일 2016 년 부터 10 월 29 일 2017 년까지 실행하였으며 Site Team 을 구성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Site Team

이름	교회직분	직업	나이
김정원	집사	Home Maker	60s
Hellen Kim (김현주)	집사 및주일학교교사	Facial Artist	40s
송영수	집사	Home Maker	30s
Paul Ahn	주일학교 교사	Office Worker	20s
Takashige Ito	주일학교 교사	College Student	20s

표 2-1

[262] 57-04 Roosevelt Ave., Woodside, N.Y. 11377.

위의 Site Team 들은 임파워 먼트 기독교 교육을 새 시대 교회에서 11 개월 동안 실행하면서 소중한 동역자로 함께 해 주었다.

싸이트 팀 중 김정원은 교회의 오래된 구성멤버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동안 교회를 파악하는데 객관성을 가지도록 조언을 아끼지 아니했으며, 김현주 역시 교회의 오래 된 멤버로 필자가 새 시대 교회를 가기 전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던 부장급 선생이었고 교회의 전체적인 일들을 남편과 함께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의 중심 일꾼들이다. 송영수는 주일학교 아이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아이의 엄마로서 여전히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남편은 교회는 나오지만 본 어개인 되지 않은 출석 교인이어서 영적으로 힘들어한 상태이었다. Paul Ahn 선생은 1.5 세 영어권으로 주일학교에서 교사와 반주자로 봉사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로도 봉사하고 있었다. Takashige Ito 선생 역시 영어권 선생으로 다방면으로 주일학교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어른들을 라이드 하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다. 그는 주로 영어 찬양을 담당하면서 찬양지도와 그 역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수고하고 있었다. Site Team 중에 김정원만 제외하고 네 사람은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동안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임파워먼트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이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실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Site Team 팀을 부쳐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2. 임파워먼트 교육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는 위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기독교 교육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두었다.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대상으로 연관된 교사와 부모들도 함께 교육이 되어야만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11 개월 부모와 어린이와 교사에 중점을 두어 본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1) 부모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아이들의 독창성과 능력을 훼손하는 교육방안은 검증을 거치지 않고 빠른속도로 사회로 번져 나가 인간의 고귀한 인간성은 말살되고 경쟁력이나 물질만능 이라는 잘못된 인생 목표가 일률적으로 정해짐으로 아이 들은 어른이 설정해 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태 속에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고민이다.

부모의 의식 변화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했던 교회에선 그 교회의 부모에게 맞는 교육안을 만들어 한 달에 한번 한 시간씩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부모교육을 매달 하였는데, 2017 년 3 월부터 매월 둘째 주에 10 시부터 10 시 50 분까지 모임을 가진 내용이다.

부모 교육 일정표 (March 19-Oct.19, 2017)

날짜	교육 내용	참여도	평가
Mar.19 Sunday 10:00am	해야 할 교육 과정 소개 및 에릭슨의 8 단계 발달과정	100%	모두 진지하게 feed back 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이 이루어야 할 과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었다.
Apr.9 Saturday 7:00 am	아이들의 프로그램인 Follow Jesus 를 함께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아침준비와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짐.	프로그램 성격상 나이가 어린 아이는 참석할 수 없어유년부 이상의 부모만 참석	집이 아닌 교회에서 밤을 새운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며 부모들끼리의 교제시간을 가짐.
May 21 Sunday 10:00am	John B Watson 의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	100%	행동심리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아이들 양육의 방법을 알게 했다.
Jun. 25 Sunday 10:00am	Baumrind 의 자녀교육 유형에 대해	100%	자신들의 교육방법이 어느유형에 속하는지 알게 했다.
July. 16 Sunday 10:00am	자존감있는 아이로 키우기	100%	이론을 짧게 하고 자신들의 자존감에 대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Aug. 13 Sunday 10:00am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100%	자존감있는 아이로 키우기 이론나눔
Sep. 10 Sunday 10:00am	묵상하는 법	100%	부모모임마지막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때의 유익성을 나눔.

표 2-2 부모교육

3 월 첫 번째 시간으로는 부모의 의식 고취를 위해 인간의 발달에 관한 과목으로 인간의 성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습득해야 할 학습을 발췌하되 현재 부모들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것을 발췌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함으로 현재 무슨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그 부분을 집중 돌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 서로 양육 방법도 나누게 함으로 방어 및 양육의 지혜를 배우게 하였다.[263]

4 월 두 번째 시간엔 아이들 프로그램인 Follow Jesus 에 참석하게 함으로 아이들과 밤을 새우고 자신의 아이들만이 아닌 다른 아이들의 아침도 정성껏 만들어 격 있는 아침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5 월 세 번째 시간엔 John B Watson 의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 나누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상벌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함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의 동기부여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먼저 키운 엄마들의 자녀교육 경험담을 듣게 함으로 자녀 양육에서 가져지는 혼란함을 서로 나누게 하였다.

6 월 네 번째 시간엔 Baumrind 의 자녀교육 유형에 대해 나누면서 자녀 양육에 있어 허용적-익애적 유형(permissive-indulgent style), 권위주의적 유형(authoritarian style)과 권위 있는 유형(authoritative style)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각 부모-자녀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자녀의 성격특성, 사회성 및 지적 특성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터치해 주었다.

[263] 교재는 Appendix 에 넣어둠.

7 월 다섯 번째 모임에서는 자존감 있는 자녀로 키우기의 주제로 자신의 자존감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은 짧게 하고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현재 자신의 자존감을 만들었음을 보게 하였고 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하였다.

8 월 여섯 번째 모임에 7 월의 부모교육의 연장으로 자신의 자존감 형성과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 교육하였다.

9 월 일곱 번째 모임을 마지막으로 부모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 묵상의 유익과 혼자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였다. 이는 부모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경건의 훈련을 부모교육에서 깊이 다루어 주어야 부모들 간의 교제와 불화한 가정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

2) 교사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1) 동기부여

일주일에 학생들을 거의 한 번만 만나는 교사들이지만 이 교사들의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 확연히 달라진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날마다 함께 있는 부모들에게 받는 영적인 영향력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나는 주교 교사들에게서 받는 영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학교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천하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나에게 맡기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신뢰함

이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술들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속에서 역사하기에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사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측근에서 할 수 있기에 복 된 일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주교 교사 모임을 할 때마다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의 특권에 관해 이야기 하며 칭찬을 통해 마음을 열었다.

(2) 교사훈련

임파워먼트 기독교 교육을 위해선 교사훈련이 필요하다.

교사 훈련에 있어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영성훈련인데,

이 영성훈련을 위해서는 기도훈련과 묵상훈련 그리고 자신이 드리는 예배 훈련을 함께 함으로 교사들 간의 영적인 결속력을 갖게 하며 협동 행동을 개발 해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이 21 세기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에 이 훈련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선 교사들은 반드시 이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이 훈련이 모든 교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지도자는 인내해야 한다.

두번 째는 교사들의 전문성 훈련이다.

각반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적어도 자신이 맡고 있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나이에 성취되어야 할 발달과업이 무엇이며 미성취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선 숙지하고 있어야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때도 지도자는 각반 선생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아이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과정 관리 기술인데 이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 교안작성을 준비하고 교사 모임을 할 때 서로 자신이 준비한 교안들을 나누게 한다. 이때 얻어지는 유익은 자신이 미처 몰랐던 교수법을 익힐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발표함므로써 준비한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어 아이들을 지도할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안을 작성하여 아이들을 지도 할 수 있다면 교안[264] 을 작성하기 위해 하루 전날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고 방향 없이 그날의 기분에 따라 시간을 매꾸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는 지도자가 교사 교육의 프로그램에 상담의 기술을 넣어 교사들이 아이들과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도자는 교사들이 적어도 각반 아이들의 인적사항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264] 교안 샘플은 appendix 에 넣어 둠.

이것을 도표로 그려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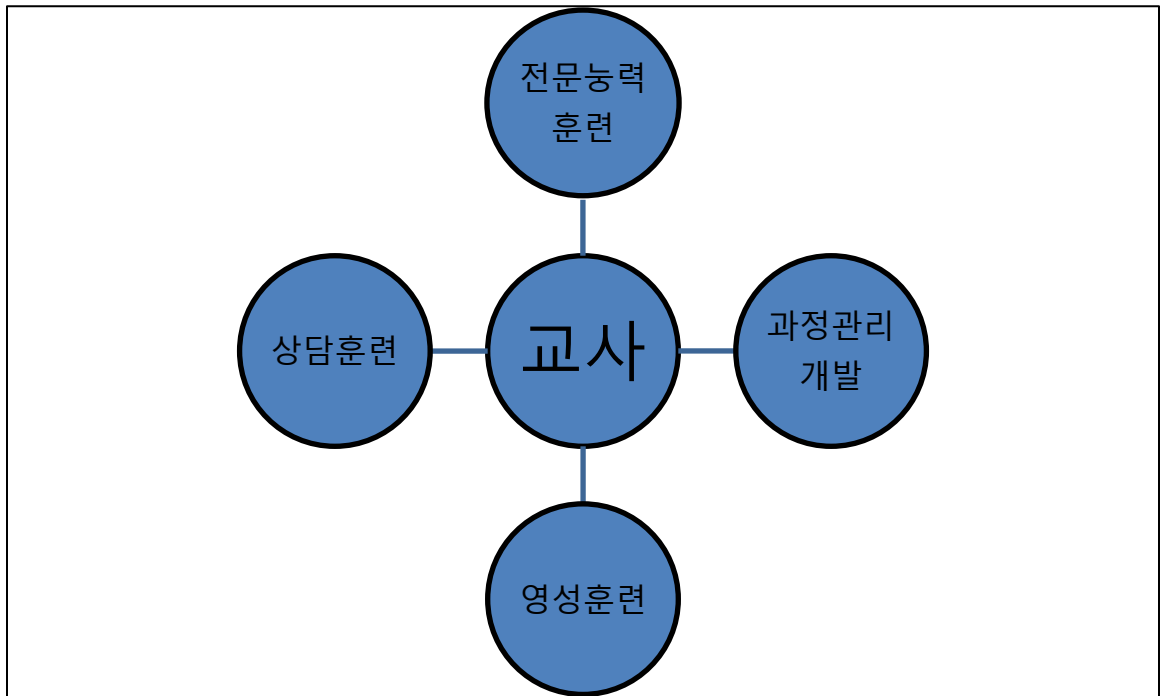



표 2-3 교사 교육

이러한 교사 훈련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 할 때 사탄의 많은 공격과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걷을 수 없다고 본다.

교사들은 헌신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지도자들은 교사들을 돌보되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기도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준비 없이 학생들을 맞이하며 가르치는 것은 총알 없이 전쟁터에 가는 것과 같다.

3) 어린이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1) 예배준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회를 생각하는 의식은 참으로 막연하다. 하나님에 대해선 자신의 하나님이기보다는 부모가 믿으니까 세뇌 되어진 막연한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부모의 반강요와 부모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참석해 주는 정도이다. 요즘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대답이 교사와 부모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지 알기에 진정이 담기지 않는 앵무새 같은 대답을 듣고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확신하면 안 된다.

이러한 아이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목표로 먼저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줌으로 부모에 의해 막연히 알던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 어린이들 하나하나에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알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은 어린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예배의 중심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알기에, 이 모두는 본 연구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져야 가능할 수 있기에 토요일부터 예배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어린이 예배라 할지라도 기원과 찬양과 말씀 그리고 헌금 성경 말씀 암송과 광고 및 축도가 예배순서에 들어가도록 순서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드리는 헌금의 헌금 봉투를 아이들 스스로 만들게 하면 토요일부터 아이들은 예배를 준비하게 되지만 본 프로젝트를 실행한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였다.

(2)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월	행사	내용	비고
Jan	신년하례, 부모와의 만남 어린이 대심방	전교인들과의유대관계와 어린이 신상파악	심방예산
Feb.	어린이 신상기록부 정리. 부모와의 만남 , 교사교육		
Mar.	환경정리, 부모교육		예산
Apr.	Follow Jesus, 교사철야 Spring P.T.A 부모교육, 여름성경학교준비	여름성경학교 주제와 준비시작	예산
May	성경이야기잔치,어버이주일발표, 여름성경학교준비,교사훈련, 부모교육	부모교육과 교사훈련에 집중	상품준비
Jun	졸업축하예배, 여름 P.T.A 부모교육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교사교육	부모교육과 교사훈련에 집중	졸업선물 준비
July	여름성경학교 준비, 부모교육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구체적인계획	
Aug.	여름성경학교, 부모교육		예산준비
Sep.	새학기 준비, 부모교육 가을 P.T.A		
Oct.	성경암송대회, 교사교육, Holly Win Party		예산준비
Nov.	성탄준비, 부모교육 추수감사절예배	내년준비	
Dec.	겨울 P.T.A, Family Worship, 송구영신예배	성탄 축하예배	

표 2-4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으로 둔 것은 아이들의 예배 회복이었다.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예배의 순서를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였다. 설교 역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들을 사용하여 설교하였다. 그리고 매주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서 계속 그 전주의 것들을 반복하게 함으로 그 말씀이 어느 때에 사용될 검인지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알려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도록 반복 훈련을 하였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주보를 만들어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순서를 보게 하므로 교회에 오면 주보를 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주보 보는 훈련과 주보 안에는 금주의 암송구절과 지난 4 주 내지 5 주의 것들을 실어 아이들이 계속 말씀을 익히고 보게 하였다.[265]

1 월엔 신년하례를 하게 하였다. 한국인으로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 주류가 될 수 없는 사회적인 높은 벽이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벽에 부딪힐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게 하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릴 때 본 연구자는 아이들의 장래 꿈을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누구의 자녀인지도 알려줌으로 교인들 간의 유대 관계뿐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에 관한 관심을 끌게 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것에 목표를 두었다.

[265] 주보는 appendix 에 있음.

또 미리 어른들께 세뱃돈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하시도록 알려 드림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체험하게 하며 그 세뱃돈은 개인에게 분배함이 아니라 교회학교에서 예산외에 쓸 예비비로 사용하였다.

2 월과 3 월은 어떤 행사보다도 환경정리 서류정리에 시간을 할애하였다.

4 월엔 Follow Jesus 라는 프로그램을 하였다. 고난 주간에 하루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의 일들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으로 성만찬과 세족식을 하고 십자가상의 영상을 보면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려주고 십자가를 지는 체험을 해 보게 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날 새벽예배엔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영상을 준비하여 Follow Jesus 프로그램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 순서로 부모들이 아침을 준비(테이블보와 냅킨과 접시까지도 신경을 쓰도록)하여 아이들에게 격 있는 아침 대접으로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행복감을 맛보게 해 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좋은 기억을 남게 해 주었으리라 확신한다.

5 월엔 어버이날 행사와 성경 이야기 잔치를 했다. 아이들의 장기에 맞추어 어른들을 위해 발표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본프로젝트를 한 교회에서는 암송, 찬양, 국악을 발표 하였다. 이때 무대 매너와 태도를 가르쳐 주었다.

6 월에는 학교마다 졸업시즌이어서 교회학교에서 주최하는 졸업예배를 하게 하면 좋지만 본 프로젝트를 실행한 교회에서는 졸업생만 어른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게 하였고 이때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도록 부탁

하였다. 기회만 있으면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어른 예배에 자꾸 등장시켜 어른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였다.

7 월과 8 월은 어린이 캠프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교단 특성상 연합수련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참석 하였다.

9 월엔 아이들이 새 학기 준비로 부모교육만 하였고 9 월 초 부모들이 아이들이 새 환경에 잘 적음하고 새로 만날 친구들을 위한 집중기도만 하였다.

10 월엔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암송하던 성경을 일 년에 두 번 확인하였는데 한번은 테스트 용지로, 또 한번은 암송으로 발표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부모들에게 힌트를 얻어 그것을 위주로 선물 해 줌으로 아이들에게 암송에 대한 동기 유발과 보상이 주어지는 교육 효과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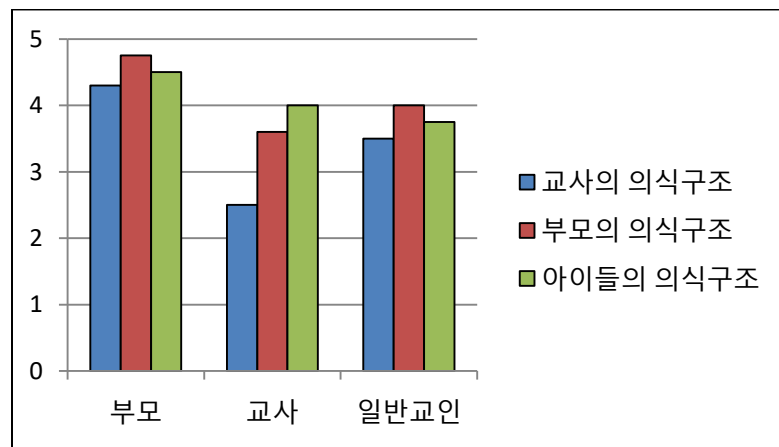
11 월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본 프로젝트를 실행한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발표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본 프로젝트는 11 월 4 일 2016 년부터 10 월 29 일 2017 까지 11 개월을 교회학교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데 주력하였고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에 임파워먼트 함으로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갖게 하는 데 노력하였다.

‘

VIII. 프로젝트의 실행 평가

1. 의식구조 변화에 대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의식구조의 변화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평가와 참여한 자로서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자료화 하였다. 그곳에서 실행한 프로젝트마다 평가의 지수를 5 개로 만들어 숫자가 많은 것이 좋다는 표시를 명시를 주었다

의식구조 변화 평가

1) 부모의 의식구조 변화

2 개월 정도 기존의 프로그램을 따라 함께 하면서 서서히 부모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를 위해 개인 면담으로 부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참석 여부를 타진해 보았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시간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참석하겠노라고 하였다.

교육시간은 예배시간 1 시간 전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갖기로 하고 부모교육 과정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다. 부모교육 교육 과정의 교안을 프린트로 준비하여, 읽고, 보충 설명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교육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실행한 교회는 몇 사람은 안 되지만 유치원에서부터 청소년까지 학생들이 있어 서로 자녀 양육 방법을 나누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부모들은 나누어 준 교안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비했던 점도 나누고 문제점들도 발견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육에 잘 응해 주었다.

이렇게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윤활유 역할을 해 주었다. 한국어 교실을 할 때는 부모들에게 교사 요청을 하였고, 모두 응해 줌으로 프로젝트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이 부모 교육은 주어진 시간이 늘 짧게 느끼면서 마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얼마나 유익했는지 알아보았을 때 설문자 모두가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 이 부모 교육은 성공리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2) 교사의 의식구조 변화

교사의 의식 구조 변화에 대한 질문에 부모들은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정작 교사들의 평가는 낮은 점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미비했던 점은 교사교육이었다. 기존에 있는 예배를 본 프로젝트로 바꾸는 과정이 많이 조심스럽고 어려웠다. 그리고 처음에 교사들은 프로젝트 때문에 그곳을 찾은 본 연구자에게

경계와 거리를 두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처음엔 그 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2 개월 정도 함께 갔다. 그러면서 서서히 기존에 없던 예배 파워포인트만 만들어 아이들에게 변화를 주었고 찬양이나 주보는 예전의 것을 유지하면서 교사 교육 모임을 예배 30 분 전에 모이자고 하고 교사들의 동향을 살펴 나갔다.

한 달쯤 되니까 교사 모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정시에 오는 교사는 없었지만 오는 대로 모임을 하고 그날 예배와 분반 공부를 위해 미리 준비해서 오기를 강권하였다. 반주자에게는 예배의 흐름에 따라 반주해 줄 것을 요청 하였지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 잘 순응해 주지 못했고, 찬양을 지도하는 선생에게도 되도록 예배에 찬송가를 하나씩 넣자고 말하였지만 역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계속 칭찬과 함께 영어권 교사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배분함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어린이 설교 시에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교육자료가 왜 중요한지 가르쳐 줌으로 나중엔 영어권 교사들도 어린이를 위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여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주보도 예전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육적인 내용을 담아 새로 만들었다.

본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교사들과 영성 훈련도 하지못했고 교사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고 가장 미비했던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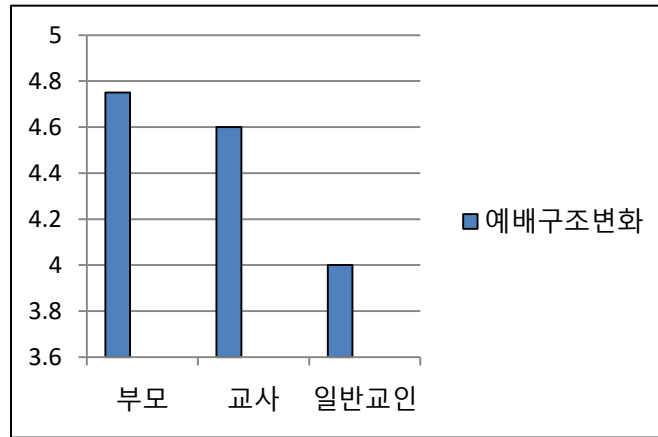
3) 어린이의 의식구조 변화

처음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장난치고 예배의 의미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 당시 아이들이 헌금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부터 해야 했다. 예배 순서들을 파워포인트로 예쁘게 만들고 설교 때마다 영상이든 파워포인트이든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 설교를 하였다. 특히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강조하면서 예배의 의미를 교육하였다. 그런데 한 아이만 제외하고 모두 영어가 편한 아이들이었다. 말씀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준비해 와서 읽어주니 아이들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다.

말씀 전달을 위해 대안 방법을 모색 해야 했다. 부모 카톡방을 만들어 토요일에 설교할 본문을 미리 알려 줘 집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 오게 하였고 두 번째는 예배가 끝나고 한시간씩 한글 교실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국어 반 영어 반을 섞어 가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때는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필요하였다. 아이들이 산만 해 지려 하면 질문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순간 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면서 점점 알아듣기 시작하였고, 이 프로젝트를 마쳐가는 후반에는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4) 예배 구조 변화

예배구조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단위는 0.2 로 구분되었으며 주일학교예배의 변화에 대한 도표이다.

예배 구조 변화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과 선생들을 위해 일단 시각적인 교육자료를 활용하였다. 파워포인트로 예배순서를 모두 만들었다. 그리고 2 개월 후부터는 아이들을 위한 주보를, 아이들이 주보에 익숙해지도록 예배 순서와 암송 구절은 영어로 만들었고 다음 주 예배위원을 넣어 줌으로 준비된 기도를 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였다. 다른 한 면 전체는 암송구절들로 채웠는데. 그 주에 하는 암송은 항상 보드로 하여 구별하면서 지나간 암송들을 다시 반복하게 하기 위해 4-5 개를 항상 넣어주면서 예배 시간엔 암송시간을 조금 길게 하였다. 이는 지나간 것들도 다시 기억하여 아이들이 암송을 확실히 하도록 지도하기 위함이었다. 광고는 부모들을 위한 코너로 그 주 설교 요약을 실어 줌으로 아이들이 그 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알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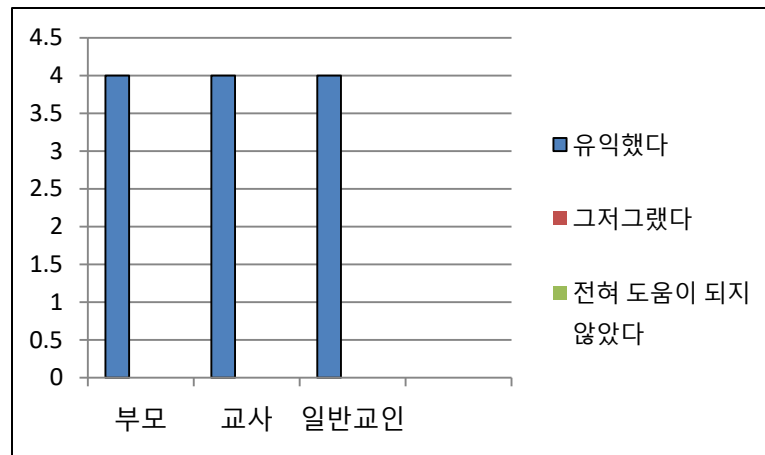
아이들 중 한 아이가 고등부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학생이 있었지만 교회 여건상 중,고등부가 없어 교회학교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그 아이를 특별 대우해 주었다. 아이들 앞에서 말씀 봉독은 항상 그 아이가 앞에 나와 설교자와 함께 서서 하게 하였고 교회학교의 보조교사라 격을 높여 주면서 그 아이를 세워주는 일에 노력함으로 아이가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다.

기존에 아이들이 하던 헌금 기도를 설교자가 하고 예배 후에는 축도해 주어 기독교의 문화를 배우게 하였다. 예배실이 산만하지 않도록 늘 정리정돈도 염두에 두고 실행하였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예배실을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한 아이 한 아이 올 때 마다 이름을 부르며 안아주고 환영해 주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예배 구조의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후반기에는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아이들 스스로 주보를 친히 나누어 주고 주보를 보면서 다음 주 예배 담당자가 누구인지 말하기도 하고 암송 구절을 예배 전에 미리 암송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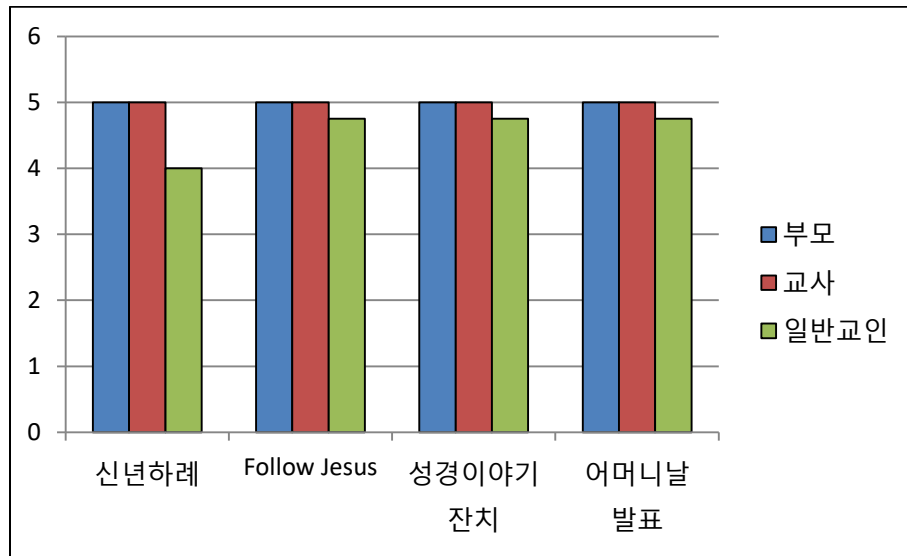
2. 실천적 참여 활동에 대한 평가

1) 부모교육

임파워먼트 교육을 실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고 다음이 부모와 교사 교육이다. 부모 교육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부모교육 설문조사

3 그룹의 설문자들 모두 유익했다에 표함으로 부모교육의 유익성과 필요성을 말해 주었다. 이는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기도 하다. 교육한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주어진 시간이 짧아 항상 서둘려야 했기에 충분한 토론과 나눔이 적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바쁜 가운데 모두 잘 응해 주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2) 주일학교 프로그램

11 개월 동안 프로그램은 4 개 정도 하였다. 아이들에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고난 주간을 가장 큰 교육의 기간으로 이용하여 행사 하였고 암송을 강조하였기에 성경이야기 잔치와 암송 대회를 하였다. 그리고 한국 아이들이기에 한국의 전통인 신년 하례를 하였고 성경 암송대회는 설문조사에 포함 시키지는 않았지만 성경 암송 대회도 가졌다.

주일학교 교육 프로그램 평가

*신년 하례를 하는 목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 한복을 입게 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 정체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교회에서 세뱃돈을 받게 함으로 한민족의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친교 실에서 돗자리를 깔고 하는 바람에 산만함과 집중도가 떨어졌다.

*Follow Jesus 는 프로젝트 중 가장 무게를 두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데 이때 목표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까지 다루어 주면서 아이들에게는 체험과 함께 확실한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세족식과 성만찬을 할 때 아이들은 모두 진지했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교회당을 돌때도 묵묵히 응하면서 가장 어린아이까지 불평 없이 따라주었다.
아쉬웠던 점은 교회에 난방이 고장 나서 추운 밤을 지내야 했었다. 이 프로그램 후 아이들이 아주 어른스러워진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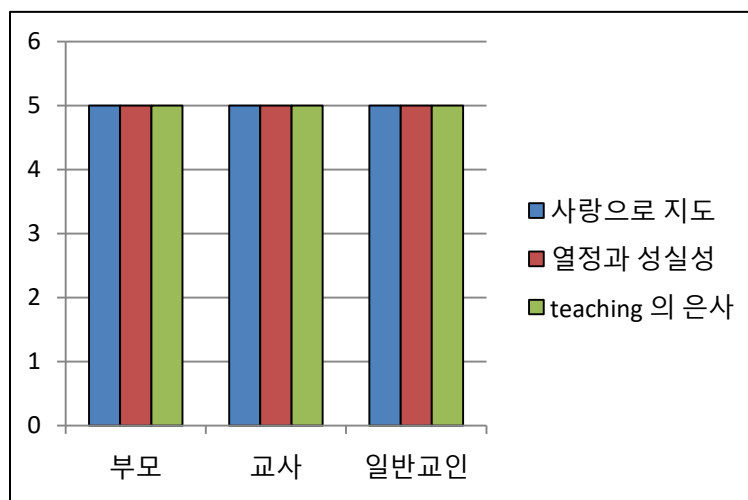
*성경 이야기 잔치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무대 매너와 대회의 진지함과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받게 하는 것에 두었다. 한국말이 서툴지만, 한국말로 성경 이야기를 하게 하였다. 심사위원은 교회의 어른들을 선정하여 예의를 갖춘 초대장에 심사기준까지 알려 드렸다. 이는 작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 해도 진지함을 보게 해 드림으로 교회학교에 관심을 계속 두게 하는것에 목적이 있었다. 상품도 좋은 것으로 준비하였다. 비록 아이들이 한국말이 서툴지만 준비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알 수 있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 행사였다. 행사 후 아이들의 평가는 어른들 앞이라 많이 떨렸다고 하면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였다.

*어머니날 발표 목적은 교회학교와 어른들의 유대 관계 지속이다.
아이들의 특기에 따라 발표하게 하면서 교사들에게 분담시켜 아이들을 개별지도 하게 하였다. 이때 의상에도 신경을 쓰게 함으로 최선의 준비를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 역시 아이들이 칭찬받았기에 부모들도 기뻤고 발표한 아이들도 기뻤고 관람한 어른들도 기뻐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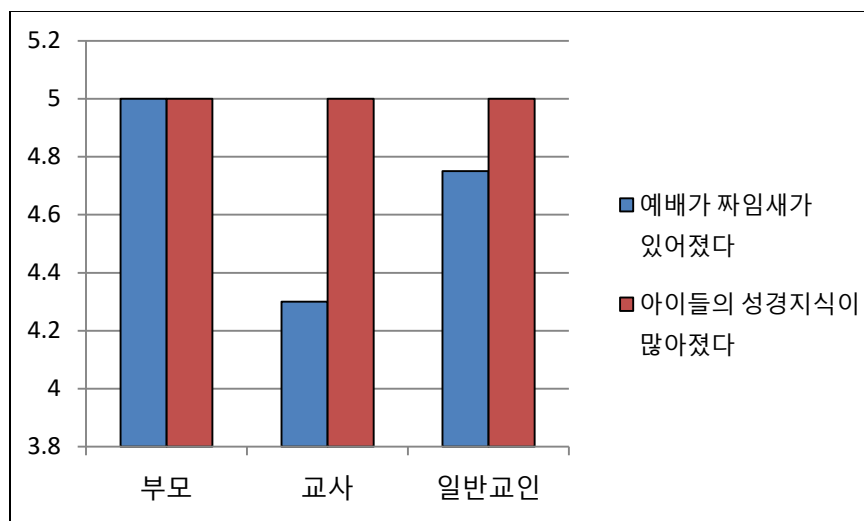
그 외 설문조사엔 넣지 않았지만, 성경 암송 대회를 진행 하므로 그동안 한 암송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때 선물은 아이들이 평소에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사전 정보로 입수하여 선물을 준비 하므로 아이들을 기쁘게 하였다. 이는 임파워먼트 교육에서 중요시 여기는 동기부여와 보상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함께 하는 동안 아이들은 모든 프로그램이 무리 없이 자신들에게 맞추어지고 칭찬과 상품을 적절히 주었기에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가 변했다는 말은 임파워먼트 교육의 열매를 보았다고 평가된다.

3) 목회자 유능성에 대하여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담당 목회자에게 가르치는 은사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과 성실성이 있으며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 따로따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목회자 유능성개발 평가

3. 구조적 변화에 대한 결과 기대

11 개월 동안 실행한 프로젝트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설문조사의 문항에 넣어 의견들을 들어 보았다. 교회학교에 주어진 변화가 있다면 하는 설문조사에서 설문자들이 답한 것은 아래와 같다.

구조적 변화 (막대높이의 0.2 단위이다

11 개월 동안 실행한 임파워먼트 교육프로그램은 분명 예배에 변화를 주었고, 기존에 없던 부모 모임이 한 달에 한번 모임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얻으므로 부모나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교사 모임을 통해 그달 행사를 나누면서 함께 기획하였는데 이 또한 그전엔 없던 것으로서 이러한 체계를 통해 주일학교의 구조 조직에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체성을 위해 본 프로젝트는 한글을 예배 후 가르쳐 줌으로 한국의 문화를 가까이 체험하게 함과 동시에 부모들을 교사로 설정하여 부모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교육의 현장을 보게 하면서 부모들에게 가르침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하였다.

11 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가 아이들에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부모들에도 역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누었기에 계속적인 진행이 이루어 지도록 주보철을 만들어 놓았고 모든 프로그램을 화일로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 해 두었다.

.

IX. 목회 유능성 개발

1. 목회 유능성의 부족함

본 프로젝트를 하면서 리더로서 본 연구자에게 부족한 몇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리더십에서의 문제와 설교가로서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행정가로서 갖춰야 할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리더십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참으로 다양하여서 워렌 베니스(Warren Bennis)와 버트 내너스(Burt Nanus)는 리더의 책임 전략 이라는 그의 책에서 자신들이 찾은 리더십의 정의가 850 가지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266]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 공통적인 리더십의 영향력은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영향의 의도된 목적은 무엇이며 영향을 행사하는 방식은 어떠하며 영향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리더십이란 집단 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성원이 가능한 한 최대의 만족감을 느끼고 효과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 하도록 리더 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

[266] Warren Bennis & Burt Nanus, *Leaders: Strategies for Taking Charge* (New York: Harper Collins, 1997), 4.

리더십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로버트클린턴(Robert Clinton)의 개념 정의가 본 프로젝트에 맞았다. 그는 "리더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267] 라고하였다. 임파워먼트 교육에서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 행동으로 보이게 됨으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신현국은 그의 책에서 피들러(Fred E. Fiedler) 의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소개하였는데, [268] 하나는 과제에 기초한 리더십(Task-oriented Leadership)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 기초한 리더십(People-oriented Leadership)이다. 과제를 기초한 리더십은 언제나 일 중심적인 것이 특징으로 그룹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에 기초한 리더십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중요시하기에 놓칠 수 있는 것은 일의 추진력이 약해져 일의 성취도가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일 중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영적 리더로 준비되어야 할 필자는 섬기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2) 설교가

어른 설교가로도 부족하지만 특히 어린이 설교에서는 전달하면서 언어의 장벽이 있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는 영어가 모국어이고 한국어가 외국어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민 1 세로, 그들의 언어로 설교나 수업 하는 것은

---

[267] Robert Clinton, *The Making of a Leader* (Colorado Springs: NavPress, 1888), 203.

[268] 신현국, *기독교영적 리더십과 목회전략* (서울: 쿰란출판사, 2013), 36.

참으로 힘이 들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었기에 소통에 난관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했다.

3) 행정가

주일학교의 전체적인 일들을 돌아보며 행사와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시각적인 환경 정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 미술을 전공한 선생에게 늘 부탁해야 했다. 이는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 고칠 수도 없는 것이기에 그림 그리기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람이 배워야 할 기술이었다.

2. 유능성 개발을 위한 구체적 계획

1) 리더

일 중심적인 리더가 갖는 위험성을 보면서 목회자 에게 부족한 관계 중심의 리더를 위한 보충으로 이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다.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은 본 연구자에게 어필 해 주는 것이 많았다. 특히 영적 리더로 바로 섰을 때 불신자에게도 영향을 끼친 저자의 사례를 보여 줌으로 영적 리더가 갖는 파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과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269] 는 말에 감동이 있었다. 또한, 영적 리더를 개발하는 모든 전략에는 현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 공감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리더로서

[269] Henry Blackaby, *영적리더십*,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5), 86-88.

갖추어야 할 인품과 영성과 지성에 끊임없는 노력을 함으로 믿는 사람 뿐 아니라 헨리블랙커비가 본 연구자에게 도전을 준 불신자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2) 설교가

어린이 설교를 위해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한 계획으로 영어 공부를 좀 더 치중하기로 했다. 매일 영어문장 3 개씩을 암송하기로 하였다. 이는 항상 무겁게 다가 오는 부담감이다. 이민 1 세로 영어로 완벽하게 설교 할 수는 없어도 아이들과 이민 1.5 세 교사들과 소통은 되어야 하기에 이 언어 배우는 일은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리라 다짐한다.

또한, 목사로서 가장 핵심에 있는 훌륭한 설교가가 되기 위해 구체적인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좋은 설교를 위해서는 설교자의 포괄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좋은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에서부터 선포에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270] 또한 설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에 설교자는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권면한 박재환의 말에 동감하기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노력할 것이다.

청중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가로서 더 많은 훈련과 실행이 필요함을 안다. 어린이 설교와 어른에게 하는 설교는 복음 제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진리는 같지만 전달의 기술에서 아주 다르다.

[270] 박재환, *청중을 변화시키는 능력설교* (서울: 도서출판 성지기획, 2012), 11.

어린이 설교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시켜 복음을 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예화를 잘 들 수 없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에 집중해서 설교해야 하기에 성경의 흐름과 컨텍스(context)를 설교자는 잘 숙지 해야 한다. 이러한 앎은 본 연구자에게 어린이 설교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다짐하게 하였다. 어른 설교이든 어린이 설교이든 설교자는 그 시대의 선지자요, 교사요, 목양자[271] 이기에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명제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함을 명심한다.

좋은 설교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제시한다.[272] 첫째는 영적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한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성경 묵상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한다. 설교의 발전도 체계가 있어야 하기에 정기적인 묵상과 정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설교 계획표를 만들라고 한다. 이는 시간 활용을 잘 할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라고 한다. 탁월한 설교가는 자신을 이기는 규모 있는 생활 습관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부족한 부분은 설교 계획표를 작성해 보지 않았다. 이는 담임 사역을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까닭이라 말하고 싶다. 이 설교 계획표를 세운다면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것에 의지 하다 보면 그 주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놓칠 수도 있기에 분기별

[271] Ibid., 19.

[272] Ibid., 30.

설교프레임을 만들고 절기별 설교계획표를 세운 후 월별 설교제목들을 세운 후 주 설교는 성령님의 인도 하심을 따라야겠다.

또한, 설교가로서 훈련해야 할 것은 체질 개선을 하라고 한다.[273] 육신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음식으로 조절하고 두 번째 설교가로서의 체질 개선으로 말 잘 하는 훈련을 하라고 권면한다.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고 재밌게 하고 분명한 주제가 전달되게 말하라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훈련을 해야 한다. 재미있게 하는 훈련과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정숙 씨가 쓴 '실속 대화법', 데일카네기, 이재준 역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러스웅거, 댄 윌리스, 브래드 넌 널리, 추미란 역 '대화를 디자인하라' 란 책을 읽고 요점 정리를 통해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세 번째 훈련할 것은 사물에 대한 정리, 판단, 분석, 전달의 훈련을 통해 평상시에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습관을 지녀야겠다.

3) 행정가로 그림 배우기

요즘엔 온라인으로 무료 그림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자신의 의사 표현을 그림으로 상징화할 수 있을 때까지 온라인을 통해 그림 공부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 시간씩 4 번 하려고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된 그림연습을 한다면 언제가 필자도 상징화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가 개발해야 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열정을 잃지 않고 노력함으로 리더로, 행정가로 설교가로 그리고 기독교 교육가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위해

---

[273] Ibid., 42.

필요한 세미나 등에참석하고 그리고 관련된 책들을 읽으려 한다. 이는 오랜 시간 훈련과 교육과 자기 계발을 해야 하기에 평생 겸허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

3. 목회능력 개발 결과 기대

1) 예배 리더

현시대에 흐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사조는 자아에 대한 확신, 객관적 세계상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리를 표현해 내는 언어의 능력에 대한 확신 등을 근원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진리의 객관성과 가능성을 붕괴시켰다. 이러한 현상으로 신적 권위, 진리의 권위는 무너져 버렸다. 권위에 의심을 품고, 잘못된 권위에 도전하며 불합리함과 불의를 무너뜨리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결국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인성 파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274]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서 종교, 혹은 신의 존재는 ‘있다, 없다’ 혹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좋다, 좋지 않다’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275]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교회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하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일반종교로 타락시켰다. 이에 더 무서운것은 교회가 실용주의화 되었고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교인 중심이 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

[274] 김도일, “파편화된 인간성을 통합하는 기독교교육,”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Vol. 21.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9, 06, 30.): 30.

[275] G. Edward Veith,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 도전받는 크리스챤*, 홍치모 역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4), 264.

이러한 현실에서 진정한 예배 리더는 하나님과 매 순간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교회에 제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276]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며 만남으로 사랑을 드리고 받는 관계다.[277] 이러므로 예배는 생활화되어야 하고 생활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본다. 이렇게 예배를 생활화할 수 있을 때 예배자에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과 새 성품으로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본적인 메세지인 예배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바나구룹 연구에 의하면 단지 9%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278]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답한 사람 가운데 46%가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를 믿으며 오직 40%가 사탄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직 62% 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는 통계가 있다.[279] 이러한 결과는 심각하다. 목회자는 교회를 채우기 위해 프로그램이나 숫자에 속지 말고 기본 메시지에 충실하면서 예배 본질에 대해 회복을 해야 한다. 예배에 초점을 맞춘 본

---

[276] Jared C. Wilson, *The Prodigal Church*, *탕자교회*, 이대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70.

[277] 김진호, *예배자의 마음 기르기* (경기도: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12), 22.

[278] Jared C. Wilson *The Prodigal Church*, *탕자교회*, 96.

[279] Ibid., 97.

프로젝트의 결과 아이들은 행복해 했고 말씀의 지식은 늘었으며 막연히 알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였다. 이로 보건대 교회 사역의 가장 기본은 예배 회복임을 확신하며 이 사역에 충실할 것이다.

2) 설교가

훌륭한 설교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깊이 알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을 자신 있게 선포한다.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설교는 적용에 강조점이 있다.[280] 적용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전형적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설교가로서 잊지 말아야 할 덕목 중 하나는 복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생명을 주는 것임을 명심 하겠다. 결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게 해서는 안 되게 하기(갈 3:3) 위해 늘 깨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것을 토대로 설교가로서의 끊임없는 훈련을 계속한다면 어린이 설교이든 어른 설교이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여 설교하게 될 것이다. 목회 유능성 개발에서 발견한 본 연구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훈련, 개발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행정가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교육 목표에 맞게 행사를 계획 집행할 수 있어야 하기에 행정력이 뛰어나야 한다. 행정가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사역의 양이

[280] Ibid., 107.

아니라 사역의 질에 두어야 하기에 단순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281] 행정가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기록으로 잘 남겨 놓을 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14 권의 서신서를 남겨 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같이 행정가로서 유능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빛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목회 유능성의 개발을 통해 임파워먼트 교육기관이 탄생하여 교사훈련, 부모훈련, 설교세미나, 상담훈련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함으로 각 분야마다 전문인력을 세워 예배를 회복하며, 교회를 유용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4) 기독교 교육가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본 연구자는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나 교사 교육의 교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 교육 방법에 문화를 어떻게 교육 재료로 활용할 것인가하는 통찰력을 갖게 한다. 존듀이나 루소의 교육철학들이 어떻게 기독교교육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 행동 심리학자들의 심리연구들,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들, 대상 관계심리학자들의 연구들이 기독교 교육과 접목되어 좀 더 풍성한 교육 원리와 교육 방법론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중이다. 이러한 결과가 언젠가는 학교에서 각 교회에서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281] Ibid., 173.

X. 결 론

이 프로젝트의 논지는 대상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을 교육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해소함으로 상처 입은 유약한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발달하게 되므로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데 있다.

교육이라는 도구를 임파워하여 실천의 장을 교회학교로 삼아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를 교육함으로 교회학교를 베이비 씨터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미래를 담당할 일꾼으로 세우는 데 또한 목적이 있다.

본 프로젝트는 갈등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분석하여 임파워먼트 교육이라는 도구로 갈등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교회학교에서 실행한다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성경 속 인물들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 냈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갈등이 현세대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적인 방법을 찾던 중 대상 심리학자들의 이론들을 보면서 그들이 찾은 원인이 교육학적인 원인과 같았고 그들이 제시한 해결 방법이 임파워먼트 교육에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이론적으로 뒤받침 해 주는 도구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 속에 그들의 이론들을 반영하였고, 임파워먼트 기독교 교육이라는 용어를 창안해 낼 수 있었다.

이 임파워먼트 교육은 본 연구자가 7 년동안 교회학교에서 사역하면서 얻은 것 들 위에 본 프로젝트를 하면서 연구한 이론들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연구한 이론 들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살펴본 성서적인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었다. 구약에서는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그들이 겪은 갈등의 원인을 찾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개인들 간의 관계와 사회적 상황 간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함을 보았다. 이는 아벨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장남인 가인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서 온 강한 시기심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야곱과 루우벤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의 불완전한 편애의 사랑이 자식들 간의 갈등을 만들고 부자지간에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음을 보았다.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관점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았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종교지도자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한 세력간의 갈등으로 발생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와의 교리적인 문제가 교회적인 갈등의 요인으로 발생하였다. 결국 갈등의 원인은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 관습의 차이, 성격의 차이, 종교의 차이 계층 간의 차이가 클수록 갈등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3 장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갈등 원인의 핵심에 있는 죄의 개념에 대해 구약적인 관점과 신약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본 죄의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시는 죄의 관점과 피조물인 인간이 보는 죄의 개념이 확연히 달랐으며 신약에 와서 갈등의 요인은 죄로인한 마음의 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바울은 인간의 내부적인 갈등 요인을 죄악성 외에 로마서 7 장과 8 장에서 원치 않는 죄의 세력을 말함으로 갈등상황이 또 다른 힘에 의해 제공됨을 밝혀 주었다. 현대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에르마허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의 죄의 개념과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 (Karl Barth)의 죄의 개념, 그리고 해방신학에서의 죄의 개념을 보면서 현대 신학에서의 죄의 개념은 인간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교만이나 태만 그리고 기만과 불안 등이 인간의 대상 관계 속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죄의 해결을 다루어 줌으로 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4 장에서는 사회적인 시각을 다루어 주면서 현대의 사회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현대문명이 주는 갈등의 요인은 무엇이며 그 요인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문화에 대해 개념 정리와 문화의 영향력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결국 현대의 물질문명은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했고, 사회 안에서의 갈등은 서로 간의 관심, 주장, 동기, 태도, 욕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일어나는 것들이 갈등의 요인들이 되었다. 사회 속에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빈부격차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였는데 이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갈등은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이 되기에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 외 계층 간의 갈등의 원인은 전통적인 지역감정, 권력배분,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편차로 인해 집단 의식화, 탈 개성화를 촉진하는 것들로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힘은 이념으로 인한 국가 간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작게는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들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5 장에서는 갈등 해결의 방법과 원인을 찾기 위해 대상 심리학자들의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인간이 태어나 만난 첫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거하는 그들의 이론들에서 인간의 병리를 찾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들의 이론들은 임파워먼트 교육에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지지해 주는 것이 되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마가렛 말러(Margaret Mahler), 멜라클라인(Melanie Klein), 도널드 위니컷(Donald Winnicott), 그리고 하인즈 코핫(Heinz Kohut)의 이론들을 제시하되 학자마다 반복되는 주장은 겹치지 않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 하였다.

6 장 교육적 연구에서는 그동안 찾은 갈등의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임파워먼트 교육에 관한 것들을 제시 하였다. 기독교교육의 역사적 개관을 통해 교육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임파워먼트 교육은 인간의 발달에 시발점을 두어 교육이 시작되기에 인간발달의 요인과 원칙을 살펴 보았고 인간이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은 무엇인지 두 학자의 이론을 아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임파워먼트 개념 정리를 통해 임파워먼트 교육의 설명과 임파워먼트 교육의 주요학습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이 임파워먼트 교육은 동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John M. Keller 의 ARCS 동기부여 이론을 조금 자세하게 실어놓았고 임파워먼트 교육 철학에 영향을 끼친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와 존 듀이(John Dewey) 그리고 기독교 교육가라 할 수 있는 코메니우스(Iohannes Amos Comenius)의 교육 철학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교육철학 중 어느 분야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제시해 놓았다. 그리고 임파워먼트 교육 실천의 장으로

교회학교를 지목한 이유를 3 가지 밝히면서 교회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도전하였다.

임파워먼트 교육의 목적대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방법 들을 모색할 힘을 길러 줄 수 있다면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프로젝트는 이 이론을 중심으로 실행하였고 그 평가의 결과는 아이들에게는 예배의 회복이 있었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는 지식에서 자랐으며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얻은 결론이다. 결과를 아는 또 다른 방법은 학생과 부모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그들의 표정에서 나오는 평안함과 기쁨과 자신감의 표출이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모습들이었다.

교회의 리더들은 현대교회에서 교회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들 우려한다. 그 이유를 본연구자는 이렇게 보고 싶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 으로 교육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할 리더의 부재이기도 하다. 왜냐면 청년이 되면 이미 세상의 가치관이 삶을 지배하고 있기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향해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리더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숫자에 치중한 부흥에 관심들을 두고

목회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된 젊은이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 본다.

교회 리더들은 현시대의 이러한 악순환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만 할 것인가? 교회 리더들은 예수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 하신 명령을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서가 하위구조에 있는 것이 아님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적으로 교육부서에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교육학적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 줄 가장 좋은 밭이 교회학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 이유는 아동은 아직 청소년기가 겪는 정체감의 혼란을 맞이하지 않았기에 지도자가 무엇을 강조하며 가르치느냐에 따라 자존감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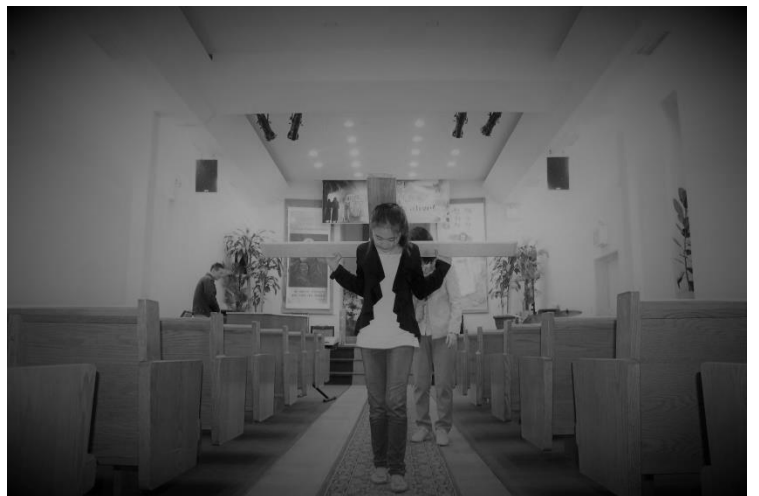
이 임파워먼트 기독교 교육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함께 교육해 나갈 동역자들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임파워먼트 교육기관을 만들어 교사와 부모의 훈련, 그리고 교회 리더들의 인식구조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APPENDIX

아이들 예배

부활절 찬양

어머니날 발표

Follow Jesus

1 년 행사

새시대 어린이 성경이야기 잔치

May., 28 th., 2017.

이름	이야기 전달 60 점	테도 및 무대매너 20 점	발음 및 복장 20 점	비고
안윤희 (Kindergarten) Emily An			98	
박현빈 (2nd) Daniel Park	60	18	20	앞으로 더 씩씩하고, 큰소리로 부탁
김희수 (4th) Grace Kim	60	17	97 20	참 예쁘게 단정하게 참 잘했어요
박하늘 (4th) Hannah Park	60	17	97 20	참 잘했어요
김현선 (6th) Chris Kim	60	20	19 99	참 잘했어요 약간 언어 보충

성경이야기 잔치 심사

Announcement

August Plan

▣ 오늘 부터 (27 일) 11 시 에서 11 시 10 분까지 영아부 예배를 먼저 하고 유, 초등부 어린이 예배의 찬양이 시작 됩니다.
▣ 새학기를 위해 부모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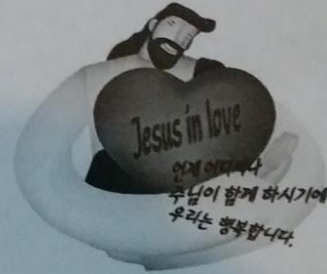
▣교사 모임 : **매 주일 오전 10 시 30 분**
장소 : 어린이 예배실
Teacher's Meeting : Sunday 10:30 AM
Place: Sunday School Worship room

▣ Today, we have Korean Language School Class

지난 주 Paul 선생님을 통해 바울의 굳건했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 이었던 시이저왕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이수하러 가는 동안 바다에서 유라굴라 라는 풍랑을 만났고 모두 죽게 되었을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 하셨고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그 풍랑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축복통로가 될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73 August. 27, 2017

Children's Worship Program

어린이 주보

남침례회

New Generation Church (SBC)

57-04 Roosvelt Ave.. Woodside, NY 11377
Tel: 718-592-4008, 201 952-0688

Sunday Worship Service

인도 Helen Kim
Piano Paul Teacher

- Call to Worship.. 인 도 자
- Praise.......... .... 인 도 자
- Prayer.. Hannah Park
- Offering.. Emily An
- Hymn.........It is well with My soul................All Together
- Memory Verse.........Acts 19:11,12.... ....All Together
- Scripture............Acts 19:12-20......... ....David Kim
- Sermon.. ....Pastor Nam, Seung Bun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through Paul
- Announcement..사 회 자
- Lord's Prayer..All Together
- Benediction..Pastor Nam,Seungbun

Worship Servers

	Offering	Prayer	songs
This Week	Emily An	Hannah Park	Taka Teacher
Next Week	Grace Kim	Chris Kim	Taka Teacher

Memory Verse

- **Acts 19:11,12**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through Paul. So that even handkerchiefs and aprons that had touched him were taken to the sick and their illnesses were cured and evil spirits left them.
- Acts 7:59-60
  While they were stoning him, Stephen praye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Then he fell on his knees and cried out,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 Proverbs 16:3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 Hebrews 4:12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 John 10:29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Baumrind(1967, 1971)은 부모-자녀 상호작용 유형을 크게 허용적-익애적 유형(permissive-indulgent style), 권위주의적 유형(authoritarian style)과 권위 있는 유형(authoritative style)의 세 가지로 대별하여 각 부모-자녀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자녀의 성격특성, 사회성 및 지적 특성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살펴 보았다.

1.“권위주의적 양육 유형”의 경우는 심리적 갈등이 많고, 다소 억압적이고 희생적인 경향이 높고, 애정과 통제가 적절하게 균형적인 “권위있는 유형”의 부모의 자녀들은 자기통제력, 자기신뢰도가 높으며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아동의 특성이 오히려 부모-자녀의 관계형성에 주도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아동중심적 관점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즉, 같은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녀의 특성에 따라 대하는 태도는 당연히 달라지며, 부모-자녀관계의 주도가 부모가 가진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기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어떠한 기질(Cunningham & Barkly, 1979), 신체적 특성, 성, 출생순위 등을 지니고 있는가와 같은 자녀의 특성에 따라 혹은 동일한 부모의 양육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혹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갖는 지각도 및 수용도의 어떠한가에 따라 동일한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은 부모로 하여금 다양한 양육태도 및 역할을 하도록 상이한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부모-자녀관계 역시 달라진다는 것이다.

부모의 성격은 유전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학습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에도, 관찰 경로를 통해 잠재적이고 비의도적인 형태로 자녀의 생활전반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 즉, 부모가 가진 성격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선택하고 유지,

결정하도록 하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그대로 자녀에게 본보기 즉, 모델로서 작용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간추려보면, 부모와 성격과 자녀의 성격이 유사성이 클수록 부모-자녀관계가 보다 긍정적이고 원활하다는 보고와, 부모와 자녀의 성격의 일치정도보다는,부모가 자녀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가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더 결정한다는 상이한 결과들이 있다

부모 자신의 성숙한 성격일수록 자녀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부모-자녀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유도해 나갈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십대의 모(母)보다는 나이가 있고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현실적이고 적절한 기대를 한다는 사실은 이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부모 자신이 우수한 성품을 지니고 있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수용하고, 자신의 성격적 결함과 장점을 잘 인식하여 자녀에게 맞추고 희생하려는 의지력을 키워 나가도록 함은 부모-자녀관계를 높이는데 일조하는 중요한 교육내용이 된다.

2) 아버지의 역할

고전적 연구에서 주장된 결과를 살펴본다면, 대개 아버지의 영향은 자녀의 성 역할 형성에 크게 작용한다. 딸의 긍정적인 여성상에 대한 아버지의 인정과 격려는 여아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주며, 반대로 여성상에 부정적이고 완고한 태도는 여아들의 사회적・성적 발달을 방해한다는 결과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아버지는 특히 자녀에게 삶의 가치관인 도덕성 발달의 모태로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어머니가 보호와 배려에 대한 자애로운 역할을 담당한다면, 아버지는 이와는 달리 다소 엄하고 규칙지향적으로 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자녀의 인지발달, 학업성취, 성 역할, 사회적 적응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친 문제가 자녀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 제시가 그것이다

각단계별 발달 과업

1. 유아기 (1-5)

유아기는 초기와 후기에 따라 부모 역할에 있어 다소 차이점이 있다.

전적으로 부모의 보호 아래에 존재하고 부모의 의도 대로 통제되던 영아기와 비교해 볼 때, 유아기 초반에는 인성발달에서 "자율성"이 크게 강조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부모역할에서 변화가 크다. 2-3 세는 "No age"라고 일컬을 만큼, 이시기에 속한 자녀들은 자의식이 싹트고 이행운동으로 자신의 신체를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의 힘을

발휘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표출되는 경향이 크다. 그럼으로 매사에 고집적이고 자기 관철적인 행동을 빈번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부모의 시선으로 볼 때 자녀들이 탐탁치 않고 위험스러운 행동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부모는 그러한 자녀들의 변화와 시도들이 자녀가 인성적으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탐색행동이 된다고 여기고 적절한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만약 부모가 탐색 기회들을 지나치게 막는 등 과보호적일 경우 자녀들은 수치심을 갖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 쉬우며, 이는 부정적 자아개념의 뿌리가 될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때 부모는 자율과 규제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자녀에게 나타낼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배변 훈련의 패턴과 시기 및

자조기술(self-help-skills)의 정도와 이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아동의 인성 발달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유아기 후반에는 자율성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지지를 바탕으로 형제나 주변 또래들과의 사회관계 형성을 맺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즉, 아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때에는 책을 접하거나 장난감과 같은 지적 자극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연스럽게 학습경험 제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자녀가 끊임없는 질문으로 자신의 지적 주도성을 나타낼 때 성실하고 다정한 파드백을 주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부모에게 학업에 대한 흥미나 습관형성을 가질 수 있는 학습경험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된다.

특히 Erikson 의 주장대로 이 시기가 측면에서 “주도성” 획득의 민감기라면, 이 시기에 부모는 아동 자신의 의지 표현과 수용과 배척에 균형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주도성 발달은 양심을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아동은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며 위험스럽고 잘못된 일은 주저하고 그만 둘 수 있는 능력을 서서히 갖게 되는데 이러한 죄의식의 뿌리는 다음 발달 단계에서 획득되어야 할 여러 발달과업의 기초 능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2 아동기 (6-12)

아동기는 학교라는 사회집단 속에서 사회적 기능 습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대개 교우 관계, 세심함 학습 지도, 근면성과 건전한 자아개념을 획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자녀가 획득해야 할 주요 발달과업이다. 이 시기에는 강력한 모델로서 부모의 언행이 내면화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학습과업과 또래와의 관계형성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즉, 자아개념의 세 가지 기본 차원-자신이 어떤 집단의 일부로서 느끼는 소속감과 그 일부의 규칙을 잘 따르려는 의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자긍감,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에서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Coopersmith, 1967).

이러한 자아개념의 긍정성은 "근면성" 획득과 맥을 같이 한다. 근면성이란 유용한 기술들을 열심히 배우고 이를 숙달하고 완성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성취감 혹은 만족감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근면성은 좀 더 도전적인 과제에 자신을 내 맡기고 투여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주요 인성의 특징 중 하나이다. 만약 아동에게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차단되어졌거나,

그 기회들에서 실패만을 누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아동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당연히 자신에 부정적 상을 갖기 쉽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 시기 자녀에게 부과되는 학습경험의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취미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애정과 규율의 배합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기 (13-18)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는 부모-자녀간의 상화작용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화나 공유활동과 같은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빈도 자체도 감소됨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의 응집력의 변화로 인해 부모-자녀관계는 아동기에 비해서 대개의 경우 바빠진다. 그래서 생애주기로 볼 때 청소년기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제일 심화되는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차 성원과 같은 신체의 가속화 현상을 자녀가 감지하게 되면 이러한 내부적 힘은 자신에게 부과된 미래에 대한 여러 역할들에 대해 중압감을 가지도록 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독립에의 요구가 커져 부모의 개입에 반발적 행동을 나타내기 쉽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 전 시기의 자녀 반응과 대비해 섭섭함을 갖기 쉬우며, 결국 이것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더욱이 절대적인 부모상은 자녀들의 사고의 다양성으로 인해, 부모를 한 남자로서 혹은 한 여자로서 인식하게 되어 그 권위가 상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기다 자녀의 이상적인 사고는 재판관과 같은 분석적 행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모의 언행에 대해 나름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높인다.

이로 인해 아동기 동안 순종적이였던 자녀들도 대개의 경우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는 나름의 반항적 행동을 빈번히 보이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친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서 부모보다는 주변의 또래들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가에 너무나 몰두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녀의 태도는 부모가 볼 때에는 비생산적인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지각되기 쉽다. 즉, 동일시 대상의 전환으로 또래들과의 결속과 지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모는 자신을 소외시키고 친구들과의 결속에만 매달리는 자녀들의 행동상의 변화에 당황되기 쉬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의 왕성한 에너지의 분출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들 나름의 압박감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시기에 보이는 자녀의 성격적인 측면은 대단히 즉흥적이고 가변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보이는 대화의 기회를 갖고, 무엇보다 자녀가 건전한 자아 확립을 갖출 수 있는 생산적인 노력에 힘을 쏟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프로그램

Follow Jesus

일시 : April, 15, 2017 8:00 pm

1. 8:00-8:40 PM : Worship

- The last super experience
- 세족식
- 십자가 체험

2. 10.00 : go to bed
3. 6:00 Am : 부활절 새벽예배
4. Breakfast : 7:30 am

Helper : Daka teacher : Praise & Worship.

Helen Teacher & Jesica : 성만찬 준비 및 아침 준비

Pastor Nam : 세족식 준비, 말씀 준비, 무교병, 종이컵, 접시, 포크

Picture : Daniel Father

헬렌 선생님 : 하얀 비닐 테이블 보, 포도쥬스, 큰컵,

제시카선생님 : 펜케익 가루, 시럽, 계란, 우유 오렌지 주스, 감자 등 아침을 Fancy 하게.

Matthew 3:10

10 The ax is already at the root of the trees, and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will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Matthew 25:13

13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Matthew 13:43

43 Then the righteous will shine like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Whoever has ears, let them hear.

John 3:16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Luke 2:14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on earth peace to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Luke 12:20-21

20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21 “This is how it will be with whoever stores up things for themselves but is not rich toward God.”

John 20:24-25

24 Now Thomas (also known as Didymus), one of the Twelve, was not with the disciples when Jesus came. 25 So the other disciples told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Luke 11:9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9 “So I say to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Mark 5:28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28 because she thought,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Mark 4:20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20 Others, like seed sown on good soil, hear the word, accept it, and produce a crop—some thirty, some sixty, some a hundred times what was sown

1. 고후 5:9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Ⅱ Corinthians 5:9 So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him, whether we are at home in the body or away from it.

2.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ⅡTimothy 3:16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3. 딤후 3: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ⅡTimothy 3:17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4. 요 10: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John 10:29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5. 요 10: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John 10:28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hand.

6.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Hebrews 4:12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7.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Matthew 4:4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8.잠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Proverbs 16:3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15 수 1:9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Joshua 1:9 Have not I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16 Daniel 1:8, But Daniel purposed….

설 문 지

1. 당신은 당신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 합니까 ?

a. 아주 건강한 교회이다. ( )

b. 건강한 교회이다. ( )

c. 병든교회이다. ( )

d.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 )

2. 교회학교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 지난 10 개월동안 새시대 어린이 학교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습니다.

* 수자가 많은 것이 좋다의 표시 입니다

3. 예배에 변화가 있다:	5.	4.	3.	2.	1.
4. 교사의 의식구조에 변화가 있다:	5.	4.	3.	2.	1.
5. 부모의 의식 구조에 변화가 있다:	5.	4.	3.	2.	1.
6. 아이들의 의식구조에 변화가 있다:	5.	4.	3.	2.	1.

7. 그동안 가진 부모교육에 대하여

a. 유익했다. ( )

b. 그저그랬다. ( )

c.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8. 그동안 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a. 신년하례: 5. 4. 3. 2. 1.

b. Follow Jesus : 5. 4. 3. 2. 1.

c. 성경이야기 잔치: 5. 4. 3. 2. 1.

d. 어머니날 발표: 5. 4. 3. 2. 1.

9. 목회자 유능성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습니다.

a. 담당목회자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한다: 5. 4. 3. 2. 1.

b. 담당목회자의 열정과 성실성이 보인다: 5. 4. 3. 2. 1.

c. 담당목회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5. 4. 3. 2. 1.

d. 담당목회자에게 teaching 의 은사가 보인다: 5. 4. 3. 2. 1.

10. 교회학교에 주어진 변화가 있다면 ?

a. 예배가 짜임새가 있어졌다: 5. 4. 3. 2. 1.

b. 아이들이 성경암송을 통해 성경지식이 많아졌다: 5. 4. 3. 2. 1.

참여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안작성 샘플

일시:2016 년 9 월 19 일

유년부

성경본문:출 3:1-4:20

참고서적:Family fun stuff p53-55

핵심진리: With God's help we can do more than we think.

도입: 지난주 공부 기억할 수 있나 확인 (선물준비 또는 스티커 준비)

전개: 오늘 내용을 역할을 분담하여 읽어갈 것.

절정: God: Tell them I sent you. Tell them My Name: **I am Who I am.**(큰소리로 같이 읽을 것)

결론: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돕는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

핵심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몇 천 배를 할 수 있음.

하나님이 함께 해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

1.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됨.-다시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됨.
2.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문둥이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 됨.
3.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동행 하게 함

이야기 나눌 것: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 시켜 준 사람들은 누구인가?

가정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학교에서 나를 도와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에서 나를 도와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돕는 분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배를 할 수 있음.

개인적용:빌 4:13 절 다같이 암송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Bibliography

영서

Bloom, Allan.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New York: Simon & Schuster, 1987.

Bennis, Warren & Burt Nanus. *Leaders: Strategies for Taking Charge*. New York: Harper Collins, 1997.

Barclay, William. *The Acts of the Apos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5.

Crump, Miller Randolf. *The Clue to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1950.

Clinton, Robert. *The Making of a Leader*. Colorado Springs: NavPress, 1888.

Freire, Paulo. *Pedage of the oppressed.* New York: Sobury Press, 1970.

Flynn, Leslie B. *Great Church Fights.* Wheaton: Victor Books, 1976.

Gutierrez, Gustavo & R. Shaull. *Liberation and Change.* Atlanta: John Knox Press, 1977.

Kennedy, Paul.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1993.

King, Alexander. *The First Grobal Revolution.* New York: Pantheon Books, 1991.

Lee, Ronald R. & J. Colby Martin. *Psychotherapy after Kohut.* London: The Analytic press, 1991.

Miller,William R. & Delaney. Judeo. *Human nature, motivation, and chang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5.

Munro, Harry C. *Protestant Nurture.* New Jerse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56.

Mittelstadt, Martin William. *The Spirit and Suffering in Luke-Ats.* London: T. & T. Clark, 2004.

Minery, John R. *Conflict Managmment in Urban Planning*. Vermont: Gower, 1985.

Ohmae, Kenichi. *The Borderless World*. London: Fontana, 1991.

Schleiermacher, Friedrich Daniel Ernst. *The Christian Faith, Trans. H.R. Mackintosh and*

J.S. Stewart. Edinbutgh: T. & T. Clark, 1928.

Segundo, Juan Luis. *The Liberation of Theology*. New York: Orbis Books, 1976.

Toffler, Alvin. *Previews & Premises*. NewYork: Bantam Books, 1983.

Weininger, Otto. *Melanie Klein. From Theory to Reality*. London: Karnac Books, 1992.

Wesley, John. Sermon. *The Way to the Kingdom* II. 2.

Westermann, Claus. *The Promise to the Father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번역서적

Arnold, Johann Christoph.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원마루 역, 서울: 포이에마, 2014.

Bright, John. *이스라엘의 역사 상권*. 김윤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6.

Bonhoeffer, Dietrich. *기독교 윤리*. 손규태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74.

Barclay, William. *The Acts of the Apostles*. 정혁조 역, 서울: 교문사, 1972.

Berkhof, Louis. *제 4 권 기독론*.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8.

Blackaby, Henry. *영적리더십*,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5.

Busch, Eberhard. *칼 바르트(Karl Barth)*. 손성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4.

Bromiley, Geoffrey W.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신옥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Barth, Karl. *교회교의학* Ⅳ/2. 최종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Barbalet, Jack. *감정의 거시사회학*. 박형신, 정수남 역, 서울: 일신사, 2007.

Brueggemann, Walter. *Genesis*, 현대성서주석.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Comenius, John Amos. *대교수학*. 정확실 역, 서울: 교육과학사, 2013.

———.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 정일웅 역, 서울: 그리심, 2008.

Dewey, John. *민주주의와 교육.* 이홍우 역, 서울: 교학사, 1996.

Duchrow, Ulrich. *자본주의 세계경제대안. 성서의 정치경제학.* 손규태 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

Dale, Schunk H•Pintrich Paul•Judith L.Meece. *학습동기 이론 연구 그리고 지원.* 신종호 역, 서울: 학지사, 2013.

Dunn, James D.G. *로마서 1-8.* 김철, 채천석 역, 서울: 도서출판사 솔로몬, 2003.

Freire, Paulo. *교육과 의식화.* 채광석 심지연 공역, 서울: 새밭, 1978.

Greenberg, Jay & Stephen Mitchell. *정신분석적 대상관계이론.*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Gutierrez, Gustavo. *역사와 정치와 구원.* 성염 역, 서울: 분도 출판사, 2000.

Hinshelwood, Robert Douglas. *임상적 클라인.*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Lane, Tony. *기독교 인물 사상사전.* 박도웅, 양정호 역, 서울: 홍성사, 2007

———. *복음주의 입장에서 본 기독교 사상사.* 김응국 역, 서울: 나침반, 1987.

Lewis, Scott M. *최근 신약 묵시사상 연구 동향.* 김병모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2.

Kohut, Heinz. *자기의 분석.*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Miller, Donald E. *기독교 교육개론.* 고영수, 장종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 1988.

Mitchell, Stephen & Margaret Black. *프로이트 이후.* 이재훈, 이해리 역, 서울: 한국 심리 치료연구소, 2000.

Mackintosh, Hugh Ross. *현대신학의 선구자들:슐라이에르마허부터 바르트까지.* 김재준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3.

McMinn, Mark, R. 채규만 공저.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된 기독교 상담,* 서울: 두란노, 2004.

Henny, Matthew. *Genesis Vol. II,* 정혁조 역, 서울: 교문사, 1975.

———. *1Kings*. 남준희 역, 서울: 교문사. 1976.

Niebuhr, Richard.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윤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Niebuhr, Reinhold. *인간의 본성과 운명*. 이상설, 윤영복, 양우식 역, 서울: 문교부, 1962.

———. *기독교 윤리학*. 노진준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8.

Nelson, Richard. *I, II Kings. Interpretation.* 김회권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Saul, Leon J. *아동기 감정양식과 성숙.* 천성문, 이명순, 박순득, 정봉희, 정문선, 김수령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Sanders, Ed.Paris. *바울, 유대교, 율법*. 김진영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6.

Schreiner, Thomas R. *바울과 율법*. 배용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7.

Schleiermacher, Friedrich Daniel Ernst. *종교론*. 최신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Rousseau, Jean Jacques. *루소에밀.* 권응호 역, 서울: 홍신문화사, 1987.

Raymond, Blakney.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민재 역, 서울: 다산글방, 1994.

Riesman, David. *고독한 군중*. 류근일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11.

Segal, Hanna. *멜라니 클라인*. 이재훈 역,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1999.

Siegel, Allen M.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권명수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Sanders, Thomas C. *교수법*. 박형규 역, 서울: 제 3 일사, 1972.

Summers, Frank, *대상관계이론과 정신병리학*.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4.

Shaffer, David R. *발달심리학.*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역, 서울: 시그네 프레스, 2002.

Sundermeier, Theo.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채수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Smart, James, D.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60.

Vos, Geerhardus. *성경신학.*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Volf, Miroslay. *배제와 포용.* 박세혁 역, 서울: IVP, 2012.

Veith, G. Edward.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 도전받는 크리스챤.* 홍치모 역, 서울: 아가페 문화사, 2004.

Winnicott, Donald. *놀이와 현실.*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 *박탈과 비행.*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1.

Williams, Nancy Mc. *정신분석적 진단.* 장남윤,이기련 역, 서울: 학지사, 2008.

Wilson, Jared C. *탕자교회.* 이대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Young, Edward J. *구약총론.* 오병세, 홍반식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4.

Haenchen, Ernst. *사도행전.* 이선희 박경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한서

김득용. *기독교 교육원론.*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김순식외. *창세기 헤세드 종합자료씨리지.* 경기도: 임마누엘출판사, 1986.

권경주외 8 인. *현대행정의 이해*. 서울: 대영, 2002.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7.

고범서. *해방신학논쟁.* 서울: 범화사, 1984.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서울: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1981.

김만석. *컨버전스 시대 전통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화 전략.* 서울: 북코리아, 2010.

구광현, 권건일, 김승권, 이종숙 공저. *교육학 개론.* 경기도: 양서원, 1994.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1991.

김형태. *기독교 교육의 시초.*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0.

김진호. *예배자의 마음 기르기.* 경기도: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12.

나용화. *핵심조직신학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해방신학비판.*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3.

노안영, 강영신.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8.

노은호 외. *교육과 삶.* 서울: 동문사, 1998.

리재학. *DTP 교리강해연구 IV 인간편.* 서울: 선린, 1990.

목창균. *현대신학논쟁.* 서울: 두란노, 1998.

박재갑. *분열왕국시대.* 오아시스 성경강해 구약 8. 서울: 도서출판좋은땅, 2016.

박재환. *청중을 변화시키는 능력설교.* 서울: 도서출판 성지기획, 2012.

정성민. *폴 틸리히와 칼 바르트의 대화.* 인천: 도서출판 바울, 2004.

안호상. *루소.* 서울: 대양서적, 1970.

안인희. *루소의 교육론.* 서울: 양서원, 1990.

———. 정희숙, 임현식.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임한영. *듀이 교육사상 연구* 서울: 민중서관, 1974.

윤성범. *Karl Barth.* 서울: 기독교서회, 1968.

이형행. *교육학개론.* 경기도: 양서원, 1999.

이종수. *막스 베버의 학문과 사상.* 서울: 한길사, 1984.

이원설, 문영식. *Visionary Leadership for the 21st Century*.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이창원, 명승환, 임영제. *정보사회와 현대조직.* 서울: 대영문화사, 2005.

양창삼. *인간관계와 갈등관리.* 서울: 경문사, 1997.

양영진. *베버 종교사회학 저술들의 내적 연관성, 막스 베버 사회학의 쟁점들.* 서울: 민음사, 1995.

유종해.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2001.

윤석준.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 가지 성경 이야기 1.*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손인수. *교육철학 연구.* 서울: 문음사, 1986.

신현국. *기독교영적 리더십과 목회전략.* 서울: 쿰란출판사, 2013.

조남홍. *교회싸움.* 서울: 선교문화사, 1999.

홍경자. *청소년의 인성교육.* 서울: 학지사, 2004.

학술지

Benedict, Ruth. “Patterns of Culture,” Chap. II; “Malinowsk, A Scientific Theory” etc., Chap, X, XI. (1934).

Dewey, John. "My Pedagogic Creed, Personal Growth Leaflet 19,” 72-74 항.

Gabbard, Glen O.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Third Edition* 05-15-2000, 61- 68.

Huntington, Samuel. ”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72, no.3 (Summer 1993): 22-23. 38-40.

Kohut, Heinz “How Does Analysis Cure?, “Ed. Arnold Goldberg *Chicago: The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194-200.

Keller, John M. “Development and use of the ARCS model of instructional design,” *Journal of Instructional Development, 10(3)* (1987): 2-10.

Malinowski, Bronislaw, “A Scientific Theory of Culture and Other Essays” (1944): 43.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4~5): 41.

———.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slicher und sozialpolitisher Erkenntnis,” in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 *Tübingen: J. C. B. Mohr, 1922* (1968, 1973): 56.

강영걸. *The Korean Journal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5,No 2 (2003): 335-338.

김진숙. “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 학회지,* 8-2 (2000): 53-54.

김준수. “기독교인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성경과 신학 29,* (2001): 248.

김철홍. “1 세기 유대교 인간론의 악한성향과 바울의 인간론” *신학연구* (2014): 770-773.

구스타보 구띠에레즈. “우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련다” *한국신학연구소* (1986): 34-37.

김경희. “한국정치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제 22 집 제 1 호 (2013).

김의환.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21 세기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295.

김도일. “파편화된 인간성을 통합하는 기독교교육,”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Vol. 21.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9, 06. 30): 28-37.

노숙현. “인간관계의 기초로서의 형제관계에 대한 성서적 이해,” *금구논총 5* (1997): 243-248.

노대환. “문명,” *한국개념사총서 6 권* (도서출판 소화, 2010): 23-24.

———. "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00): 54-59.

박수암.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죄사상: 로마서 6 장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제 6 권* (1990): 200-208.

박영환. "J. Dewey 경험교육설의 재고," *부산대학교 교육논문집 제 10 집* (1983): 30-52.

박선영. "환상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프로이트와 클라인을 중심으로," *감성과학,* 9-2 (2005): 144-145.

———. "멜라니 클라인 정신분석과 아동정신분석의 역사,"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6*-1 (2004): 239-240.

이재훈. "참자기와 거짓자기의 문제," *기독교사상* (1991, 5): 217-220.

———. "하인즈 코후트의 자기 심리학이 갖는 목회신학적 함축," *한국교회와 신학실천 대한기독교서회* (1996): 353-357.

전호진. "Contextualization 의 문제점과 필요성" *한국교회와 선교* (1984): 113-133.

정석환. "목회상담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3): 30-31.

정일웅.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 사상 연," *신학지남 62 (2)* (1995): 207-217.

최창모. "가인과 아벨 이야기 (창세기 4 장)의 구조와 구조주의적 해석, " *신학사상 95* (1996): 139. 장석정, "가인과 아벨 이야기 I (창 4:18) 본문구성분석," *구약논단 5* (1998): 7-19.

최의헌. "Kohut의 자기 이해," *기독교상담학회지 2 109-110.s 1991* (2001): 117.

이순종,김종균. "일원론적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2)," *디자인학연구*, Vol.46, No2 (2002): 16-17.

하경택, "가인과 아벨의 제사," Vol. 14 of *창 4:1-16 에 대한 주석적 연구* . 장신대학교 (1998), 22-26.

미간행 논문

박선영. "멜라니 클라인의 아동정신분석 이론 및 임상체계의 재구성,"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3.

유미숙. "동기유발(ARCS) 전략을 적용한 가정과 수업이학습동기 및 교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윤찬종. "한국문화원형,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육성 방안에 대한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사호행. "한국교회내의 갈등원인 분석과 그 갈등 극복을 위한 방안 " 총신대학교목회 신학 전문대학원 교회성장학 전공, 2015.

김영국.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교직헌신과 학교교육과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구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초등교육학과 초등교육, 2011.

박민우." 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 조직문화와 교사 임파워먼트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기타

"신정론 [theodicy, 神正論]"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0922&cid=42121&categoryId=42121 (Accessed Octber 2, 2017)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 2조3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http://terms.naver.com/alikeMeaning.nhn?query=E00239408(Accessed August 2, 2017)

"*회복의 삶을 향하여~!!,"* www.http://woorich.tistory.com/354 (accessed July 20, 2017).

"합환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29161&mobile&categoryId=104 (accessed July 20, 2017).

I.V.P 성경사전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2), 493.